

국립국어원 2015-01-4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05-01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연구 책임자: 정 승 철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전국 방언 지도 제작”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연구 책임자: 정 승 철(서울대학교)

직 책	성명(소속)
연구 책임자	정승철(서울대학교)
공동 연구원	이기갑(목포대학교), 박경래(세명대학교), 김덕호(경북대학교), 임석규(원광대학교),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연구 보조원	권창섭(서울대학교), 김경숙(경북대학교) 김경열(충북대학교), 김수영(서울대학교) 김유겸(서울대학교), 김인규(경북대학교) 신우봉(고려대학교), 오청진(목포대학교) 이현주(서울대학교), 정성경(목포대학교)

연구 협력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 전통적 방언 어휘의 분포를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남한 지역 안에서의 방언 분포나 분화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여기에 덧붙여, 지도에 표시된 각 방언형에 현지 토박이의 발음이 포함된 음성 파일을 결합하여 일반 대중들이 쉽게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방언 지도 제작에는 많은 어휘들이 대상이 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10개의 단어에 대한 지도만을 제작하여 대단위 지도 제작의 시험적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첫째, 전국 방언 지도 제작에 활용할 기 조사 자료(2004년-2013년 국립국어원의 권역별 ‘지역어조사 및 전사사업’ 결과물)를 정비하여 DB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기존 조사 도구인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를 바탕으로,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질문지를 새롭게 구성하되, 《지역어 조사 질문지》의 어휘 항목 중 1,200개 이내의 항목을 선별한 후 필수 조사 항목과 권장 조사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조사 및 전사 지침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지역어조사 및 전사사업’에서는 전사 형태를 ‘음소 전사’로 채택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방언 지도의 정확한 구현을 위해 전사 원칙을 ‘형태음소 전사’로 정하였다. 이러한 전사 원칙에 따라 방언 조사 및 전사 지침을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또한 기존 자료에 대한 DB 구축 작업을 통해 시범 지도 10장을 구현하기 위한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사형 및 음성형을 제공하였다.

둘째,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보완 조사가 함께 진행되었는데, ‘지역어조사 및 전사사업’(2004-2013)의 미조사 지역 가운데 전국 20개 지점에 대한 방언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지점과 제보자에 대한 기준은 ‘지역어조사 및 전사사업’과 같이 70세 이상의 노년층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하위 방언권 중 의미 있는 지역이나 시 또는 읍에서 왕래가 덜한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원 1명이 2개 지점씩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사원 10명이 총 20개 지점을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한 결과는 전사 도구인 Transcriber로 전사하였다. Transcriber를 활용하여 전사를 마친 후, 연구진별로 5~6장의 방언 지도를 그려서, 그 중 의미 있

는 항목 둘씩을 선별하여 방언 지도 10장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고려한 전국 방언 지도의 기초를 설계하였는데, 문자나 숫자, 실제 이미지 등을 지도와 연결하여 컴퓨터상에 재현해서 위치나 장소로부터 나온 다양한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알기 쉽게 지도로 표현하였으며, 방언 지도 제작기(Map Maker)를 활용한 GIS-비트맵(Bitmap) 방식의 언어 지도를 시범 설계하였다.

넷째, 웹 기반의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동한 전국 방언 지도를 시범적으로 10장 정도 제작하였다. 지도로 구현한 10개 항목은 ‘뱃가리, 새패기, 변소, 가위, 어레미, 키, 다르다, 목말, 역새, 우박’이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s primarily aim to find dialect distribution and dialect differentiation in South Korea that represented distribution of traditional Korean dialect vocabulary on the map. Secondary objective to allow you to easily identifying the dialect form, to combine audio files that contains native pronunciation in each dialect form marked on the map. The object becomes a great deal of vocabulary in real a dialect map production, but For this study guidance only at 10 words in the production goes through with the large-scale mapping of an experimental operation.

First, Whole dialect maps DB was established by the formation of to tap on the floor. and it is organized by a questionnaire for the production of a dialect map, by selecting within 1,200 of lexical items of «The Survey questionnaire of regional dialects(지역어 조사 질문지)»

In addition, we newly made survey and transcription guidelines, choosing morphological transcription(underlying form description). and making a map 10 sheets, it provided transcription form and voice form of 10 lexical items.

Second, Dialect survey was included in supplementary measures to make whole dialect maps about 20 sites across the country was made. Informant is a native of senior citizens aged over 70 years and survey site is meaningful research area or less ever comes in a city or town area. Survey and the result is transcribed by transcriber, we made 10 sheets of dialect maps made, by selecting two significant items each of them.

Third,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esigned the basis of the whole dialect maps. On the computer by connecting such as letters and numbers, real image maps, it is easy to know to analyze and integrate a variety of information from position or location map.

Utilizing dialect map maker, it is set up a linguistic atlas with GIS-bitmap system,

Fourth, integrate the web-based regional dialects total information system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produced about 10 sheets on a trial basis and for a whole dialect maps, the 10 items is 'a stack of rice straw(볏가리), an unsheathed stalk of a straw(새뺨끼), toilet(변소), scissors(가위), a coarse sieve(어레미), winnow(키), different (다르다), shoulders riding (목말), Flame Grass(억새), hail(우박)'.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내용	1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2.1. 방언 지도 제작의 역사	5
2.1.1 국외	5
2.1.2 국내	9
2.2 방언 지도의 유형	14
2.2.1 진열지도	14
2.2.2 해석지도	19

제3장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보완 조사

3.1 조사 대상	23
3.2 조사 방법	28
3.3 조사 과정	30
3.4 조사 결과	32

제4장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전국 방언 지도 시범 제작

4.1 지리정보가 반영된 언어 지도	35
4.1.1 GIS-Mandara	35
4.1.2 GIS-ArcView	47
4.1.3 GIS-비트맵 언어 지도	49
4.2 전국 방언 지도 시범 제작	69
4.2.1 '벧가리'의 언어 지도	69
4.2.2 '새괘기'의 언어 지도	72
4.2.3 '변소'의 언어 지도	74
4.2.4 '가위'의 언어 지도	77
4.2.5 '어레미'의 언어 지도	80
4.2.6 '키'(箕)의 언어 지도	82
4.2.7 '다르다'의 언어 지도	84
4.2.8 '목말'의 언어 지도	86
4.2.9 '역새'의 언어 지도	89

4.2.10 '우박'의 언어 지도 92

제5장 결론

5.1 연구의 의의 95

5.2 기대 효과 96

※참고문헌 98

첨 부

1.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 별도의 디스크

2.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방언 조사 및 전사 지침 100

3.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제보자 조사표 128

4. 보존 및 전사용 음성 파일 별도의 디스크

5. Transcriber 전사 파일 별도의 디스크

6.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별도의 디스크

7. 결과 정리 엑셀 파일 별도의 디스크

그림 목차

<그림 1> 타니켄지(谷謙二)의 MANDARA 홈페이지	35
<그림 2> 록코산(六甲山)을 교가에 넣어 부르는 초등학교의 분포도	37
<그림 3> 록코산(六甲山)을 교가에 넣어 부르는 초등학교의 분포도	37
<그림 4> 일본의 지점별. 계절별 강수량	38
<그림 5> 나고야시 통근율	39
<그림 6>名古屋市·豊田市·豊橋市 通勤者 割合(1985)	40
<그림 7> 東京都로의 이주자(2000년)	41
<그림 8> 'MANDARA'에서의 데이터 흐름	43
<그림 9> 오사카부에서 '남풍(南風)'을 'マゼ[maze]'로 부르는 지점과	44
<그림 10> 中井精一이 Mandara를 활용하여 제작한 朝鮮半島 言語地圖(麻疹)	46
<그림 11> 맵에디터 화면(한반도 전도 벡터 방식 전환 및 플롯 작업)	47
<그림 12> 데이터 방언 지도 원도 결합 프로세서 작업	47
<그림 13> 일본 도야마현 '분가(分家)' 분포 정보 방언지도	48
<그림 14> 천연색 면도안 언어 지도	48
<그림 15> 패턴식 선도안 언어 지도	49
<그림 16> 21세기초 '키'형 언어 지도(일반)	50
<그림 17> 21세기초 '키'형 언어 지도(지리정보)	51
<그림 18> MAP Maker의 기본 백지도	53
<그림 19> MAP Maker 기본 백지도의 좌표 데이터	54
<그림 20> 새 좌표 데이터 생성	54
<그림 21> 백지도 열기	55
<그림 22> 지역명 파일 열기	55
<그림 23> 지역명 파일	56
<그림 24> 좌표 설정	57
<그림 25> 어휘 데이터 형태	58
<그림 26> 프로그램 실행	59
<그림 27> 프로그램 구동 화면	59
<그림 28> NET Framework Initialization Error 화면	60
<그림 29> Microsoft.NET Framework 내려받기	60
<그림 30> 새 지도 파일 생성	61

<그림 31> 백지도 열기	61
<그림 32> 좌표 데이터 열기	62
<그림 33> 어휘 데이터 열기	62
<그림 34> 랜덤 심볼 지정으로 완성된 지도	63
<그림 35> 랜덤 심볼 사용	64
<그림 36> 사용자 심볼 지정	64
<그림 37> 자모순 정렬	65
<그림 38> 빈도순 정렬	65
<그림 39> 완성된 지도 화면에서 상징부호와 범례 글꼴 변경	66
<그림 40> ‘키’의 상징부호 지도	66
<그림 41> ‘키’의 지리정보(GI)-이미지 언어 지도	67
<그림 42> ‘목말’의 지리정보(GI)-이미지 언어 지도	68

제1장 연구개요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한국 전통적 방언 어휘의 분포를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남한 지역 안에서의 방언 분포나 분화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지도에 표시된 각 방언형에 현지 토박이의 발음이 포함된 음성 파일이 결합되어 있어,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손쉽게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처럼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언 지도의 제작은 가능한 한 많은 어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번 연구는 10개의 지도만을 제작해 봄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대단위 제작의 시험적 작업에 해당되는 셈이다.

음성이 결합된 방언 지도는 이미 일본 등지에서 제작된 바 있으며, 방언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왕에 이루어진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결과를 지도화하여 대중을 위한 방언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1.2 연구의 내용

(1) 전국 방언 지도 제작에 활용할 기 조사 자료(2004년-2013년 국립국어원의 권역별 '지역어조사 및 전사사업' 결과물) 정비 및 DB 구축

- 기존 조사 도구로서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 검토 및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질문지 작성

⇒ 《지역어 조사 질문지》의 어휘 항목 중 1,200개 이내의 항목을 선별한 후 필수 조사 항목과 권장 조사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조사 질문지를 작성함.

- 필수 조사 항목 : 선명한 방언형의 분화를 보여 줄 것 같은 항목, 한국어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 줄 것 같은 항목 등(약 600개)

- 권장 조사 항목 :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방언형을 보여 줄 것 같은 항목, 방언형들이 산발적 분포를 보여 줄 것 같은 항목 등(약 600개)

- 조사`전사 지침 작성

⇒ 전사 원칙을 ‘음소 전사’에서 ‘형태음소 전사’로 바꿈.

- 기존 자료에 대한 DB 구축

⇒ 시범 지도(10장)로 구현할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사형 및 음성형을 제공

(2)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보완 조사

- ‘지역어사업’(2004-2013)의 미조사 지역 가운데 전국 20개 지점에 대한 방언 조사

	기 조사 지역(2004-2011)	국어원 제안 지역	실제 조사 지역
경기 도	8지점 : 용인 처인/백암, 화성, 포천, 파주, 양평, 이천, 강화		
강원 도	7지점 : 삼척, 원주, 양양, 홍천, 평창, 인제, 정선	철원, 화천, 강릉	철원, 화천, 강릉
충청 북도	6지점 : 제천, 청주, 충주, 옥천, 보은, 영동	단양, 괴산	단양, 괴산
충청 남도	7지점 : 공주, 대전, 논산, 서천, 예산, 서산, 천안	홍성, 부여, 보령	당진, 보령, 금산
전라 북도	6지점 : 완주, 남원, 무주, 군산, 고창, 임실	진안, 부안, 정읍	진안, 부안, 정읍
전라 남도	8지점 : 함평, 곡성, 진도, 영광, 보성, 영암, 신안, 광양	해남, 고흥, 여수	강진, 고흥, 여수
경상 북도	7지점 : 경주, 상주, 청송, 고령, 청도, 의성, 봉화	울진, 예천, 칠곡	울진, 김천, 영천
경상 남도	7지점 : 고성, 창원, 창녕, 산청, 남해, 울산, 하동	합천, 함양, 함안	합천, 함양, 거제
제주 도	7지점 : 제주시 건입, 북제주군 구좌/한경, 서귀포시 호근/표선 /색달/대정		
계	63지점	20지점	20지점

⇒ 조사원 1명이 2지점씩 조사함.

- 조사 지점 : 하위 방언권 중 의미 있는 지역, 시나 읍에서 왕래가 덜한 지역
- 제보자 : 70세 이상의 노년층, 토박이 화자

(3)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고려한 전국 방언 지도 기초 설계

- 지도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고려한 방언 지도

⇒ 문자나 숫자, 실제 이미지 등을 지도와 연결하여 컴퓨터상에 재현해서 위치나 장소로부터 나온 다양한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알기 쉽게 지도로 표현한 것

- 방언 지도 제작기(Map Maker)를¹⁾ 활용한 GIS-비트맵(Bitmap) 방식의 언어 지도 설계

(4) 웹 기반의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동한 전국 방언 지도 시범 제작(10장)

- 10개 항목(벚가리, 새팸기, 변소, 가위, 어레미, 키, 다르다, 목말, 억새, 우박)에 대한 전국 방언 지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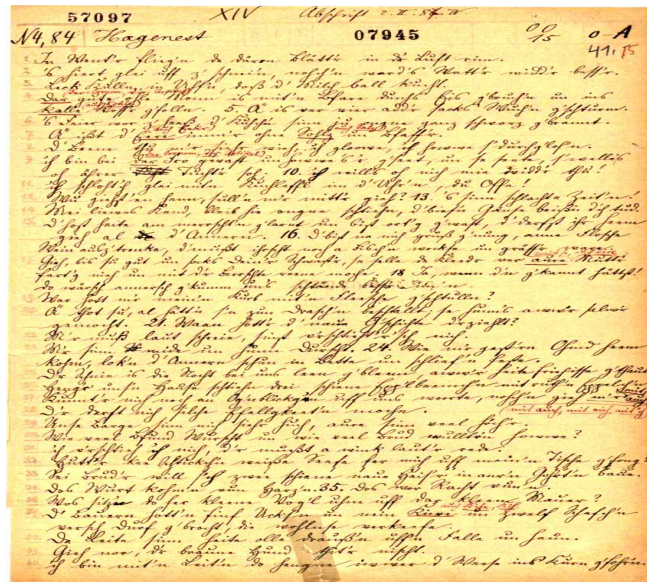
1) 경북대 이상규·김덕호(2005)의 언어 지도 제작 전용프로그램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2.1. 방언 지도 제작의 역사

2.1.1 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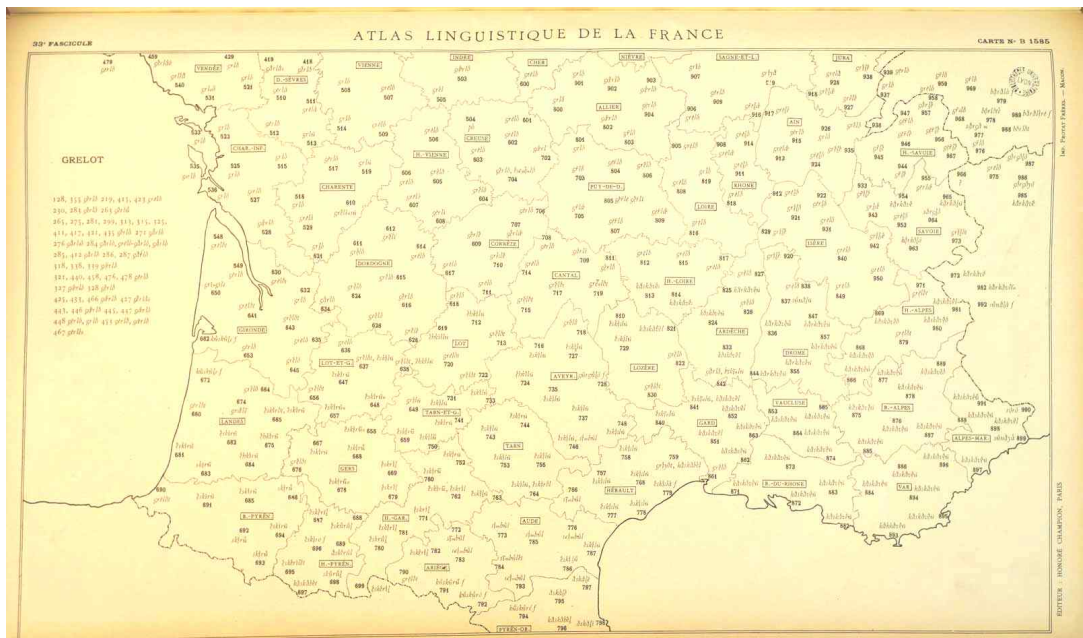
방언학 연구의 초기에 작성된 방언 지도 중 주목할 것은 독일 출신의 방언 연구자인 벤커(Georg Wenker, 1852-1911)에 의해 조사·연구되고, 브레데(Ferdinand Wrede, 1863-1934)에 의해 정리된 《독일 언어 지도(Deutscher Sprachatlas)》(1926)이다. 벤커는 1876년부터 독일의 대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방언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 방언 조사는 우편을 통해 설문을 주고받는 통신 조사의 형태였다. 즉 <사진 1>과 같이 40개의 표준어 문장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독일 전역의 교사 약 50,000명에게 우편으로 보내 그것을 해당 지역의 방언으로 번역하여 반송하게 함으로써 방언 자료를 수집하였던 것이다.



독일 작센 주(州) 보르나 시(市)에서 반송된 벤커의 방언 조사 질문지²⁾

2) Wolfgang Näser의 German Dialects - a Practical Approach(토호쿠대 초청 강연 발표문,

스위스 출신의 언어학자 질리에롱(Jules Gilliéron, 1854-1926)이 프랑스 전국의 방언을 대상으로 작성한 《프랑스 언어 지도(Atlas Linguistique de la France: ALF)》(1902-1910) 또한 방언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방언 지도가 아닐 수 없다. 질리에롱의 방언 조사는 방법론상으로 벤커의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에드몽(Edmond Edmont, 1849-1926)이라는 훈련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지 조사를 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에드몽은 1897년부터 1901년까지 600여 지점을 돌아다니며 단어를 조사 단위로 하여 1920개에 이르는 방대한 항목을 조사할 수 있었다. 이후 질리에롱은 에드몽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 항목에 대해 방언형을 그대로 기입해 넣은 《프랑스 언어 지도》를 간행하고 각 단어들의 분화 과정을 살폈다. 그는 ‘모든 단어는 저마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단어 지리학을 전개하였으며, 20세기 초 전통 방언학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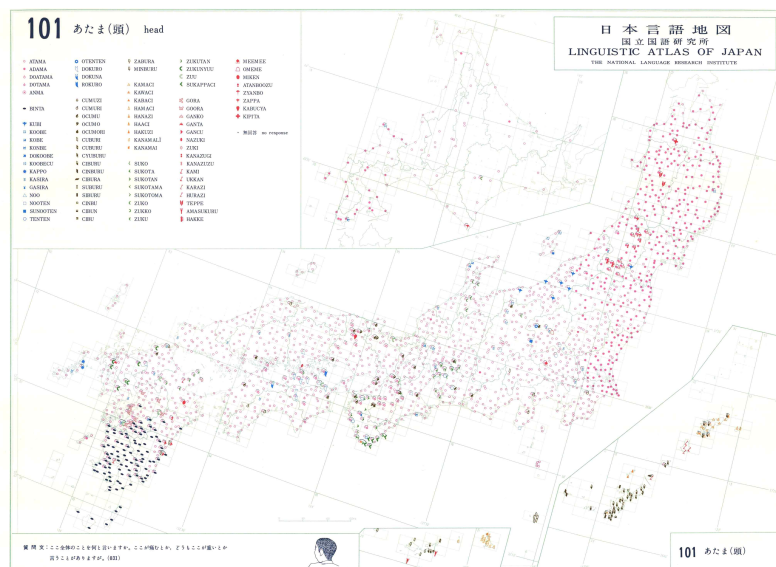


'Grelot(방울)'에 대한 방언 지도 (《프랑스 언어 지도》, 1902-1910)

2006)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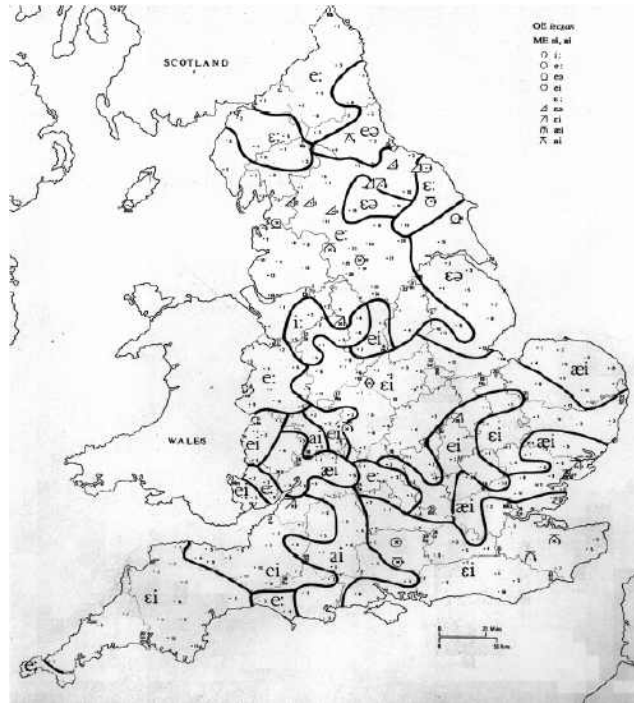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방언 지도를 출간하였다. 대표적인 방언 지도를 아래 소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일본 언어 지도(日本言語地圖 Linguistic Atlas of Japan)》(1966-1974): 일본 국립 국어 연구소에서 간행하였다.



‘あたま(頭, 머리)’에 대한 방언 지도 (《일본 언어 지도》, 1966-1974)

- 《영국 언어 지도(the Linguistic Atlas of England: LAE)》(1978): 오펜 (Harold Orton, 1898-1975)의 주도로 간행하였다. 오펜의 ‘영국 방언 조사 (Survey of English Dialects: SED)’의 계획에 따라 간행된 《영국 방언 조사: 기본 자료(Survey of English Dialects: The Basic Material)》(1962-1971)가 바탕이 되었다.



동사 'lay(놓다)'에 대한 방언 지도(《영국 언어 지도》, 1978)

- 《한어방언지도집(漢語方言地圖集)》(2008): 중국 북경어언대학의 차오지운 (曹志耘) 등이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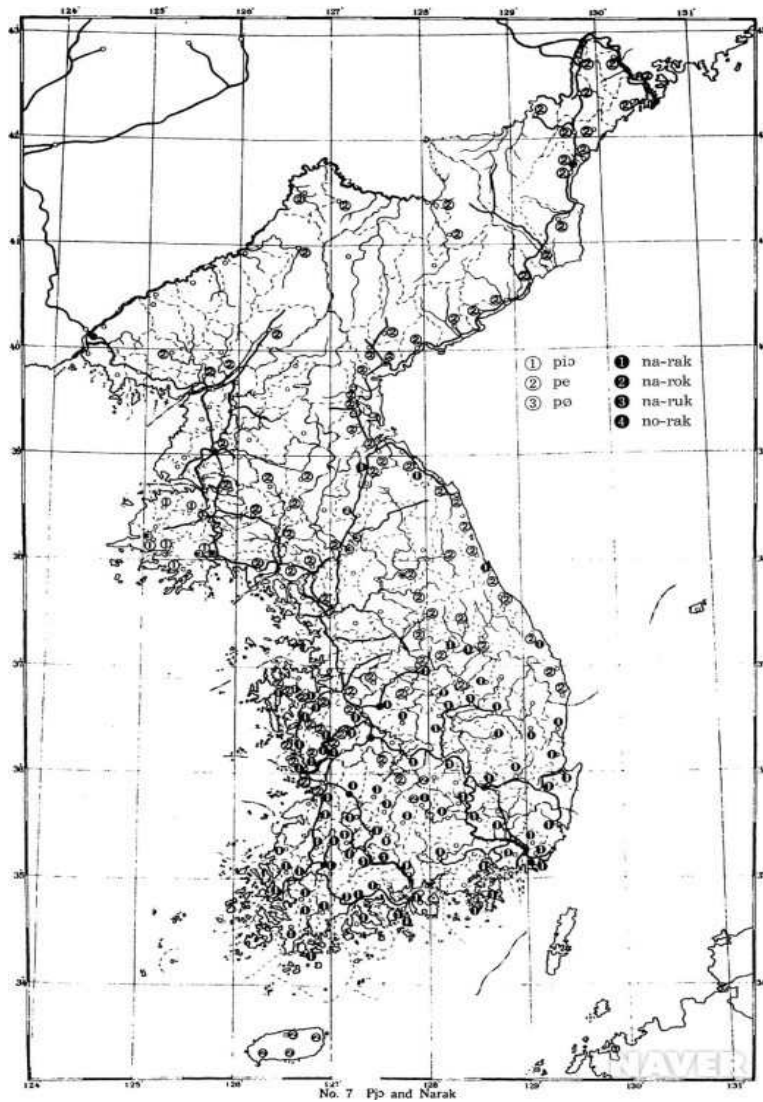


한어 방언의 분포에 대한 방언 지도(《한어 방언지도》, 2008)

2.1.2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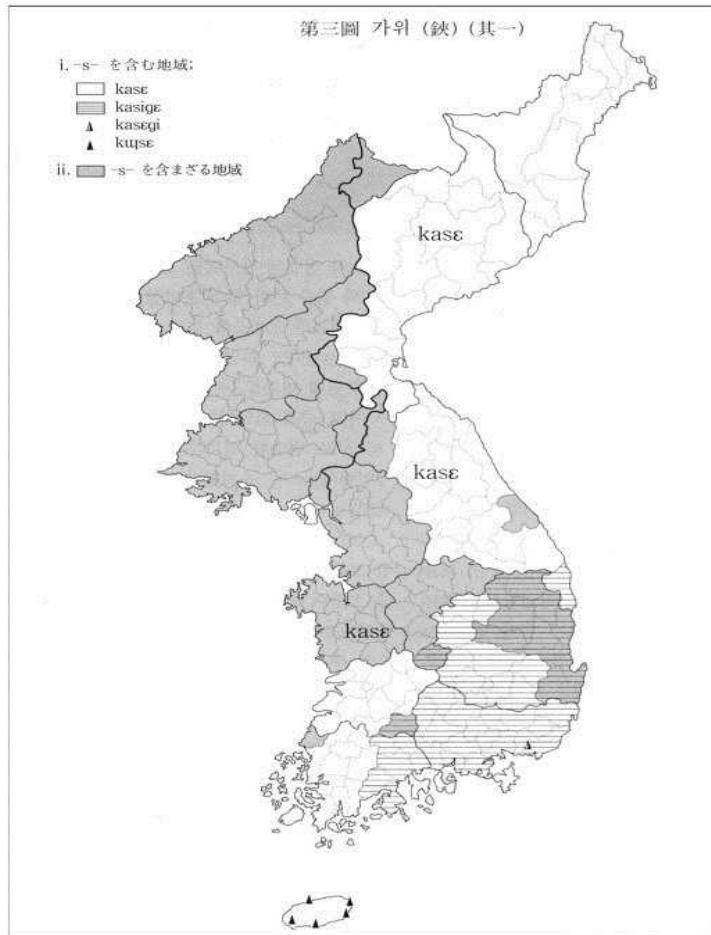
한국어에 대한 이른 시기의 방언 지도는 일본 출신의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가 저술한 《한국 방언 개요(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194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구라 신페이는 한국어의 역사와 그 계통에 관심을 두고 한국어를 연구하던 중, 문헌 자료의 부족을 느끼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방언 조사·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총 259개 지점(군청 소재지를 중심)에서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을 활용하여 방언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방언 조사가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음운·어휘·어법으로 나누어 <제주도 방언(濟州島方言) 1·2·3>(1913), <함경남북도

방언(咸鏡南北道方言)(1927), 《남부 조선의 방언(南部朝鮮の方言)》(1924), 《평안남북도의 방언(平安南北道の方言)》(1929) 등의 논문이나 책으로 발표하였다. 《한국 방언 개요》(1940)는 그의 조사·연구를 집약하고 한국어에 대해 방언 구획을 시도한 업적으로, 한국어 방언을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경기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의 6대방언권으로 구획하였다.



‘벼’에 대한 방언 지도(《한국 방언 개요》, 1940)

오구라 신페이(河野六郎, 1912-1998) 역시 한국어의 역사와 계통에 관심을 두고 방언을 연구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조선방언학시고(朝鮮方言學試攷-鍊語攷-)》(1945)는 국어 방언 자료에 의지하여 한국어 음운사를 논의한 것이다. 여기서 오구라 신페이는 ‘가위(鋏)’의 방언형을 중심으로 이에 반영되어 있는 음운 변화와 지리적 분포를 검토하면서 해당 방언형들의 역사를 재구하고 이로부터 방언형들의 생성·소멸은 물론 역사적 변화 단계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전국 149지역을 대상으로 ‘가위(鋏)’ 및 이와 체계적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들의 방언형을 조사하고 이들의 변화 단계를 공간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방언 지도를 작성하였다. 더불어 이를 통해 한국어의 방언 구획(‘중선 방언, 남선 방언, 서선 방언, 북선 방언, 제주도 방언’의 5개 대방언권)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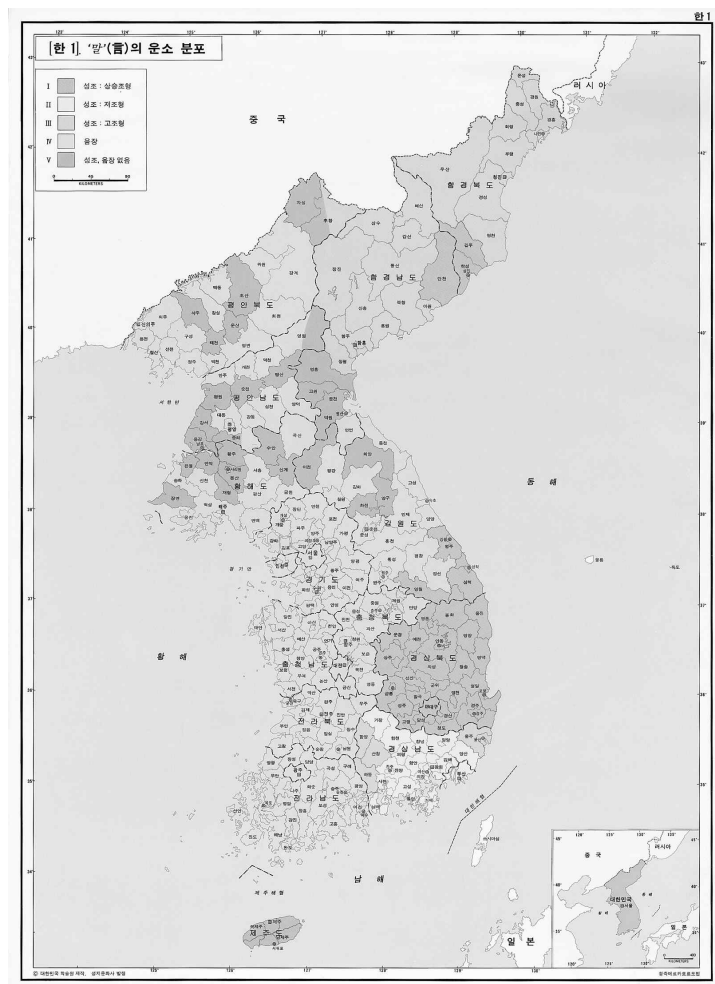
‘가위’에 대한 방언 지도

(《조선방언학시고(朝鮮方言學試攷-鉞語攷-)》, 1945)

광복 이후에는 오구라 신페이의 조사 방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하면서 방언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전국 방언 자료집 또는 도별 방언 자료집을 출간되었다. 이에 따라 김영송의 《경상남도지》(1963) 중의 <음운>, 최학근의 《국어방언연구》(1968), 김영태의 《경상남도방언연구(1)》(1975), 이익섭의 《영동영서의 언어분화》(1981), 이기갑의 《전라남도의 언어지리》(1986), 소강춘의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1990), 김충희의 《충청북도의 언어지리학》(1992), 최명옥(崔明玉)의 <경상도의 방언구획시론>(1994) 등에서는 도(道)를 대

상으로 한 다양한 방언 지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언급할 것은 한국 학술원이 제작한 《한국 언어 지도집(Language Atlas of Korea)》(1993)이다. 이 방언 지도는 전국의 군을 조사 단위로 304개의 지점(남한 138지점, 북한 84지점, 방언 경계 지역 82지점)을 3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최초로 국어 초분절 음소(suprasegmental phoneme)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국어 각 방언의 초분절 음소와 그 체계 및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말’(言)의 운소 분포(《한국 언어 지도집》, 1993)

2.2 방언 지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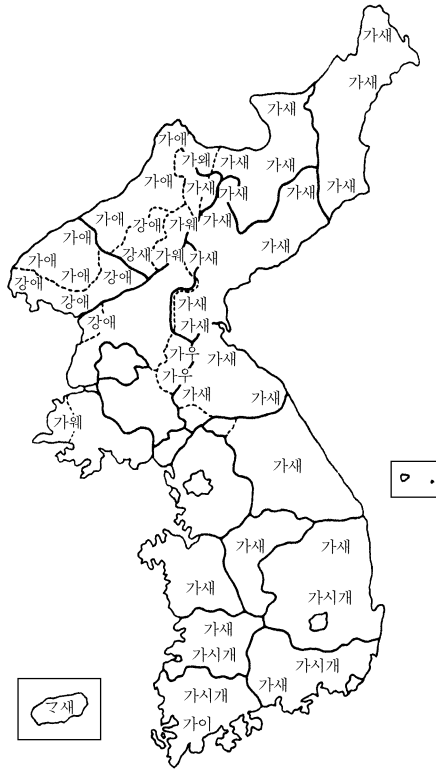
‘방언 지도’는 일정 지역 내에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방언 지도는 제작의 목적에 따라 크게 진열지도(display map)와 해석지도(interpretive map)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전자는 해당 지역에 어떠한 방언형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지도이며 후자는 전체 지역이 몇 개의 방언권으로 구획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지도다.³⁾

2.2.1 진열지도

진열지도는 방언 특징(또는 방언형)들을 지도상에 진열하여 지역 간의 방언차를 알아보기 쉽게 그린 지도다. 이러한 진열지도는 방언 특징을 기술하되 조사된 정보에 대해 상징성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자료지도와 기호지도로 나뉜다. 원자료지도(raw data map)는 조사된 정보를 지도에 직접 표시하는 반면, 기호지도는 조사된 정보에 상징적 기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도에 표시한다. 전자는 대개 일러두기(범례)를 따로 필요 없지만 후자는 일러두기가 있어야만 그 지도를 해석할 수 있다.

원자료지도는 지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시 어형지도와 비율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어형지도에서는 조사된 방언형을 그대로 기록하는 반면, 비율지도에서는 조사된 방언형의 출현 또는 사용 비율을 원그래프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점에 직접 기록해 놓는다. 그 결과 두 지도는 모두, 해당 지역의 실제 방언 특징을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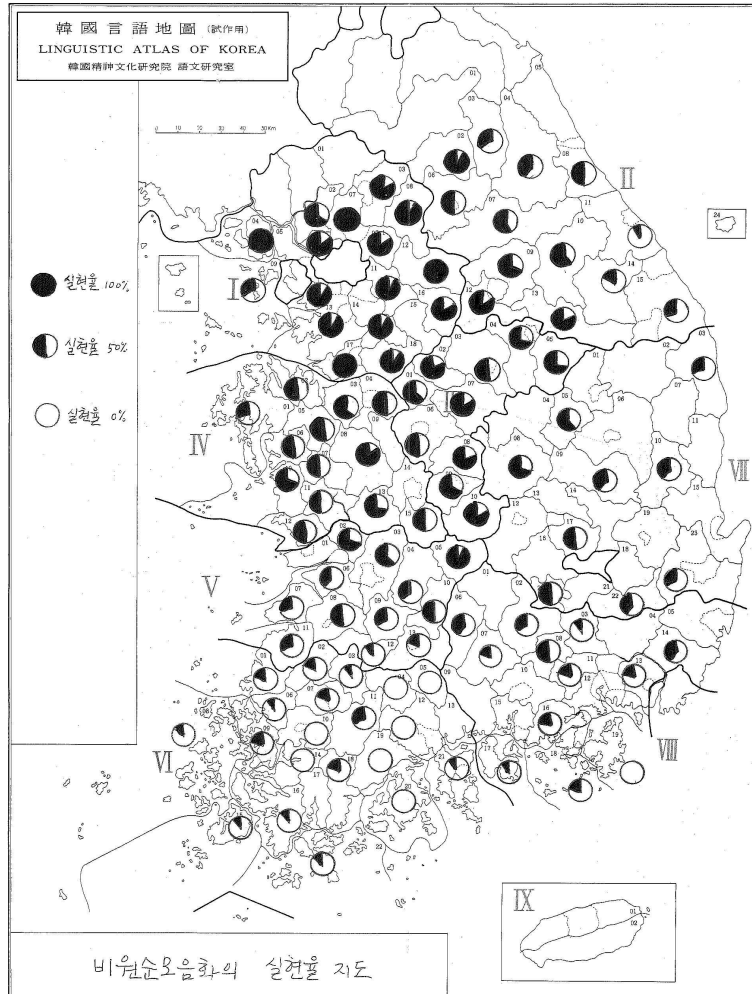
3) 2장의 내용은 정승철의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2013)의 ‘3장 방언의 분포’(pp. 121-145)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어형지도(《방언학 사전》, 2001)⁴⁾

위의 지도는 '가위'의 어형지도다. 이 지도에는 방언형이 직접 기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어떤 방언형을 사용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체로 평안도 지역에는 '가애' 또는 '강애'가 쓰이며 강원도·충청도·함경도 지역에는 '가새',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는 '가새' 또는 '가시개'가 쓰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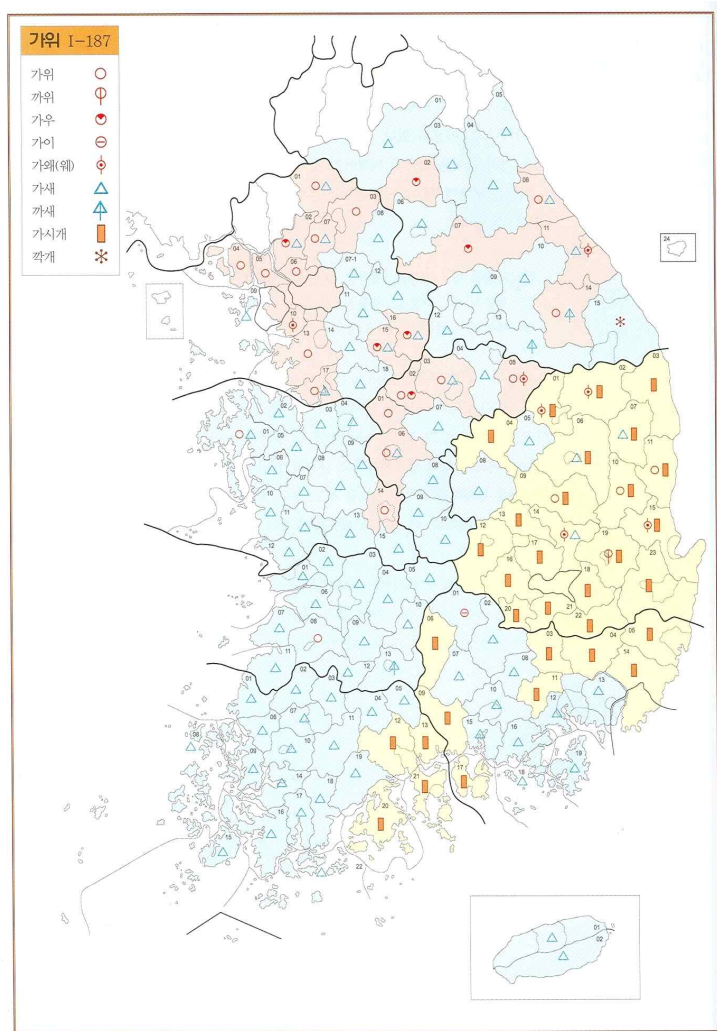
4) 원본은 김병제의 《조선언어지리학시고》(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241)에 실려 있다.



비율지도(비원순모음화의 실현율)

위의 지도는 '비원순모음화'의 실현율을 나타내는 비율지도다. 비원순모음화는 '버리(<보리)', '퍼대기(<포대기)'와 같이 양순음 뒤에서 '오'가 '어'로 바뀌는 현상인데, 이 지도는 어떤 지역에 비원순모음화를 겪은 단어가 얼마나 출현하는지 그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경기도를 정점으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해당 방언형들의 출현율이 점차 줄어드는데, 이로부터 비원순모음화가 경기도 지역을 진원지로 하여 남쪽으로 퍼져 나간 현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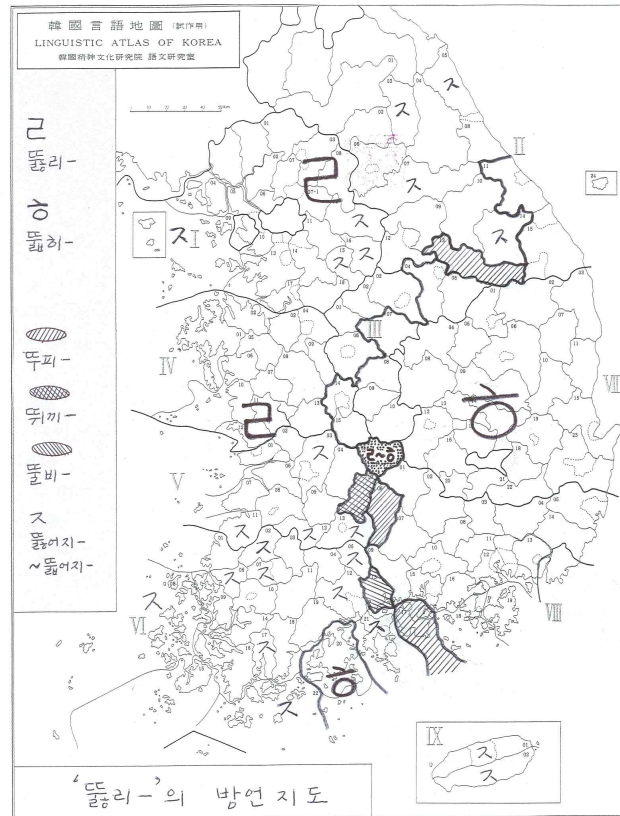
이러한 원자료지도는 조사된 정보를 조사지점 하나하나에 그대로 기입하는 만큼 조사지점이 촘촘할 경우에 그 지도의 형태가 매우 복잡해져 알아보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기호지도다. 기호지도는 원자료지도 특히 어형지도를 알아보기 쉽게 변형한 것인데, 그 기호의 종류에 따라 도안형, 색깔형, 문자형으로 구분된다. 해당 지도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든 관계없이, 기호지도에는 반드시 일러두기를 두어 기호와 방언 특징의 대응 관계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



도안형 기호지도(《한국 언어 지도》, 2008)

위의 지도에서는 ‘가위’의 각 방언형에 대해 일정한 도안을 배정하고 이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방언형을 지도에 직접 제시하였던 ‘가위’의 어형지도와 비교할 때 훨씬 단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도안형에다가 ‘색깔’을 덧붙인 색깔형 기호지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색깔형은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사용되면 방언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한 까닭에 색깔형은 비교적 명료한 구분을 보이는 방언 지도의 작성에 사용될 때 효율적이다. 두서너 가지 색으로만 그려진 색깔형 기호지도는 선명성에서 다른 어느 지도보다도 우월하다.



문자형 기호지도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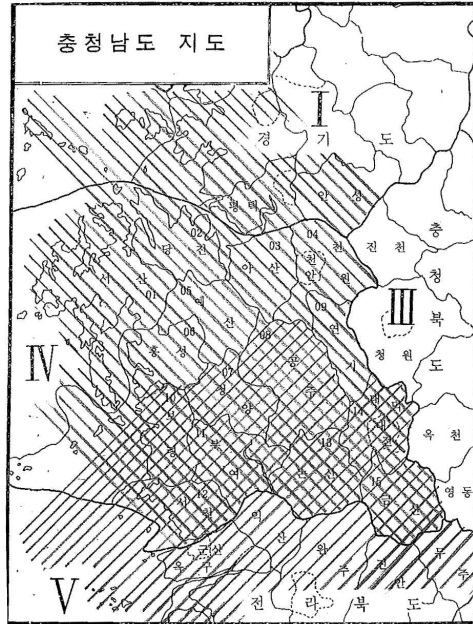
5) 이는 정승철의 <피동사와 피동접미사>(《진단학보》 104, 2007:137)에 실려 있다.

위에서 보듯, 문자형 기호지도는 도안으로 ‘문자’를 택한 것이므로 사실상 도안형 지도나 다름없다. 다만 제시하는 ‘문자’에 언어적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호지도들과 차별된다. 이 지도를 제작할 때에는 ‘일러두기’의 언어적 정보를 잘 활용하여 방언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2.2.2 해석지도

해석지도는 방언 특징(또는 방언형)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방언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지도를 가리킨다. 이 지도에서는 무엇을 보여 주고자 하느냐에 따라 의미 없는 차이가 무시되며 의미 있는 차이에만 근거하여 지도가 만들어진다. 방언 특징의 차이를 유의미한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분류·해석했다는 점에서 해석지도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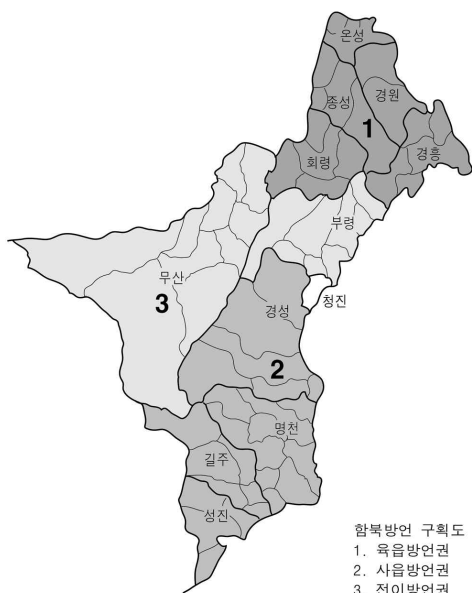
이러한 해석지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방언구획론의 결과를 반영한 지도인데 구획의 중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분포도와 구획도로 나뉜다. 분포도는 방언 분포를 빗금 등과 같은 도안을 이용해 표시하고, 구획도는 동일한 방언 특징을 보이는 일정한 지역(즉 방언권)을 선을 이용하여 경계를 짓고 숫자나 색깔 등을 이용해 구별 표시한다. 분포도는 구획의 중첩을 허용하므로, 구획도에 비해 방언권 사이의 접촉·전이 지역을 쉽게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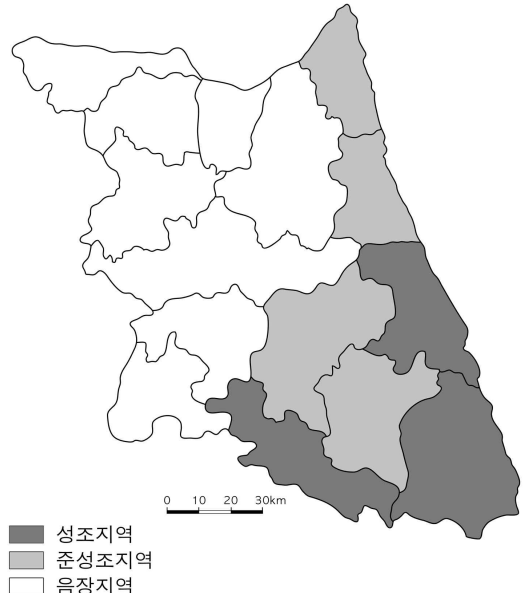
분포도(《한국방언자료집》, 1987-1995)

위의 지도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분포도다. 중부방언(특히 경기도 방언)으로서의 성격을 ▨로 표시하였고 서남방언으로서의 성격을 ▩로 표시하였는바 두 도안의 중첩형 ▩로 그 중간적 성격을 나타내었다. 이를테면 분포도를 통해 언어적으로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의 중간적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 자연스럽게 상정된 셈이다.

이와 달리 구획도는 각 방언권에 구획선을 두르고 번호 혹은 색깔(또는 음영)을 부여하여 방언권을 구분하여 그린 지도다. 구획도에서는 분포도에 비해 명확한 경계선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다.



숫자를 이용한 구획도(《방언학 사전》, 2001)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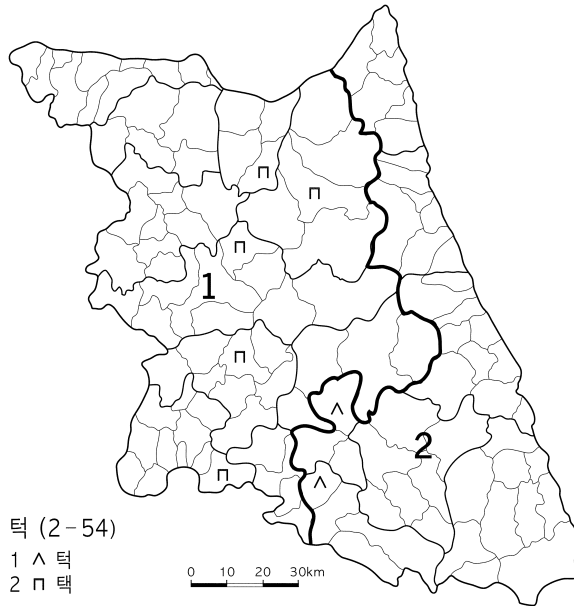


음영을 이용한 구획도(《방언학 사전》, 2001)

위의 지도들에는 함경북도의 세 방언권이 숫자로, 또 강원도의 세 방언권이 색깔(여기서는 음영)로 구별·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획도는 방언권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방언 특징을 무시함으로써 언어 사실을 왜곡하는 단점을 함께 갖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지도가 바로 다음의 혼합형지도다.

6) 이는 김태균의 《함북방언사전》(경기대 출판부, 1986:16)에 실려 있다.



혼합형지도(《영동영서의 언어분화》, 1981:220)

혼합형지도는 구획도의 일종인데, 한 쪽 어형이 다른 쪽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데에 유용하다. 그러한 방언형(또는 방언 특징)의 출현이 유의미한 가치를 지닐 때 이를 표시해 주어 혼합형지도를 만든다.

위의 '혼합형지도'에서는 다른 방언 구획에서 나타나는 해당 어형을 특별한 기호를 사용해 표시해 주었다. 이와 같은 지도는 구획도상으로 무시되었던 방언차를 표면에 드러냄으로써 방언 분포 상태를 좀더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이를테면 혼합형지도는 진열지도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춘 해석지도가 되는 셈이다.

제3장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보완 조사

3.1 조사 대상

우선적으로 ‘지역어조사사업’(2004-2013)에서 조사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전국에서 20개 군을 선정하였다. 물론 해당 군의 조사 지점은 가급적 면 단위 중 변두리인 곳을 피하고 시나 읍에서 왕래가 덜한 면 단위로 이동하면서 좋은 지점을 구하였다. 당연히 피난민이 있어온 이주민적 성향을 보이는 마을은 배제하였다. 아래에 조사 지역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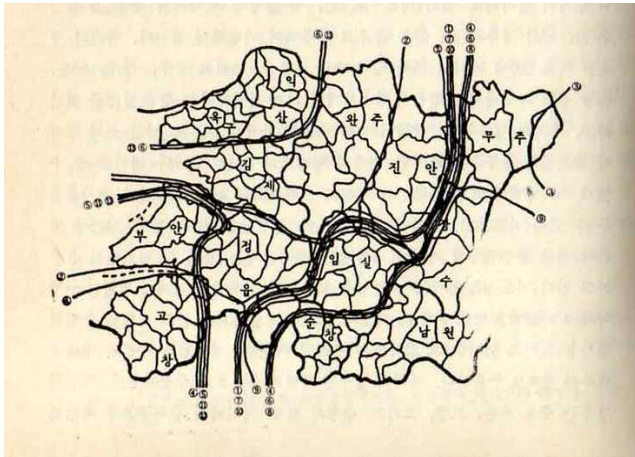
<조사 지역[군] 선정 절차>

■ 충청도 : 충북 지역의 경우, 단양은 최북단이면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접촉 지역이고 괴산은 중부 지역이면서 경북 지역과 인접한 곳이다. 아울러 괴산은 충북 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등어선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2015년도에는 ‘단양, 괴산’을 후보로 정할 수 있다.

나아가 진천은 충남 지역과 인접해 있고 음성은 충남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와 인접해 있다. 그래서 진천은 충남 방언, 음성은 경기 방언의 영향이 받은 지역이다. 또 괴산군의 ‘증평’은 이들 모든 지역과 인접하였으면서도 독립적 특징을 간직한 곳이므로 조사 지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진천, 음성’, 그리고 2017년에는 ‘증평’이 조사 지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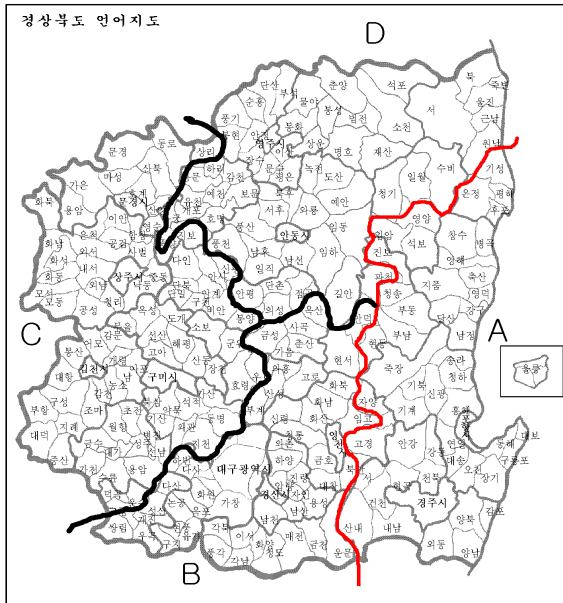
충남 지역의 경우는 현재 7개 지점이 조사되어 있는데 남은 지역이 8개다. 국어원에서는 보령, 홍성, 부여를 제안했는데 이 세 곳은 부여를 제외한 두 지역이 해안 쪽이다. 이를 고려할 때 2015년에는 ‘당진, 보령, 금산’을 조사 지점으로 택하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당진은 경기도와 가까우면서 해안을 끼고 있는 충남의 최북단, 보령은 충남 서해안의 중간 지역, 그리고 금산은 충북, 전북, 충남이 인접한 지역이다. 모두 행정 경계 지역인 동시에 방언 경계 지역일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윤곽을 보려면 먼저 조사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홍성, 연기, 부여’, 그리고 2017년에는 ‘아산, 청양’이 조사 지점이 된다.

- 전라북도 :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1989, 소강춘)를 참고할 때 2015년도에는 ‘진안, 부안, 정읍’을 후보로 정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국어원의 의견과 동일)



기 조사 지점인 임실, 남원이 남동부 쪽에 속해 있는바 그 주변의 장수, 순창과는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확인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남서쪽 지역에서는 고창(기조사) 주변의 부안, 정읍을 가르는 등어선이 꽤 많다. 그러기에 부안과 정읍을 조사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북부 쪽에서는 무주(기조사)와 진안을 가르는 등어선이 꽤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진안을 조사 지점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2016년에는 ‘익산, 장수, 순창’, 2017년도에는 ‘김제’가 조사 지점이 된다.

- 경상북도 :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1997, 김덕호)을 참고할 때 2015년도에는 ‘울진, 김천, 영천’을 후보로 정할 수 있다.



기 조사 지점인 경주, 청송이 A구역, 청도가 B구역, 상주가 C구역, 봉화가 D구역에 속해 있으며 의성이나 고령은 여러 구역에 걸쳐 있다. 각 구역별로 균형 있게 조사해야 하므로 2015년에는 B구역의 영천, C구역의 영천, D구역의 울진이 적합하다. 이에 근거할 때 2016년에는 ‘문경, 안동, 영덕’, 2017년도에는 ‘예천, 영일, 성주, 경산’이 조사 지점이 된다.

	청도군시 각북면동 경주시 보문동		영성읍칠곡군 일주읍칠곡군	경상남도 영양군 산청시 시성군				
경남	창녕군시동일성해 울산하창고남 산청동일성해 창녕군시동일성해	7	거창군시동일성해 합천군시동일성해 합천군시동일성해 합천군시동일성해	김해시시성군 해산시시성군 김해시시성군 김해시시성군	합천합천안 합천합천안	합천합천거 합천합천거	밀양합천동 밀양합천동	거창주산 거창주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서귀포시 제주시서귀포시서귀포시 제주시서귀포시서귀포시	7	-	-	-	-	-	-
총 지점		63	총 81지점		20	20	20	20

3.2 조사 방법

2004년부터 시작된 지역어사업 이후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의 조사에서도 대부분 75세를 넘어서는 제보자가 선정된바, 이를 고려한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80세 이상의 노년층을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가급적 연령을 높게 잡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는 3대 이상 거주해 왔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이번 사업에서는 3대 이상 거주한 80대 이상의 제보자를 찾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사는 질문지를 미리 작성한 후 현지에 가서 조사 대상자를 직접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질문지는 총 1,200여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항목에는 가옥(50), 의복(26), 민속(44), 동물(54), 식물(36), 자연(40), 인체(48), 친족(32), 농경(46), 음식(32), 육아(20) 관련 어휘들이 포함되었다. 항목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어조사질문지》(2006)의 어휘 항목 중 1,200개 내외의 항목을 선별한 후 필수 조사 항목과 권장 조사 항목으로 이원화하였다.

- 필수 조사 항목 : 《한국언어지도》(2008, 이익섭 외, 태학사)에 포함된 항목(153개), 선명한 방언형의 분화를 보여 줄 것 같은 항목, 한국어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 줄 것 같은 항목, 기타 방언학적으로 의의 있는 항목 등 (약 600개) - ‘밑줄/음영/*’로 구별 표시
<예> ‘벼, 부추, 파리’ 등
- 권장 조사 항목 :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방언형을 보여 줄 것 같은 항목, 방언형들이 산발적 분포를 보여 줄 것 같은 항목 등(약 600개)
<예> ‘봄, 작다’ 등

질문지는 총 336쪽으로 구성되었다. 질문 및 전사를 위한 본질문지 앞에 ‘방언 자료 활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제보자 조사표를 앞에 두어 제보자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질문지는 지역어조사 질문지의 내용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첨부 1]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 [별도의 디스크]

전사는 Transcriber를 활용하였는데(전사 지침 참고), 형태음소론적 전사를 한 것이 특징이다. 그를 위해 실제 조사에서도 기저형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3 조사 과정

본 사업이 12월에 마무리되므로 일단 시간상으로도 8월 3일에서 9월 7일까지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사도 10월까지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1월말까지 확인 조사를 거쳤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방언 지도 작성을 위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7월말까지 조사 지침 및 전사 지침이 마무리되었다. 그에 따라 조사를 하기 전에는 조사 지침을 숙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조사 지침 참고)

[첨부 2]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방언 조사 및 전사 지침

- 예비 조사 - 일단 조사원은 토박이 화자임을 알아내기 위해 小倉進平의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고 나아가 주변 지역의 방언 형태 확보해 놓았다.

- 본조사 - 경우에 따라 연구원이 먼저 제보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 연구보조원을 만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같이 다니면서 제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제보자와 마주하게 되면 우선 주변 지역의 말과 해당 지역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방언 의식 조사를 간단히 행하였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토박이라는 확신이 설 때 구술 발화를 간단하게 확인하였다. 구술발화에서도 특정 조사나 어미의 사용에 따라 토박이 화자가 아님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다른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확실한 제보자가 구해지면 음소 대립을 확인하는 작업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형태음소론적 전사를 해야 하므로 기저형 파악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조사원별로 대부분 4-6일간의 조사 일정을 소화하였는데 더러는 사정에 따라서 보조제보자를 구하기 도 하였다.

- 확인 조사 - Transcriber로 전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조사의 과정을 11월말까지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실제 조사 지역 및 제보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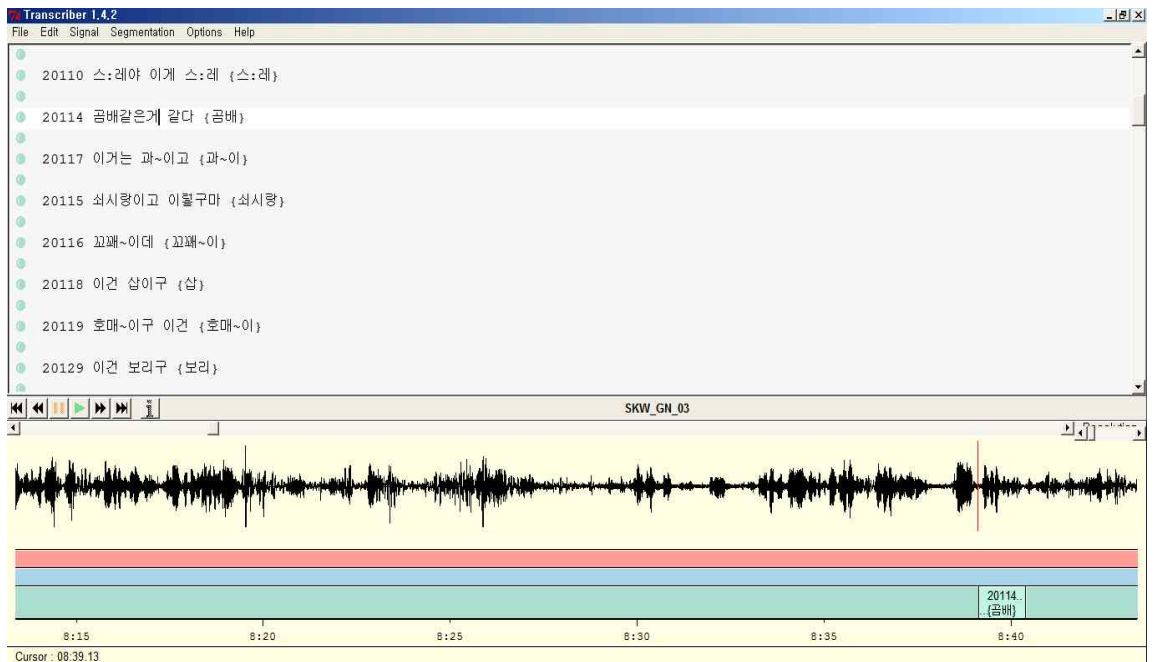
조사 지역		조사원	조사 기간	제보자 정보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김수영	8.14, 8.18-19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김유겸	8.13, 8.19-20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김유겸	8.20, 8.25	
충북	단양군 매포읍	김경열	8.26, 8.30, 9.1, 9.4	
	괴산군 감물면 하미전리	김경열	8.19, 8.22-8.23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김수영	8.3, 8.11-8.12	
	당진시 우강면	이현주	8.12-8.15	
	금산군 금성면	이현주	8.5-8.7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신우봉	8.30-9.1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신우봉	9.5-9.7	
	정읍시 북면 마정리	오청진	8.11-8.13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오청진	8.18-8.20	
	여수시 봉계1동	정성경	8.6-8.7, 8.11-8.14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정성경	8.20-8.23	
경남	거제군 동부면	권창섭	8.11-8.13	
	함양군 휴천면	권창섭	8.24-8.25	
	합천군 합천읍 외곡면	김인규	8.11-8.14	
경북	울진군 근남면	김인규	8.18-8.21	
	영천시 언하동	김경숙	8.22-8.24, 8.29-8.30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김경숙	8.13-8.16	

[첨부 3]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제보자 조사표

3.4 조사 결과

조사 결과는 Transcriber로 전사하였다.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Transcriber를 활용한 전사(‘강릉’의 예)



[첨부 4] 보존 및 전사용 음성 파일 [별도의 디스크]

[첨부 5] Transcriber 전사 파일 [별도의 디스크]

[첨부 6]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별도의 디스크]

- 결과 정리 엑셀 파일(‘강릉’의 예)

항목번호	표준어	SKW_GN
20101	벼	베여 {베}
20102	이삭	이삭인데 {이삭}

20103	범씨	베씨 {베씨}
20104	못자리	모자리 {모자리}
20106	쟁기	흐째~이 {흐째~이}
20107	보습	버섯이야 {버섯}
20108	벗	이거는 버섯날이구 {버섯날}
20109	극쟁이	이게 흐째~인데 {흐째~이}
20110	써레	스:레야 이게 스:레 {스:레}
20114	고무래	곰배같은거 같다 {곰배}
20115	쇠시랑	쇠시랑이고 이렇구마 {쇠시랑}
20116	곡괭이	꼬괭이데 {꼬괭이~이}
20117	괭이	이거는 과~이고 {과~이}
20118	삼	이건 삼이구 {삼}
20119	호미	호매~이구 이건 {호매~이}
20120	농기구	쟁기지 머 {쟁기}
20121	김	김:이지 머 그게 {김:}
20122	김매다	김:매지 {김:매다}
20123	애벌 매다	아이맨다 하고 {아이매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벌매지 그래 {세벌매다}
20124	논둑	논뚜럭 {논뚜럭}
20129	보리	이건 보리구 {보리}
20131	가을갈이	어까리나그러은 {어까리}
20132	괭부기	괭부기라 그래 {괭부기}
20134	거름	걸금이지 머 {걸금}
20201	추수하다	거두미, 갈:꺼두미 {거두미하다}
20202	벧단	벧단 {벧단}
20204	가리다	가렌다구두 하구 {가레다}
20205	벧가리	벧무지지 머 노저까래 {벧무지, 노저까래}

[첨부 7] 결과 정리 엑셀 파일 [별도의 디스크]

Transcriber를 통한 전사를 마친 후 연구진별로 5~6장의 방언 지도를 그렸다. 그 중 의미 있는 항목 둘씩을 선별하여 방언 지도 10장을 작성하였다. 제주도에서의 '최종평가회'를 통해 방언 지도 10장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었다. 20개 지역의 조사가 보완되면서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언 지도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항목에 따라서는 표준어에 잠식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매체의 발달이 한몫을 차지하였고 아울러 표준어 교육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었다. 또한 베틀 관련 어휘처럼 시대가 변화하면서 해당 사물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은 탓에 잊히게 된 어형들도 확인되었다. 또 목말과 같이 손자, 손녀들과 떨어져 살면서 잊히게 된 어형도 확인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방언형의 소실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체계적인 조사라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겠지만 소창진평의 자료와는 70~80년의 간극,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 자료와는 20~30년의 간극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장에 제시된 10장의 방언 지도를 참고할 수 있다.

제4장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전국 방언 지도 시범 제작

4.1 지리정보가 반영된 언어 지도

GIS분야는 눈부시게 발전해 오고 있어 현재 많은 전용 소프트웨어가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사회언어학이나 방언학 분야에서 각 연구자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똑같은 환경에서 가지는 것이나 조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를 포맷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면, 우선 GIS의 제1 단계로서 소프트웨어는 저렴한 가격과 범용성을 필요로 한다. 기능이나 분석 능력까지 해서, 일원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면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는 전용성(全用性)을 갖는 GIS 소프트웨어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GIS란 지도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칭으로, 문자나 숫자, 실제 이미지 등을 지도와 연결하여 컴퓨터상에 재현해서 위치나 장소로부터 나온 다양한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알기 쉽게 지도로 표현하는 구조이다. GIS 전용 소프트웨어로는 ArcView, SIS, Survey.DLL, MapInfo 외 기타 많은 응용소프트웨어가 판매되고 있다. 단지 이들은 모두 값이 비싸다는 흠이 있다. 또한 이들 소프트웨어는 종래 사용해 온 워드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에 비해 그 사용 방법이 특별하여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기술 습득이 지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다소 사용자가 많은 소프트웨어로서는 ArcView가 있다. 또한 지리정보를 반영한 언어 지도는 비트맵(Bitmap)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언어 지도에 지리정보가 포함된 레이어(layer)를 겹쳐 놓음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비트맵(Bitmap)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언 지도 제작에 MapMaker 언어 지도 제작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4.1.1 GIS-Mandara

‘지도 정보 분석 지원 시스템인 GIS-MANDARA’로 작성된 그림을 참고해 언어 지리학에 있어서의 GIS의 운용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그림 1>)

MANDARA 자체가 날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이나,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사용도 고려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조작이 간편하고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고, 통계 데이터를 지도화하는 기능을 중시하는 GIS 소프트웨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쉽게 지도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는 것과 다양한 주제에 따른 지도를 그리는 기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즉, 비교적 간편하게 지도 데이터베이스와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주제에 따른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MANDARA에는 공유판(Shareware)과 무료판(freeware) 2개가 있다.



<그림 1> 타니켄지(谷謙二)의 MANDARA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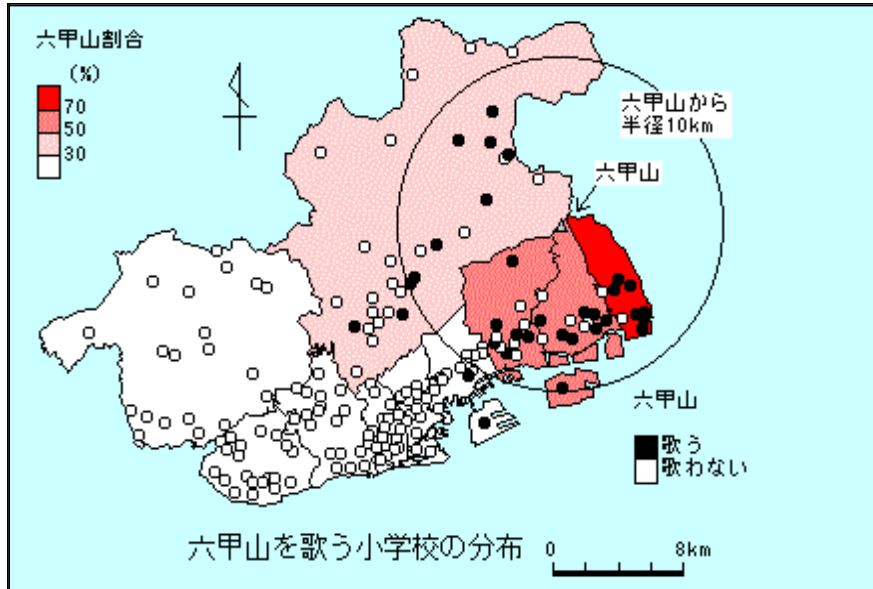
1) MANDARA 프로그램 활용의 경우

<그림 2> ~ <그림 7>은 MANDARA의 운영자 타니켄지(谷謙二)의 MANDARA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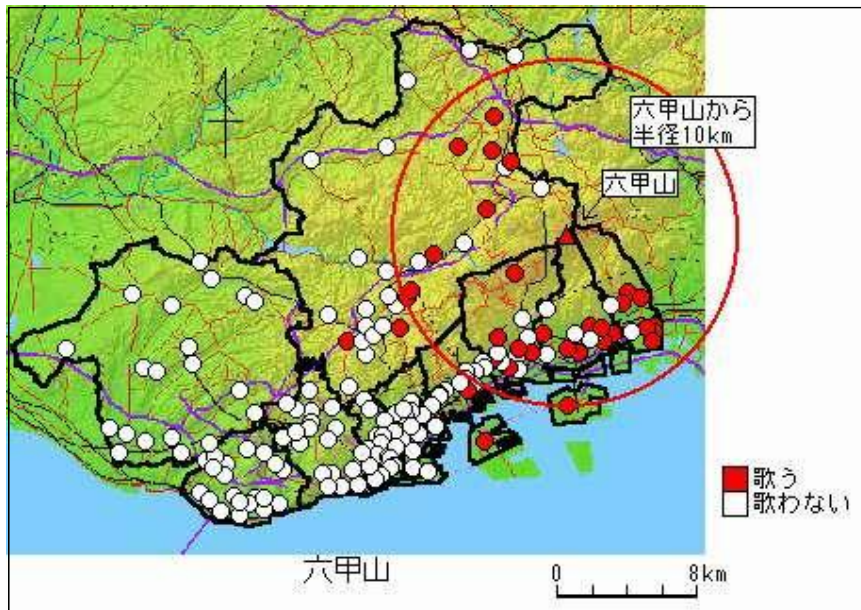
(1) 룩코산(六甲山)을 교가에 넣어 부르는 초등학교의 분포도

초등학교 데이터를 점으로, 코베시(神戸市)의 구(區)데이터를 면으로 표현해, 구(區)에 있어서의 구성 비율을 색칠하여 표시한 지도이다.

7) 谷謙二, 埼玉大学 教育学部 社会科教育講座 人文地理学 研究室 - <http://ktgis.net/mandara/>



<그림 2> 록코산(六甲山)을 교가에 넣어 부르는 초등학교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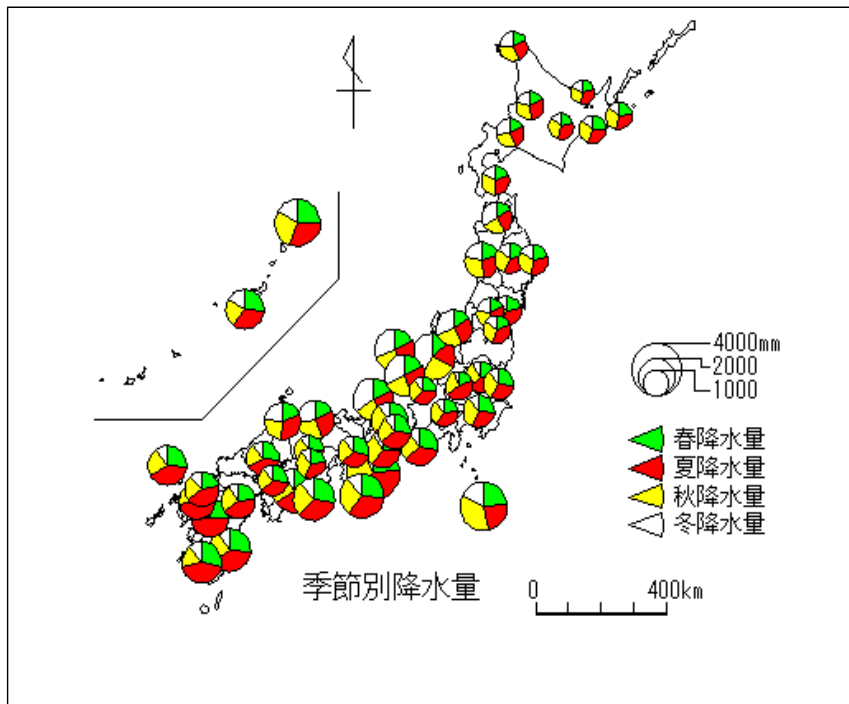


<그림 3> 록코산(六甲山)을 교가에 넣어 부르는 초등학교의 분포도

<그림 2>와 <그림 3>은 모두 록코산(六甲山)을 교가에 넣어 부르는 초등학교의 분포와 록코산(六甲山)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3>는 <그림 2> 위에 실제 지형 화상 도 데이터를 합성하여 표현한 그림이다.

사회언어학에 있어서도 어형 확대와 특정 지점과의 관련을 표현하는 것에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화상(畫像)을 조합하는 것에 그 지역의 지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설득력 있는 분포도를 그릴 수 있다.

(2) 일본의 지점별. 계절별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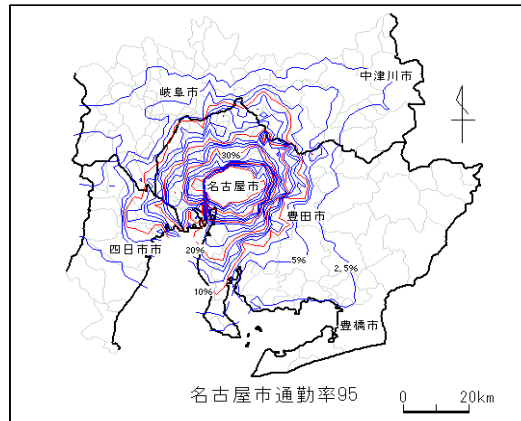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지점별. 계절별 강수량

<그림 4>는 대상 지점(地點)에 구성비(構成比) 원그래프를 이용해 구성 비율을 표현한 지도이다. 이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진나이 마사따까(陳內正敬 : 1996)가 쓴 《地方中核都市方言の行方》(지방 핵심 도시 방언의 나아갈 길)이 있는

데, 여기에서 보면 신방언형(Neo-dialect type) ‘変ナイ[hennai]’의 사용 비율과 분포에 대한 그림과 유사한 것을 작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3) 나고야시(名古屋市) 통근율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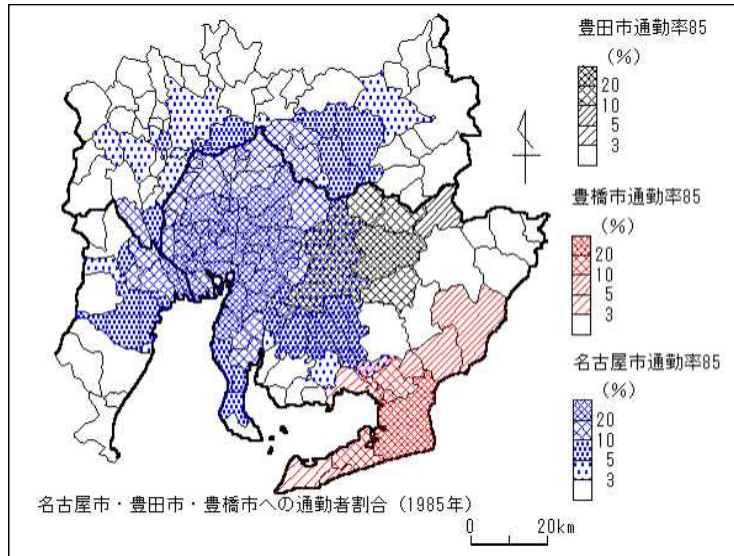
이것은 등치선(等値線)으로 표현된 지도로, 1906년 《口語法調査報告書》(구어법 조사보고서)에서 ‘동서 방언 경계선’을 그리는 데 사용 가능하다. 또한 도시의 언어 분포에 통근권이나 쇼핑권역을 표현하는 것 등 새로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5> 나고야시 통근율

(4) 名古屋市・豊田市・豊橋市 통근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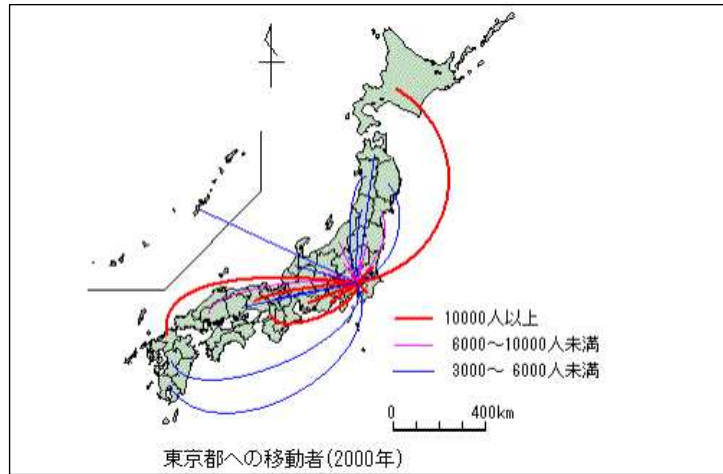
다음은 나고야시/토요타시/토요하시시(名古屋市・豊田市・豊橋市)로 통근하는 통근자 비율(1985년)을 보인 그림인데, 복수 데이터 항목을 그물 모양으로 동시에 표현한 그림이다. 특히 복수 항목을 동일한 지도상에 그물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방언 인지 지도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 Long Daniel 외’의 지도가 시정촌 단위인 것이 다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



<그림 6> 名古屋市・豊田市・豊橋市 通勤者 割合(1985)

(5) 도쿄도(東京都)로의 이주자(移住者)

이 표현법은 대상(object)을 선으로 묶은 표시이며, 어형의 분포를 합성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동과 언어의 전파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7> 東京都로의 이주자(2000년)

2) MANDARA의 특성

- ① 간단하게 지도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다. 스캐너로 읽어 들인 백지도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화상 처리하는 벡터(Vector) 데이터로 변환한다. 또한 수치 지도나 국토 수치 정보 데이터를 취득할 수도 있다.
- ② 거리 개념.오브젝트(object) 개념이 있다. 거리 개념이 있으므로 면적계측 버퍼(Buffer) 등 몇 개의 공간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또한 점`선`면 형상이라는 오브젝트에 대응한다.
- ③ 속성 데이터를 ‘ 옮겨넣기 ’ 할 수 있다. 표계산 소프트웨어 상에 있는 데이터를 붙이는 것으로 속성 데이터를 옮겨 넣을 수 있다. 또한 속성 데이터 편집 기능을 사용하면 표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④ 다양한 지도 표현에 대응한다. 색채우기, 원, 등치선, 그래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오브젝트 사이를 선으로 묶어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 OD행렬을 지도화할 수 있다.
- ⑤ 레이어(layer) 개념이 있다. 철도선과 행정 경계 등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합성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⑥ 지도 그리는 기능이 다양하다. 원이나 선, 화상 등을 주제에 따른 지도에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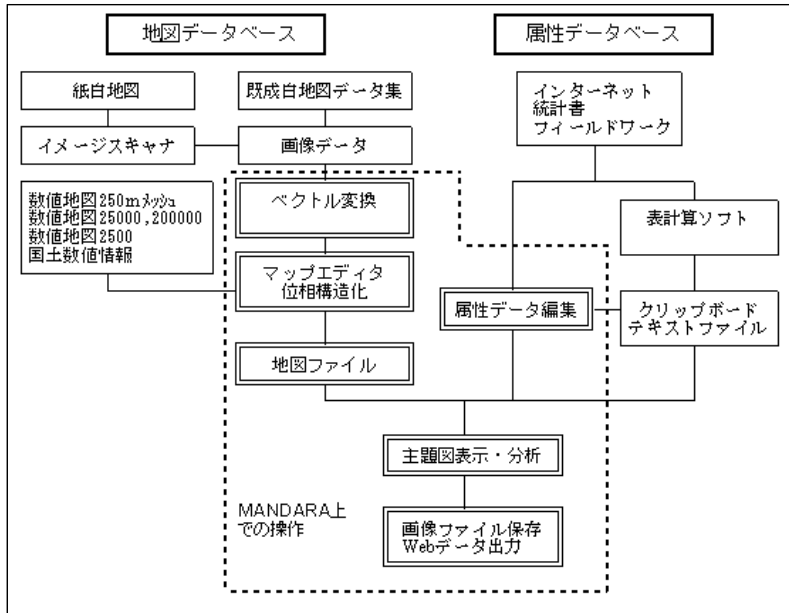
할 수 있다.

⑦ 오브젝트(object)에 시간 개념이 있다. 오브젝트에 유효기간 속성을 설정할 수 있어, 이것으로 인해 시정촌을 합병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오브젝트를 바꾸어도 하나의 지도 파일을 계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MANDARA의 도움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한번 읽어 모든 내용은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앞에서 언급한 <그림 2>에서부터 <그림 6>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3) MANDARA에서의 데이터 흐름

우선 MANDARA 자체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림 7> 'MANDARA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보라. MANDARA와 시판되고 있는 수많은 GIS 소프트웨어와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속성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방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GIS 소프트웨어는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이른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예를 들면 Microsoft사의 Access)처럼 관리하고 있다. 즉,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와 속성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모두에 대한 기술(技術)이 요구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을 습득하거나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습득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도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해서도 각각의 소프트웨어로 달리 포맷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MANDARA는 비교적 구하기 쉬운 지도 데이터에 대응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고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유효한 소프트웨어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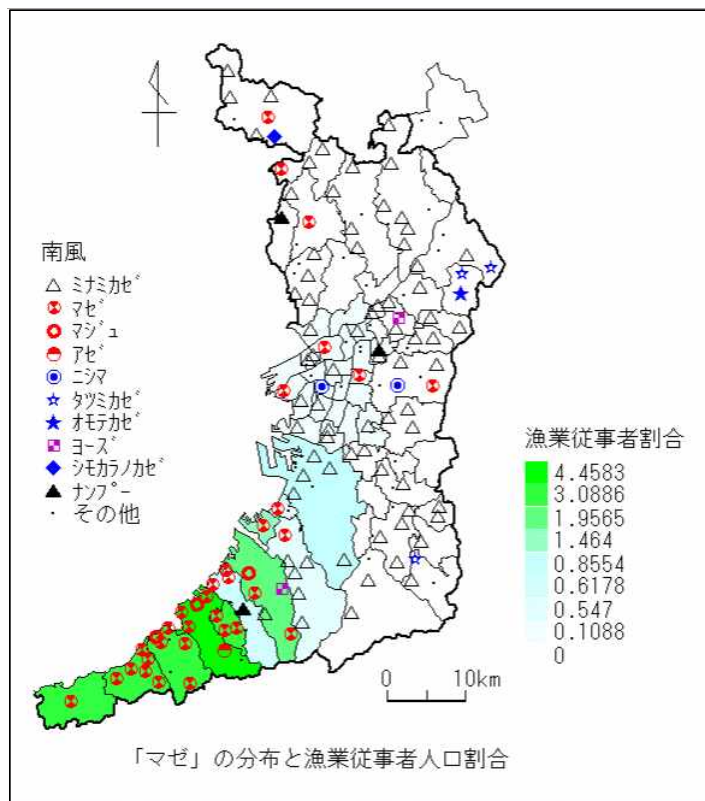
〈그림 8〉 'MANDARA'에서의 데이터 흐름

구체적으로 말하면 ≪數値地圖25000(行政界·海岸線)≫(수치지도 25000(행정 경계, 해안선))과 함께 ≪數値地圖250m 메ッシュ(標高)≫(수치지도 250m 격자(표고))를 쓴 국토 지리원이 발행한 CD.ROM을 사용함으로써 등고선이 들어간 지도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각각의 데이터는 1만엔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국토 수치 정보 데이터(국토 교통성의 국토 수치 정보 홈페이지)에서 지도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도로 정보로는 고속도로나 국토 등을 오브젝트로 하고, 철도 정보로는 신간선, JR, 사철(私鐵) 등을 오브젝트로 하여 지도상에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밖에 편리한 기능으로, MANDARA 상에서는 지점을 클릭하면 그 지점의 '속성 데이터', '오브젝트명 표시', '오브젝트명+수치 표시', '수치의 표시' 등이 있다. 이들은 지도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기능으로 그 지점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밖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D표시 기능, 거리 계산 기능 등 지금까지의 언어 지도상에서는 처리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도 처리 가능하다.

또 타니켄지 외(谷謙二他 : 2001)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지리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MANDARA를 도입한 실험적인 수업도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GIS 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중학교·고등학교에서 GIS 소프트웨어를 습득한 학생들이 사회언어학 분야에서도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4) MANDARA를 이용한 언어지도 작성의 예



<그림 9> 오사카부에서 남풍(南風)을 '마제[maze]로 부르는 지점과 어업 종사자의 인구비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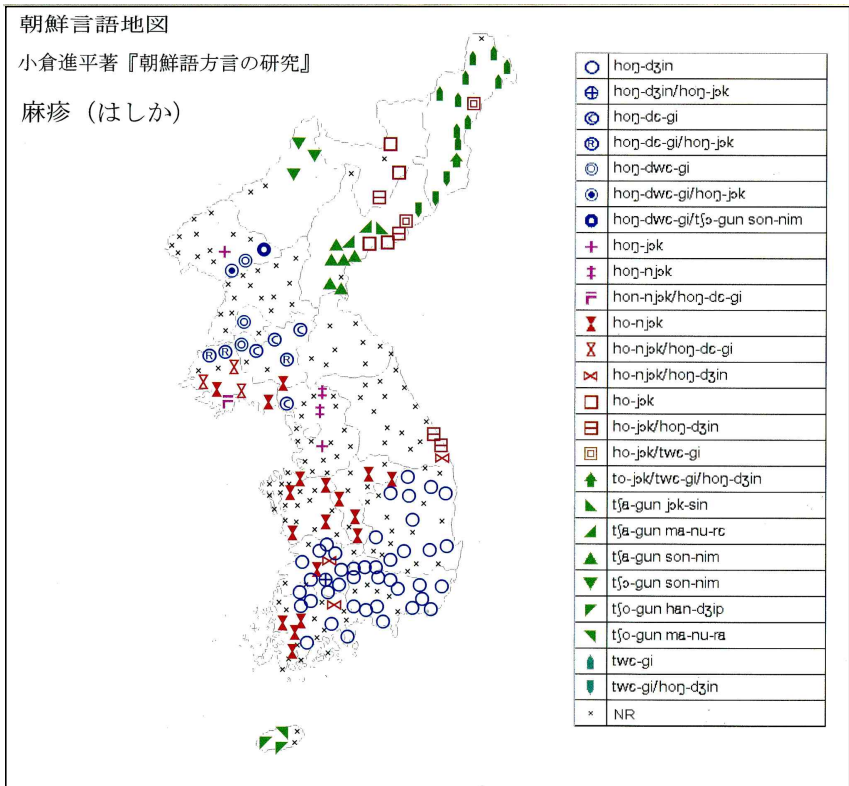
<그림 9>는 《大阪府言語地圖》(오사카부 언어 지도)에서 뽑은 '남풍(南風)'이라는 어휘 데이터와 《昭和25年1・2 大阪府統計年鑑》(1950년 1.2 오사카부 통계

연감)에서 뽑은 당시의 시정촌별 14세 이상 취업자와 어업 종사자의 구성비를 기초로 하여 MANDARA로 작성한 것이다. 《大阪府言語地圖》(오사카부 언어 지도) 데이터에 대해 자세한 것은 기시에 신스케`나카이 세이이치`토리타니 요시후미(岸江信介`中井精一`鳥谷喜史 : 2001)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이 <그림 9>에 대해 분석한 것은 토리타니 요시후미(鳥谷喜史 : 2001)를 참고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 보자. 한편으로 방언 구획상의 지역 분포 즉, 센슈(泉州)에 ‘マジ[maji]’ 어형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1950년경 어업 종사자 비율 지도와 겹쳐 보면, 이 어형이 어업이라는 직업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즉, 센슈(泉州) 지역은 어업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실은 지역적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직업이라는 위상(位相) 차이 때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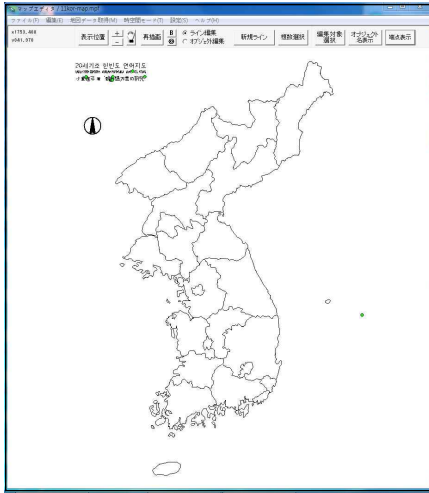
게다가 나카이 세이이치(中井精一 : 1996)에서는 어업 종사자의 경우, 그 ‘잡은 어패류 그 자체가 주식(主食)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을 전제로 한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경제 활동을 통한 교류까지 포함하면, 어업 종사자가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실제 구성 비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로써 《大阪府言語地圖》(오사카부 언어 지도)에 있는 ‘남풍(南風)’의 분포에 있어서 ‘マゼ[maze]’ 어형이 센슈(泉州)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말을 사용하는 어업 종사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셋츠(攝津) 지역에 있는 오사카 시내에서도 ‘マゼ[maze]’의 분포를 여러 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전체에서 오사카 시내의 비율이 약 0.1088%로 매우 낮지만, 807명이나 되는 어업 종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이 한마디로 다른 모든 조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휘 분포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다음은 일본 도야마대학의 나카이 세이이치(中井精一)가 Mandara를 활용하여 한반도 언어 지도를 만든 것이다.



<그림 10> 中井精一이 Mandara를 활용하여 제작한 朝鮮半島
 言語地圖(麻疹)

다음 <그림 11>, <그림 12>는 제작 절차를 Mandara 프로그램 운용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림 11> 맵에디터 화면(한반도
전도 벡터 방식 전환 및 플롯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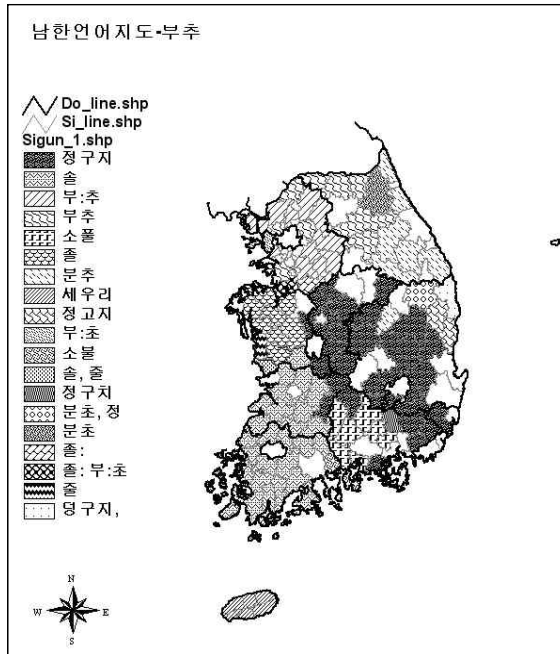


<그림 12> 데이터 방언 지도
원도 결합 프로세서 작업

이상으로 ‘MANDARA’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지도와 사회언어학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언어 지도 연구와의 상관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4.1.2 GIS-ArcView

ArcGIS는 ESRI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GIS 응용프로그램인데, 지리 분석 도구로 상당히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용하는 ArcView는 ArcGIS Desktop 시리즈 중에서 초기 모델인 ArcView ver3.1을 활용한다. 데이터 형식으로는 SHP 파일이라는 형식을 이용한다. 이 형식의 파일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MANDARA에서도 읽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이 일본 도야마현의 ‘분가(分家)’에 관한 분포 정보를 보여 주는 방언 지도이다.



<그림 15> 패턴식 선도안 언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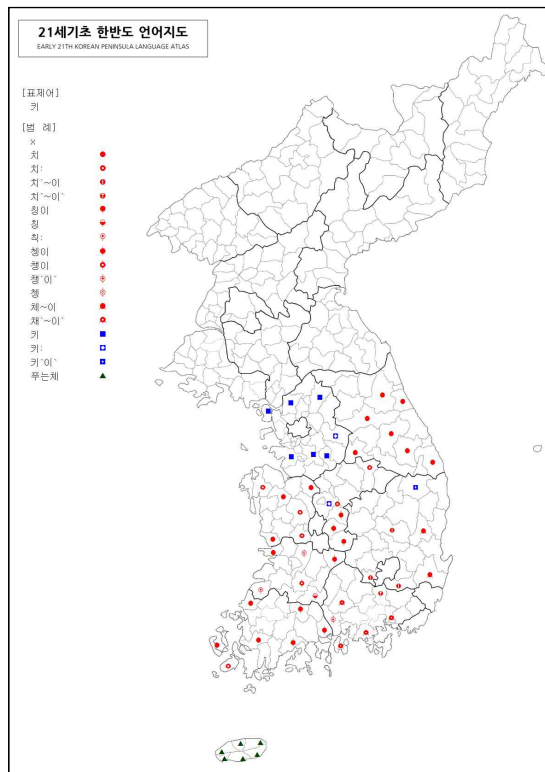
4.1.3 GIS-비트맵 언어 지도

비트맵(Bitmap)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언 지도 제작에 MapMaker 언어 지도 제작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한다.⁸⁾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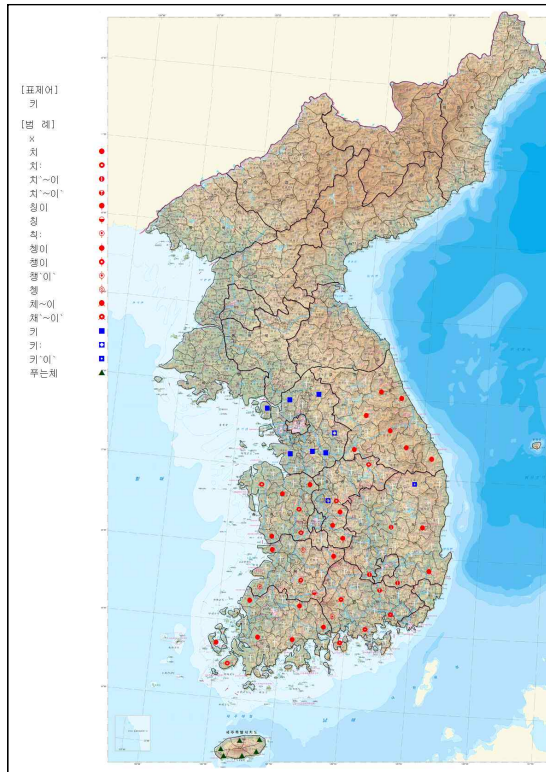
첫째, 제작자의 제작 목적에 맞추어서 좌표를 플롯(Plot: 방언형이나 상징부호가 들어갈 지점을 설정하는 과정)할 수 있고, 둘째, 지리정보체계(GIS)가 반영된 바탕 지도를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손쉽게 교체하여 다른 지리정보가 들어간 쌍둥이 방언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셋째, 계열별로 정리된 370여개 상징부호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언형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상징부호의 색깔 지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칼라판 방언 지도를 만들기에도 유리하다. 다섯째, 수정 보완 과정이 자유롭다. 즉 검토 과정에서 상징부호의 모양과 색깔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언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여섯째, 최종

8) 경북대 이상규, 김덕호(2005)가 개발한 언어 지도 제작 전용프로그램이다.

완성된 방언 지도를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즉 bmp, jpg, gif 등 어떤 그림 형식으로도 저장이 가능하므로 향후 논문, 보고서 및 웹 방식 혹은 PDF 방식의 음성 언어 지도와 같은 2차적 작업을 위해서도 활용성이 높다.



<그림 16>
21세기초 '키'형 언어 지도(일반)



<그림 17>
21세기초 '키'형 언어 지도(지리정보)

1) 방언지도 제작기(MAP Maker)에서 언어 지도 제작

(1) 프로그램의 특성

현장 언어 연구를 위한 분석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방언 지도 제작기(MAP Maker)는 현재까지 상징부호 지도 가운데 가장 발전된 방식이다. 상징부호 언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도구로써 방언 지도 제작기(MAP Maker)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윈도우즈 환경에서 매우 간편하게 언어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둘째, 방언형들을 자모순이나 빈도순으로 정렬(sorting)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연산

및 정렬 기능을 통해 방언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 용이하고, 셋째, 좌표 자동 설정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지도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메뉴에는 '새 지도 파일 생성', '저장된 파일 열기', '지도 출력'을 비롯하여 기본 지도와 좌표 사용 여부, 랜덤 상징기호 사용 여부, 기본 폰트 사용 여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설정 변경', '종료', 그리고 새로운 배경 지도를 만들기 위한 '새 좌표 데이터 생성'이 있다.

(2)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 구축

언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백지도와 그 백지도의 지점 좌표가 구축된 좌표 데이터 그리고 어휘 데이터가 필요하다.

① 백지도

백지도 <그림 18>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그림 파일 형태의 지도를 이용하여 언어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백지도는 스캐닝한 후 그림 파일로 저장하면 된다.



<그림 18> MAP Maker의 기본 백지도

② 좌표 데이터

좌표 데이터는 사용자가 지정한 백지도에서 상징 부호가 나타나야 할 지점이다. 좌표 데이터 심표 앞부분은 그 지역의 x 좌표를 나타내고, 뒷부분은 y 좌표를 나타내는데, 보통 화상도구를 활용하여 스캔한 대상 백지도의 좌표를 하나씩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방언 지도 제작기에서는 자동으로 좌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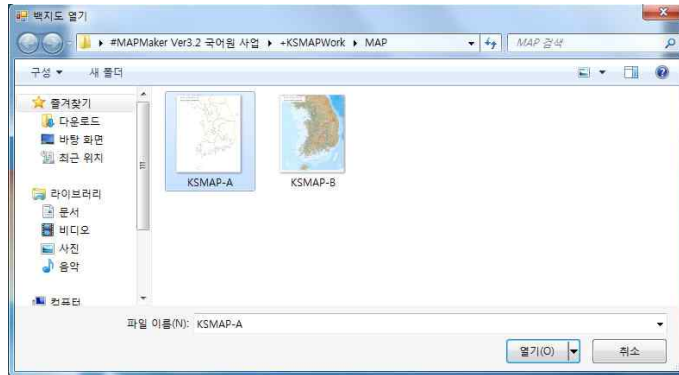
<그림 19> MAP Maker 기본 백지도의 좌표 데이터

새로운 백지도의 좌표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20>과 같이 메뉴에서 좌표 → 새 좌표 데이터 생성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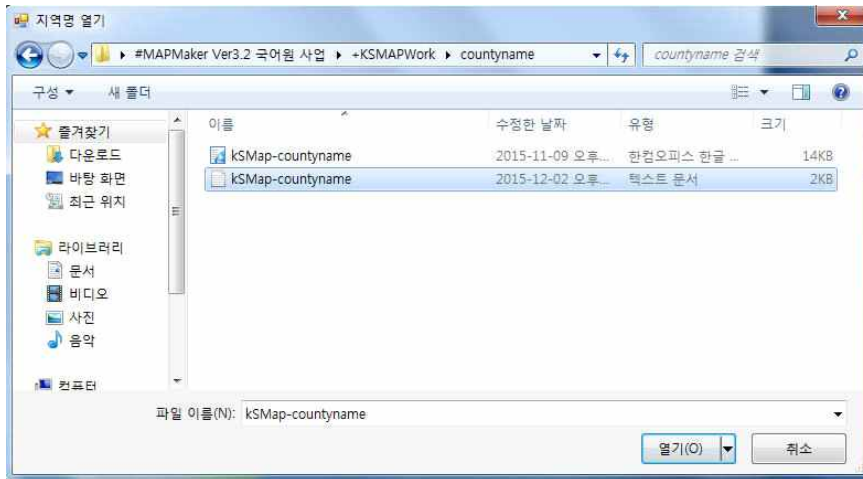
<그림 20> 새 좌표 데이터 생성

둘째, <그림 21>과 같이 파일 열기 팝업 창에서 좌표를 생성할 백지도 파일을 찾아 선택한다.



<그림 21> 백지도 열기

셋째, <그림 22>와 같이 지역명 파일을 선택하는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지역명 파일은 백지도에서 상징부호가 나타나야할 지역 이름을 다음 <그림 22>와 같이 작성한 뒤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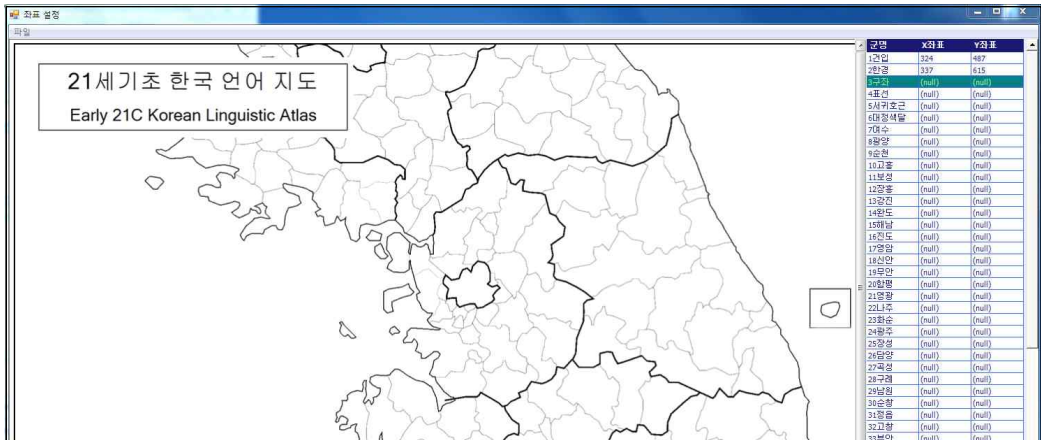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명 파일 열기



<그림 23> 지역명 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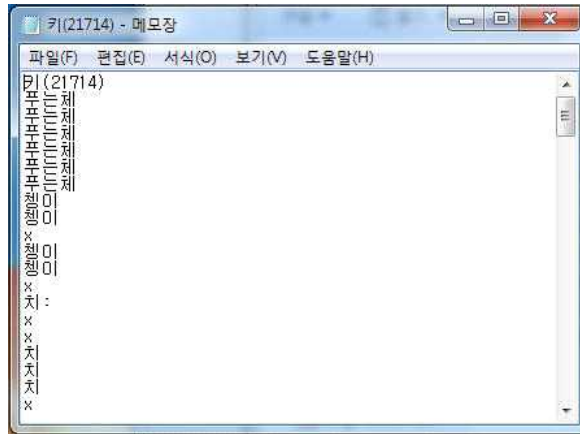
<그림 23> 지역명 파일 열기 팝업 창에서 이 지역명 파일을 선택하여 열면 <그림 24>와 같은 좌표 설정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지도에서 해당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오른쪽 창에 클릭한 지점의 x 좌표와 y 좌표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좌표를 모두 설정한 뒤 파일 → 좌표 데이터 저장을 눌러 좌표 데이터의 파일 이름을 부여한 뒤 저장하고 파일 → 종료하기를 눌러 종료하면 그 백지도의 좌표 데이터가 자동으로 구축된다.



<그림 24> 좌표 설정

③ 어휘 데이터

어휘 데이터는 <그림 25> 좌표 설정과 같은 형식으로 구축한다. 첫 칼럼의 “키”는 대표어형(표준어형)을 나타낸다. 두 번째 칼럼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어휘의 지역별 방언형으로 좌표 데이터와 같은 지역 순서대로 방언형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 한 지역에 방언형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나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좌표 데이터의 지역이 충청도 청원이라면 청원 지역의 키의 방언형은 “치, 키”임을 뜻한다. 이 어휘 데이터는 엑셀이나 워드패드에서 작성하여 확장자명을 *.dbs로 저장하면 된다.



<그림 25> 어휘 데이터 형태

(3) 지도 제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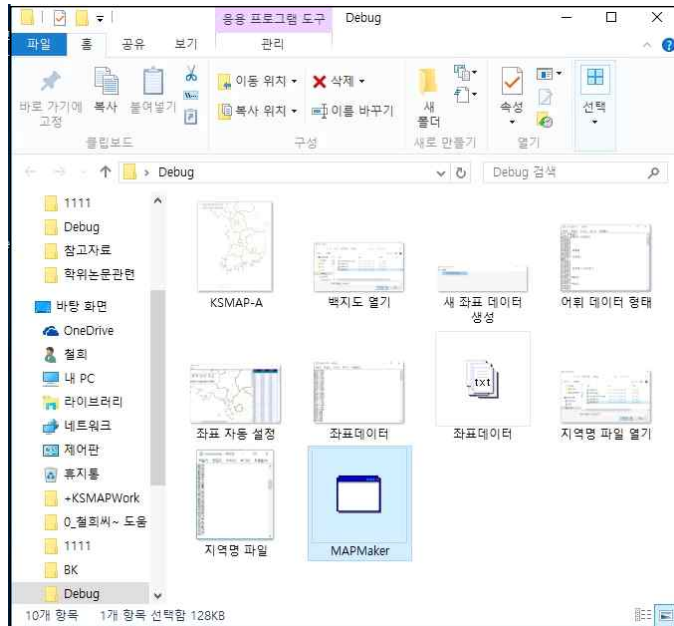
① 프로그램 실행

㉠ 파일 복사

먼저 프로그램 실행 파일(MAPMaker.exe)과 글꼴 파일 (Test.ttf)이 들어 있는 MAPMaker 폴더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복사한다. MAPMaker 폴더에서 글꼴 파일 Test.ttf를 복사해 C:\WINDOWS\Fonts에 붙여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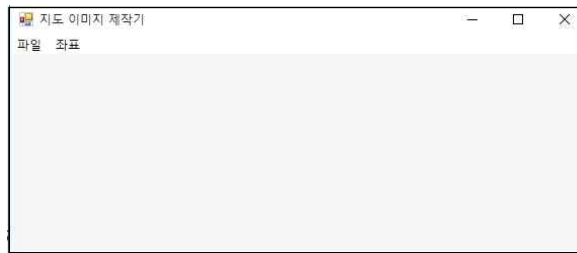
㉡ 프로그램 실행

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복사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한 후 MAPMaker.exe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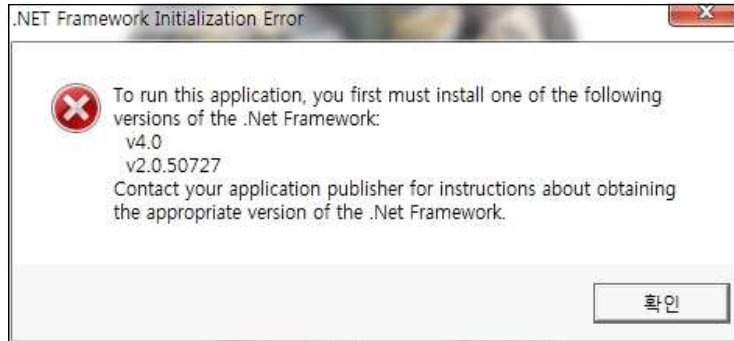
<그림 26>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림 27>과 같은 창이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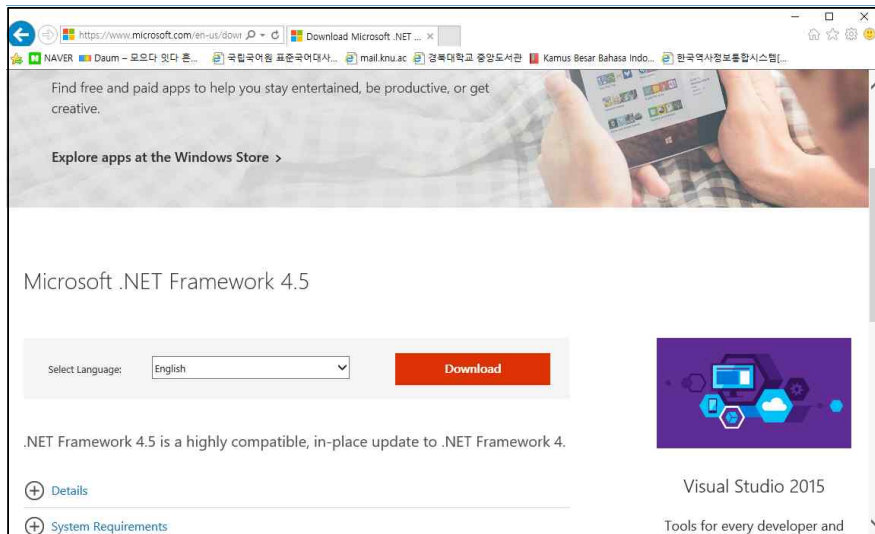
<그림 27> 프로그램 구동 화면

이 프로그램은 Microsoft.NET Framework 상에서 실행되므로 사용자의 PC에 Microsoft.NET Framework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행 파일을 더블클릭했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아래 <그림 28>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면 사용자가 Microsoft.NET framework를 설치해야 구동이 가능하다.



<그림 28> NET Framework Initialization Error 화면

Mircrosoft.NET framework는 <http://www.microsoft.com/downloads/>에서 내려 받아 설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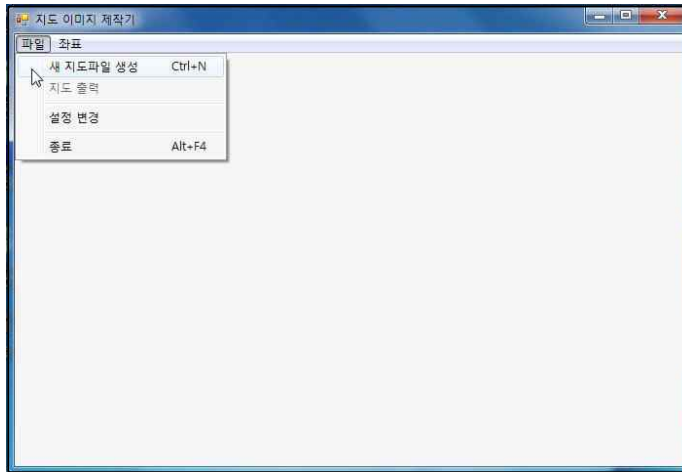


<그림 29> Microsoft.NET Framework 내려받기

② 지도 제작 과정

㉠ 새 지도 파일 생성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파일 → 새 파일 지도 생성을 누른다.



<그림 30> 새 지도 파일 생성

㉞ 바탕 지도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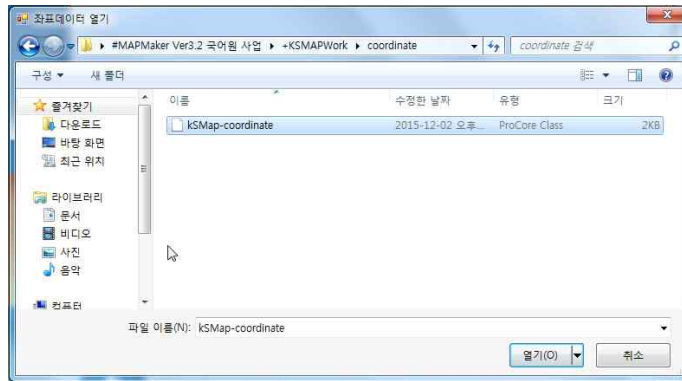
먼저 바탕 지도를 선택하기 위한 팝업 창이 뜬다. 이때 제작하고자 하는 지도의 바탕이 되는 백지도를 찾아 선택한 다음 열기 버튼을 누른다.



<그림 31> 백지도 열기

㉔ 좌표 데이터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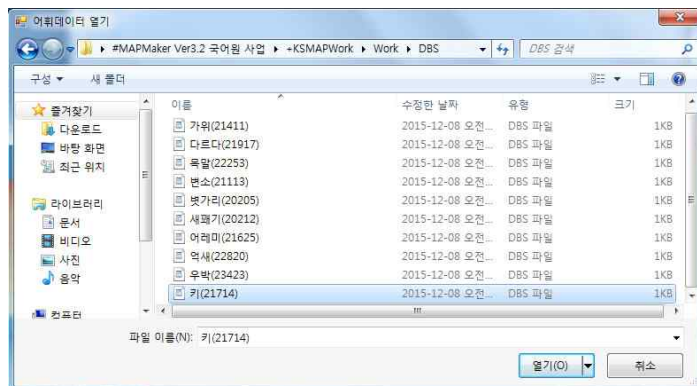
백지도를 열고나면 이번에는 좌표 데이터를 선택하는 팝업 창이 뜬다. 앞에서 연 백지도에 해당하는 좌표 데이터를 찾아 선택하여 열기 버튼을 누른다.



<그림 32> 좌표 데이터 열기

㉕ 어휘 데이터 열기

좌표 데이터를 선택하고 나면 이번에는 어휘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팝업 창이 뜬다. 마찬가지로 지도로 나타내고자 하는 어휘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여 열기를 누른다. 아래 그림에서는 '키'의 방언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키'의 데이터 베이스 파일을 선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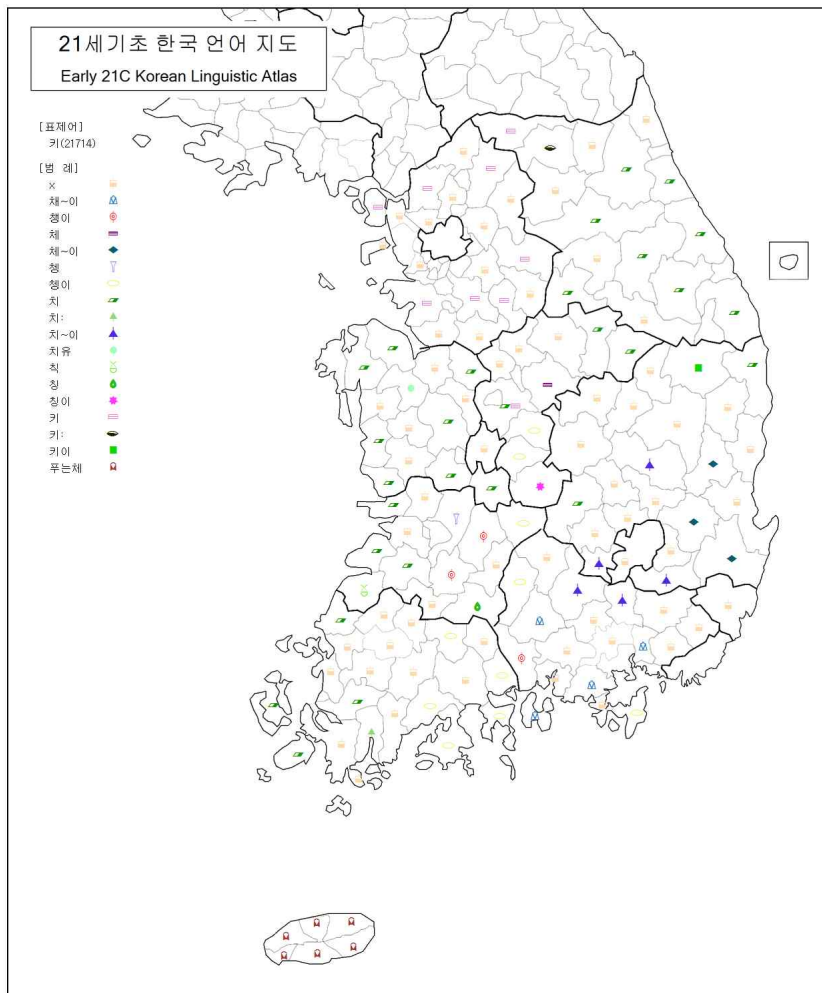


<그림 33> 어휘 데이터 열기

㉔ 상징부호(symbol)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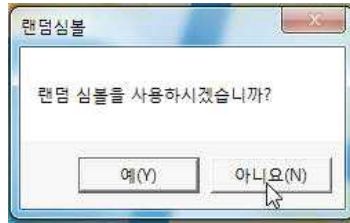
㉔ 랜덤 상징부호

어휘 데이터까지 선택하여 열면 ‘파일 → 설정 변경 → 심볼’에서 랜덤 심볼 ‘무조건 사용하기’가 선택된 경우에는 <그림 34>와 같이 바로 프로그램이 무작위적으로 어휘 데이터에 심볼을 지정하여 완성된 지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34> 랜덤 심볼 지정으로 완성된 지도

‘파일 → 설정 변경 → 심볼’에서 랜덤 심볼 ‘물어보기’가 선택된 경우에는 팝업 창이 뜨면서 다음 <그림 35>와 같이 “랜덤 심볼을 사용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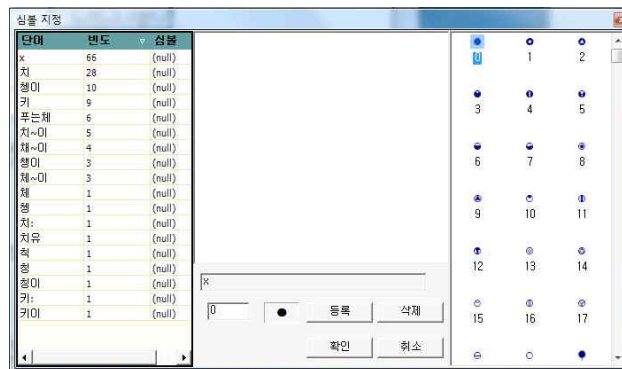


<그림 35> 랜덤 심볼 사용

이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 상징부호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예”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림 33>과 같이 프로그램이 무작위적으로 어휘 데이터에 상징부호를 지정한 지도가 완성된다.

㉞ 사용자 지정 상징부호

사용자가 심볼을 직접 지정하여 지도에 표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일 → 설정 변경 → 심볼’에서 랜덤 심볼 ‘사용하지 않음’을 선택하거나 랜덤 심볼 ‘물어보기’가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랜덤 심볼 ‘물어보기’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위 <그림 35>에서 “아니오” 버튼을 눌렀을 때와 설정 변경에서 랜덤 심볼 사용하지 않음에 체크되어 있을 때는 다음 <그림 36>과 같은 상징부호 지정 창이 뜨게 된다.



<그림 36> 사용자 심볼 지정

창의 왼쪽에는 어휘의 방언형과 그 방언형의 빈도가 나타난다. 파란색 바(bar)의 “단어”를 마우스로 누르면 방언형을 자모의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그림 37>로 정렬되며 “빈도”를 마우스로 누르면 빈도의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그림 38>로 정렬된다.

어휘의 방언형을 클릭한 뒤창의 오른쪽에 있는 심볼 형태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창의 중간 부분에 선택된 심볼이 나타나는데 이 심볼을 클릭하면 심볼의 색을 지정할 수 있다.

단어	빈도	심볼
푸는체	6	(null)
키미	1	(null)
키:	1	(null)
키	9	(null)
칭미	1	(null)
칭	1	(null)
척	1	(null)
치유	1	(null)
치~미	5	(null)
치:	1	(null)
치	28	(null)
챙미	10	(null)
챙	1	(null)
체~미	3	(null)
체	1	(null)
챙미	3	(null)
채~미	4	(null)
x	66	(null)

<그림 37> 자모순 정렬

단어	빈도	심볼
x	66	(null)
치	28	(null)
챙미	10	(null)
키	9	(null)
푸는체	6	(null)
치~미	5	(null)
채~미	4	(null)
챙미	3	(null)
체~미	3	(null)
체	1	(null)
챙	1	(null)
치:	1	(null)
치유	1	(null)
척	1	(null)
칭	1	(null)
챙미	1	(null)
키:	1	(null)
키미	1	(null)

<그림 38> 빈도순 정렬

심볼의 종류와 색을 지정한 뒤 등록을 누르면 해당 방언형에 대한 심볼 지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방언형의 심볼을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완성된다. 이때 <그림 39>와 같이 완성된 지도 화면에서 메뉴를 이용해 심볼의 크기나 범례 폰트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파일 → 맵 파일 저장을 눌러 지도를 저장한 뒤 파일 → 종료를 눌러 종료하면 된다. 이 방언 지도 제작기로 그린 <그림 40>과 같은 지도를 통해 ‘키’의 지역적 방언 분화의 양상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1> '키'의 지리정보(GI)-이미지 언어 지도



<그림 42> '목말'의 지리정보(GI)-이미지 언어 지도

[해설] 벧가리는 벼를 베어서 가려 놓거나 벧단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를 가리킨다. 집으로 옮기기 전에 논에 임시로 쌓은 벼의 더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마당 한쪽에 상당 기간 쌓아 놓은 더미일 수도 있다. 방언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의 더미를 구분하는 수가 있지만 표준어에서는 논이나 집 안에 쌓아 놓은 벼의 더미를 모두 ‘벧가리’라 한다.

언어 지도를 보면 ‘벧가리’계와 ‘벼눌’계의 두 어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벧가리’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나타나고, ‘벼눌’계는 충남 일부와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지역에 나타난다. ‘벧가리’의 ‘가리’는 동사 ‘가리다’에서 영파생된 명사이고, ‘벼눌’의 ‘눌’은 ‘누리’의 /ㅣ/가 탈락된 것으로서 역시 ‘가리다’와 같은 뜻의 동사 ‘누리다’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그렇다면 ‘벧가리’계와 ‘벼눌’계는 결국 <쌓아서 더미를 이루다>는 뜻의 동사로서 ‘가리다’와 ‘누리다’의 분화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벧가리’는 방언형으로서 ‘벧가리’나 ‘벧가래’ 등으로도 나타나며, ‘벼’ 대신 방언형 ‘나락’이 합성된 ‘나락가리’나 ‘나락가래’ 등이 경북과 경남 지역에 나타나고, ‘벧가리’가 ‘뺨가리’나 ‘뺨가리’ 등으로 경음화 되면서 ‘벼’와의 유연성이 상실되자 벼뿐만 아니라 장작이나 나무 등 일반적으로 쌓은 더미를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되게 된다. 그럴 경우 여기에 ‘벼’의 방언형 ‘나락’이 다시 합성되어 ‘나락뺨가리’나 ‘나락뺨가리’ 등의 방언형이 형성되는데, 이런 형들은 대체로 경북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벼눌’은 ‘베눌’이나 ‘비늘’ 등의 방언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 변화로 인해 ‘벼’가 더 이상 인식되지 못하자 ‘뺨가리’와 마찬가지로 나뭇단이나 보릿단 등을 쌓아 놓은 더미를 가리키게 된다. 그럴 경우 ‘벼’의 방언형 ‘나락’이 합성된 ‘나락베눌’이나 ‘나락비늘’ 등이 형성되어 전남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벼’의 방언형 ‘나록’ 또는 ‘산디’가 결합된 ‘나록눌’이나 ‘산디눌’이 나타난다. 충남 지역에서는 사이시옷이 결합된 ‘벧누리’나 ‘벧눌’형이 일부 확인된다. 전북의 일부에서는 ‘베눌가리’와 같은 합성어도 나타난다. 이는 ‘벼눌’과 ‘가리’가 혼태(blending)된 것으로서 ‘벧가리’ 지역과 ‘벼눌’ 지역의 경계 지역에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그밖에 지도에는 충북 지역에 ‘줄가리’형이 확인되는데 이는 주로 논에 쌓아 놓은 벧단 더미를 가리키는 점에서 ‘벧가리’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또한 충북 지역에서는

‘벗더미’, ‘벼테미’, ‘티미’ 등이 보이는데 ‘테미’나 ‘티미’는 아마도 ‘더미’에서 발달된
형으로 보인다.

[해설] 새뻐기는 갈대, 띠, 억새, 짚 따위의 껍질을 벗긴 줄기를 말하며 ‘뻐기’라고도 한다. 새뻐기의 방언형은 ‘고갱이’계, ‘뻐기’계, ‘회기’계, ‘나래미’계, ‘소독’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갱이’는 주로 경기, 강원 지역에 나타나며, ‘꼬개~이’ 등 경음화와 비음화를 겪은 어형이 보이고 여기에 ‘짚’이 합성된 ‘짚꼬개~이’형도 쓰인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잇짚고개’나 ‘잇짚고개~이’ 등이 보이는데 여기서 ‘잇짚’은 메벼의 짚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갱이’는 풀이나 나무의 줄기 한가운데에 있는 연한 심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짚에까지 적용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회기’계는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서 충남북, 전남북, 경북 등지에 보인다. 전남의 동부 지역에서는 ‘호배기’형이 보이는데 이것이 아마도 가장 고행으로 생각된다. ‘호배기’로부터 /ㅂ/이 탈락하여 ‘훼:기’나 ‘회:기’ 등의 다양한 방언형이 만들어진다. ‘호배기’가 움라우트를 겪었다면 그 기원형은 “*호바기”가 될 것이다.

‘뻐기’계는 경기의 남부 지역에 나타남으로써 ‘고갱이’계와 ‘회기’계의 중간에 나타나는 분포를 보이는데, ‘괘기’나 ‘짚뻐기’ 등의 형도 보인다. ‘뻐기’는 아마도 “*고바기”와 같은 기원형에서 발달한 어형으로 추정되며, 이 “*고바기”는 ‘회기’계의 기원형 “*호바기”와 동계로 보인다. 표준어 ‘새뻐기’는 물론 이 ‘뻐기’에 ‘새’가 합성된 말이다.

전북과 충남의 남부 지역에서는 ‘회때기’나 ‘짚회때기’ 그리고 ‘뻐:때기’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 아마도 ‘회기’에 접미사 ‘-때기’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며, ‘뻐:때기’는 ‘회때기’로부터 변이된 형으로 보인다.

경남 지역에서는 ‘나래미’계의 어형이 확인된다. ‘나래미’ 외에 ‘짚나래미’ 등이 쓰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소독’ 그리고 여기에 ‘짚’이 합성된 ‘짚소독’ 등이 보이고 ‘물글’ 등 어원이 전혀 다른 어형도 나타난다.

그밖에 소수형으로서 ‘호출기’, ‘솔갱이’, ‘벗짚대’나 ‘벗줄기’, ‘이삭줄기’, ‘짚마디’나 ‘짚마래키’, ‘집휘영지’ 등이 보인다.

[해설] 21세기 초반에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변소’의 방언형을 小倉進平(1944) 자료와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한국언어지도》(2008)에 나타난 방언 자료와 비교하면 약 한 세기 동안 아주 큰 변화를 보인다. ‘변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지만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용도가 달라지면서 방언권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변소’의 대표적 방언형은 ‘변소계, 뒷간계, 칫간계, 통시계, 정낭계’와 기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변소’계는 ‘변소’와 ‘변소’의 변이형 ‘벤소’ 및 여기에 ‘-간[간]’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뒷간’계는 ‘뒷간’과 이의 변이형 ‘뒷관, 뒷간, 뚫간, 뚫관’ 등이 나타난다. ‘변소’계는 지도에서 보듯이 중부방언권인 경기도, 충청도 지역과 충청도와 인접한 전라북도 북부 지역에 분포하고, ‘뒷간’계는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과 충청도와 인접한 전라북도 북부 지역은 물론이고 강원도 영서 지역과 충청도 및 강원도와 인접한 경북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따라서 ‘변소’계와 ‘뒷간’계는 중부방언권 방언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창 자료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폭넓은 분포를 보이던 ‘똥수간, 동시간’형이 《한국언어지도》와 국어원 자료에서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창 자료에 충청도에 분포하던 ‘뒷간’계가 한국 언어 지도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강원 영서 지역에 까지 널리 분포되었다가 지금은 분포 지역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변소’계와 ‘화장실’형의 분포가 점차 확산되는 것이 흥미롭다.

한편, ‘칫간’계는 한자어 ‘측간(廁間)’에 기원하는 것으로 ‘칫간, 칫관, 칫간, 부칫간’ 등의 변이형이 한반도 서남부 지역과 제주도 지역, 그리고 이들 지역과 인접한 경남 서부 지역과 충청도 남부 지역에 분포한다. 서남방언권 방언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시’계는 ‘통시, 통세, 통씻간[통시간]’ 등의 변이형이 경상도 지역과 강원도 영동 남부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따라서 ‘통시’계는 동남방언권 방언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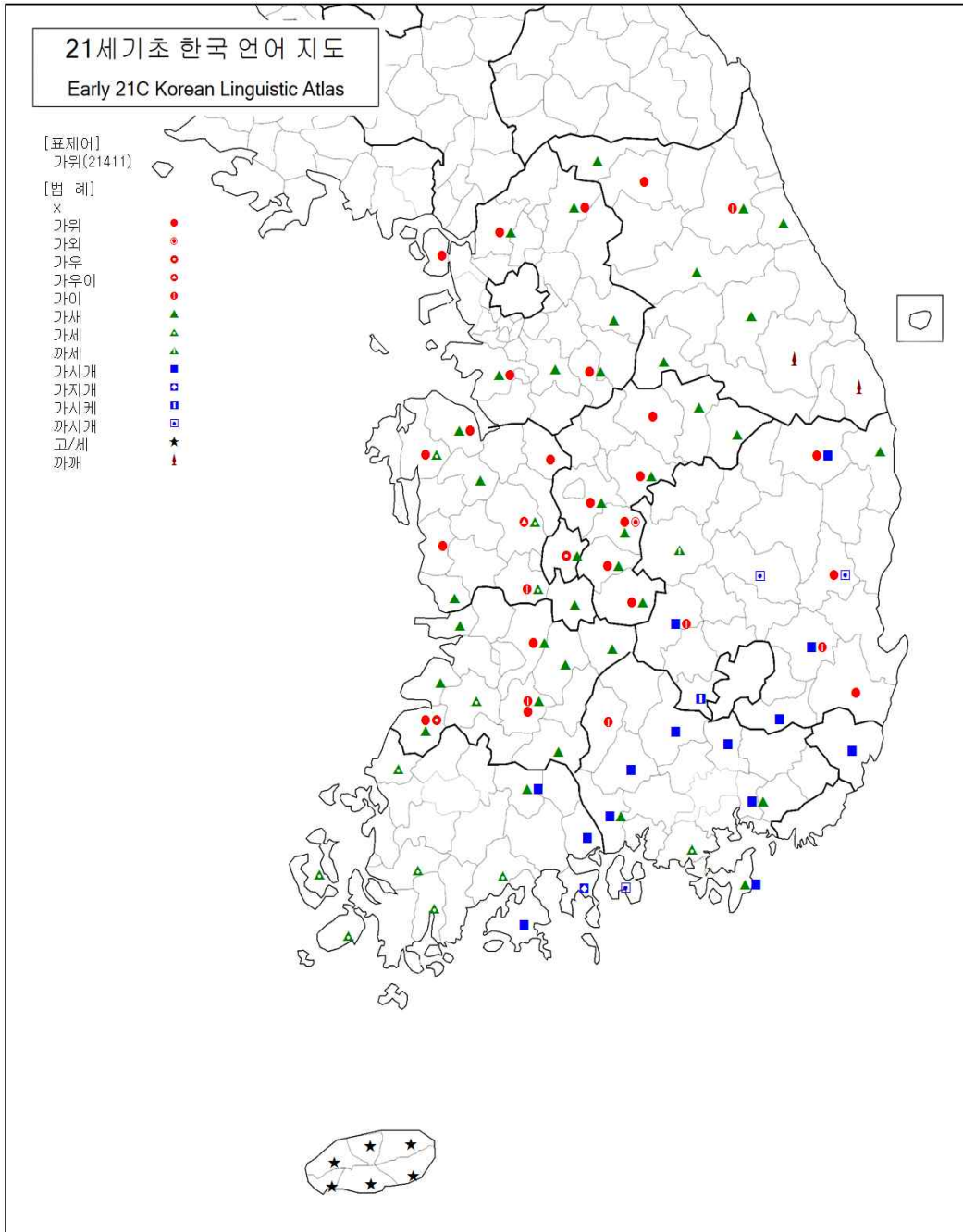
‘정낭’계는 ‘정낭, 정랑’ 형이 쓰이는데 동해안을 따라 태백산맥 동쪽의 강원도와 경북의 영동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영동방언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더 조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서남방언형인 ‘칫간’계와 동남방언형인 ‘통시’계 외에 다른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 ‘뚫통’계가 쓰이는 특징을 보인다.

특기할 점은 소창 자료나 《한국방언지도》에서 보이지 않던 ‘화장실’형이 경기도와 충북 지역에서 새로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는 주거문화의 변화로 단독주택의 본채 밖에 있던 ‘변소’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변소’형보다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문화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기타 방언형으로 ‘소망’, ‘구시’, ‘잿간’, ‘똥간’, ‘똥꾸당’과 같은 형태도 관찰되었는데 이들 방언형은 좀 더 조밀한 방언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중부 방언권에서 널리 쓰이던 ‘뒷간’계 방언형이 점차 ‘변소’계와 ‘화장실’형으로 대치되면서 사라지는 것과 함께 그 형태와 용도도 크게 변하고 있다. 서남방언권에서는 ‘칙간’계, 동남방언권에서는 ‘통시’계가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방언권이 충돌하는 지역에서는 서로의 방언형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한편 태백산맥 동쪽의 강원도와 경상북도 영동 지역에서는 ‘정낭’계 방언형이 분포하고, 제주도 지역에는 서남방언형과 동남방언형과 함께 제주도 특유의 ‘똥통’계 방언형이 공존하고 있다.

4.2.4 '가위'의 언어 지도



[해설] ‘가위’는 소창진평(1944)와 《한국언어지도》(2008)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언형의 사용과 분포변화가 예측되는 어휘로 지도에서 보듯이 방언권에 따라 다양한 방언 분포를 보인다. 소창진평의 자료는 20세기 초기에 한반도에서 쓰이던 방언형의 분포를 보여 주고, 《한국언어지도》는 소창진평 자료보다 약 50년 뒤인 1980년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20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쪽에서 쓰이던 방언형의 분포를 보여 준다. 이들 두 자료와 21세기 초반에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방언 자료를 비교하면 약 한 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쓰이던 ‘가위’의 방언형 분포가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가위’에 대한 방언형은 크게 ‘가위’계, ‘가새’계, ‘가시개’계가 있고 이 세 계열의 방언형은 지역적으로 잘 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특이한 어형인 ‘까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가위’계는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강원도 일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까지 폭넓게 분포한다. 《한국언어지도》에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서 산만한 분포를 보이던 것에 비하면 세력을 많이 확장하였다. 이 ‘가위’계가 분포하는 지역에는 대체로 ‘가새’계도 함께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가새’계는 ‘가위’계가 쓰이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 지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지역과 강원도 및 제주 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한다. 이에 비해 경상도 지역에서는 ‘가시개’계가 주로 분포한다.

‘가위’의 15세기 어형이 ‘궂애’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서부 지역에서 쓰이는 ‘가새’형이 고형이고 표준어형인 ‘가위’계가 신형임을 알 수 있다. ‘가위’계와 ‘가새’계가 함께 분포하는 지역은 ‘가새’계가 쓰이던 지역에 표준어형 ‘가위’계가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서쪽으로는 전라북도 지역까지 남하하였고 동쪽으로는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넓힌 것이다. 한반도 남부를 동서로 가르면 서부 지역에서는 ‘가새’계가 쓰이고 동부 지역에서는 ‘가시개’계가 쓰였는데 신형인 ‘가위’계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동부 지역으로는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분포함으로써 표준어형에 의해 전통 방언형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이하게 ‘까개’형이 강원도 남부 지역의 영동 지역에서만 분포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좀 더 조밀하고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해설] ‘어레미’(篩子)는 크게 어중 ‘ㄱ’이 존재하는 ‘얼게미’계와 ‘ㄹ’ 뒤에서 ‘ㄱ’이 탈락을 경험한 ‘어레미’계가 있고, 17세기 ‘얼멍이’에서 비롯된 ‘얼멍이’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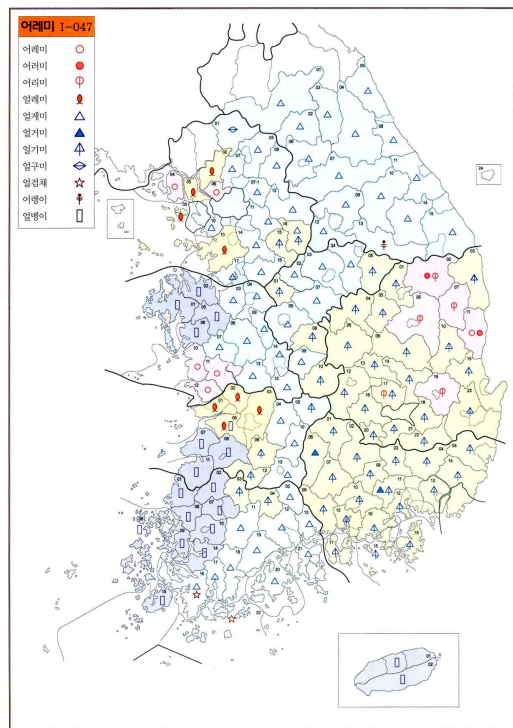
- (1) ‘어레미’ 계: 어레미, 어레이, 어랭이, 어레~이, 어링이, 어리미, 얼레미
- (2) ‘얼멍이’ 계: 얼멍(멍)이, 얼밍이, 얼메~이, 얼메이
- (3) ‘얼게미’ 계: 얼게(개)미, 얼갱이, 얼기미
- (4) 기타 계: 대걸멍이, 멍시기, 체, 체반지, 사래

‘어레미’계는 경기도 서부, 충남 1개 지점(예산), 전북 1개 지점(완주), 충북 2개 지점(단양, 괴산)에서 발견된다. 특히 완주의 ‘얼레미’형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견된 절충형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좀더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얼멍이’계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의 각각 서부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서 실현되고 있다.

‘얼게미’계에는 ‘얼게미, 얼기미, 얼갱이’가 있는데 이들은 강원도, 경상도,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의 동부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얼갱이’는 전남 고흥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얼멍이’의 어형과 접촉을 통해 융합된 전이 지역 방언형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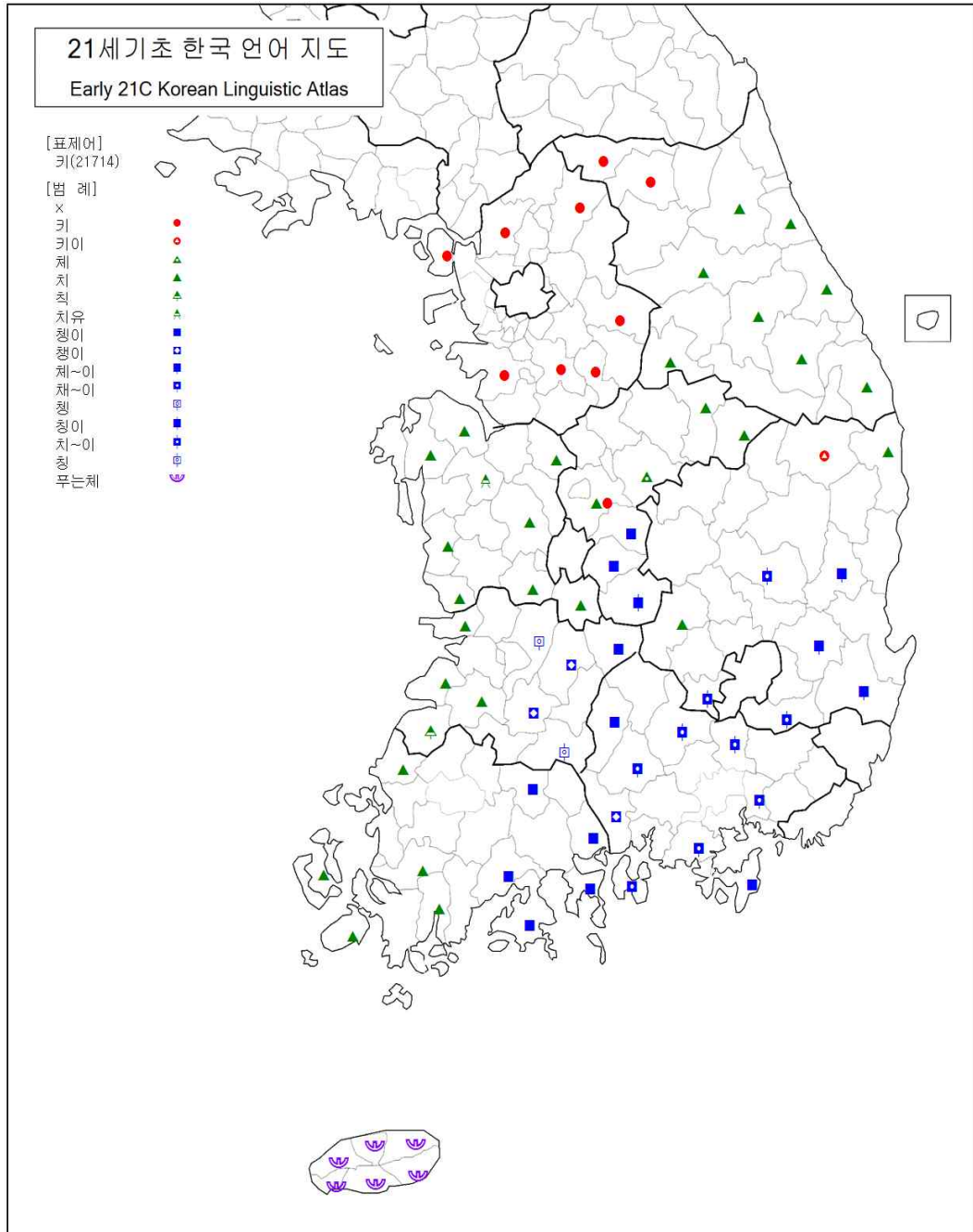
그 이외에도 ‘대걸멍이, 멍시기, 체, 체반지, 사래’ 등의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체, 체반지’는 눈이 굵은 ‘어레미’와 고운 ‘체’가 분화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러한 방언형이 발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한국언어지도》(2008: 38)

<20세기 말 ‘어레미’ 남한 언어지도-정문연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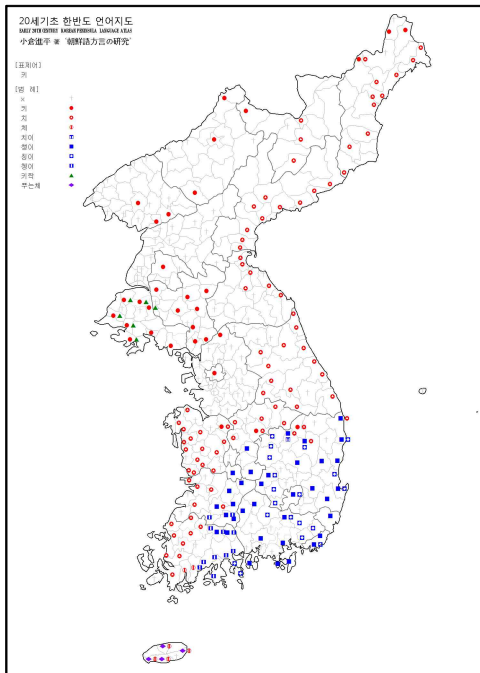
4.2.6 '키'(箕)의 언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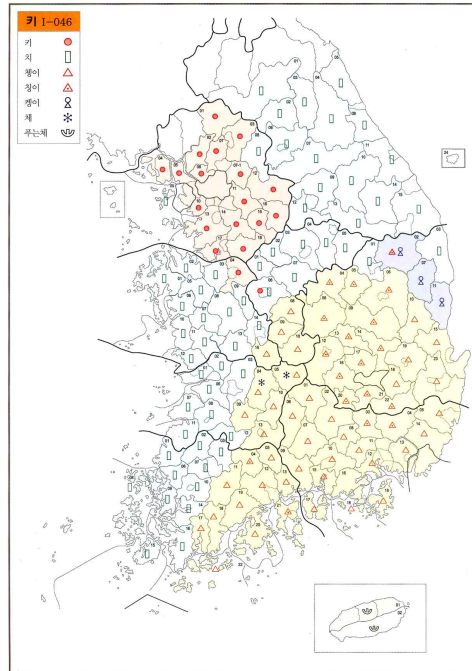
[해설] ‘키(箕)’는 이미 《訓民正音》用字例에 ‘키爲箕’로 나오고 《訓蒙字會》도 ‘箕 키 기’로 나올 만큼 국어사 연구에서 중요한 어형이다. 이 어형은 한반도에서의 구개음화 적용에 대한 분석의 잣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키’의 방언형은 ‘키’계, ‘체~치’계, ‘챙이~칭이’계, 기타로 나뉜다. ‘키’계와 ‘체~치’계 사이의 분화는 구개음화에 의한 것이며, 이들과 ‘챙이~칭이’계 사이의 분화는 ‘~앵이’라는 접미사를 취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체’, ‘챙이’가 각각 ‘치’, ‘칭이’로 된 것은 ‘ㄱ → ㄷ’ 고모음화에 의한 것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체~이’, ‘치~이’처럼 비모음화가 실현된 형태도 발견된다.

‘키’계에는 ‘키’와 ‘키이’가 있는데 주로 서울 경기 지역과 강원도 서북부 지역, 충북 청원과 경북 봉화에서 발견된다. ‘체~치’계는 충남, 충북 중북부 지역과 전북, 전남의 서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다. ‘챙이~칭이’계는 충북의 남부, 경북, 경남 지역 그리고 전북, 전남의 동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푸는체’는 제주도에서 발견되는데, 이러한 분포는 《한국언어지도》(2008)의 분포와 거의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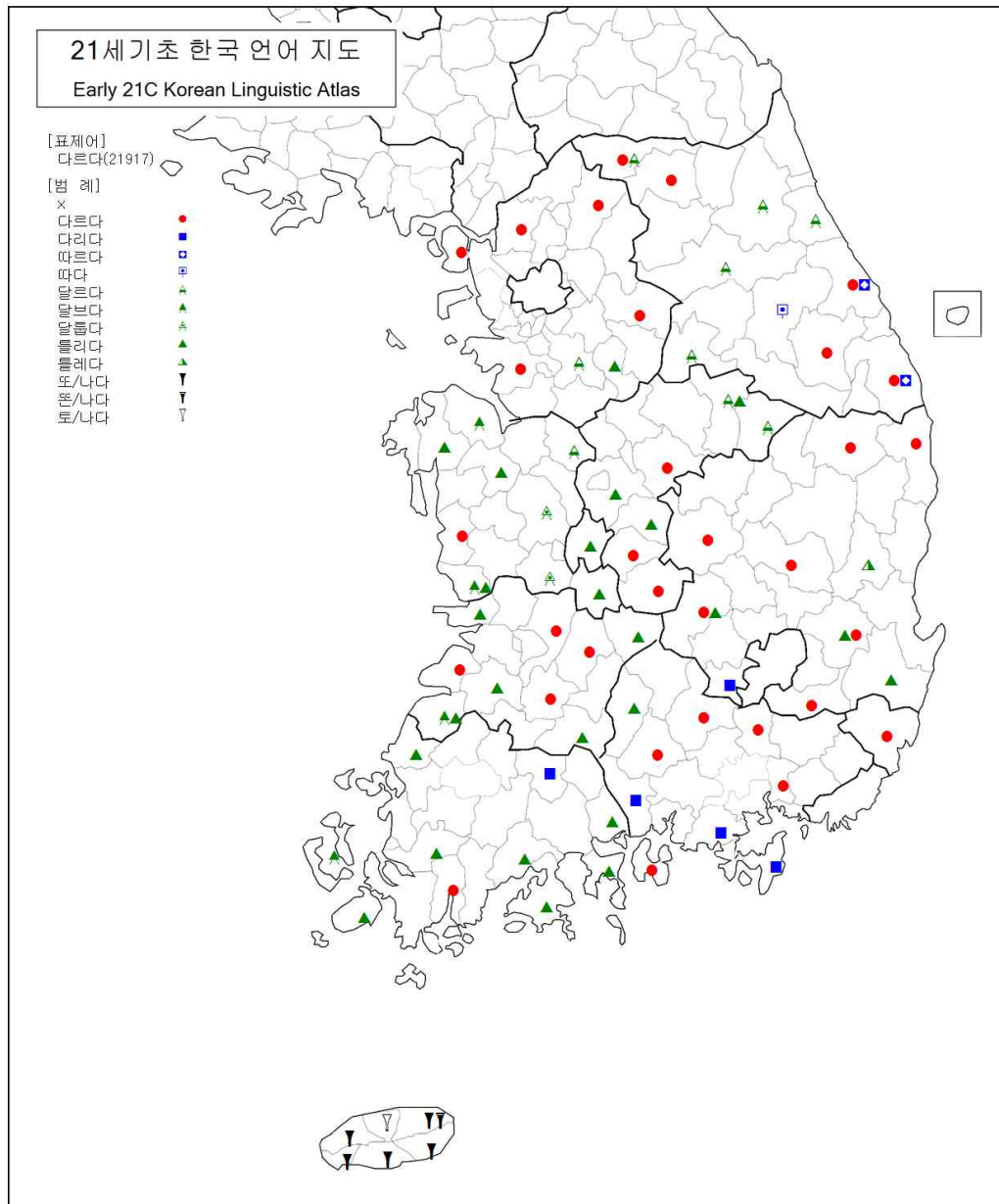
<20세기 초 ‘키’ 한반도 언어지도-小倉 자료>



《한국언어지도》(2008: 36)

<20세기 말 ‘키’ 남한 언어지도-정문연 자료>

4.2.7 '다르다'의 언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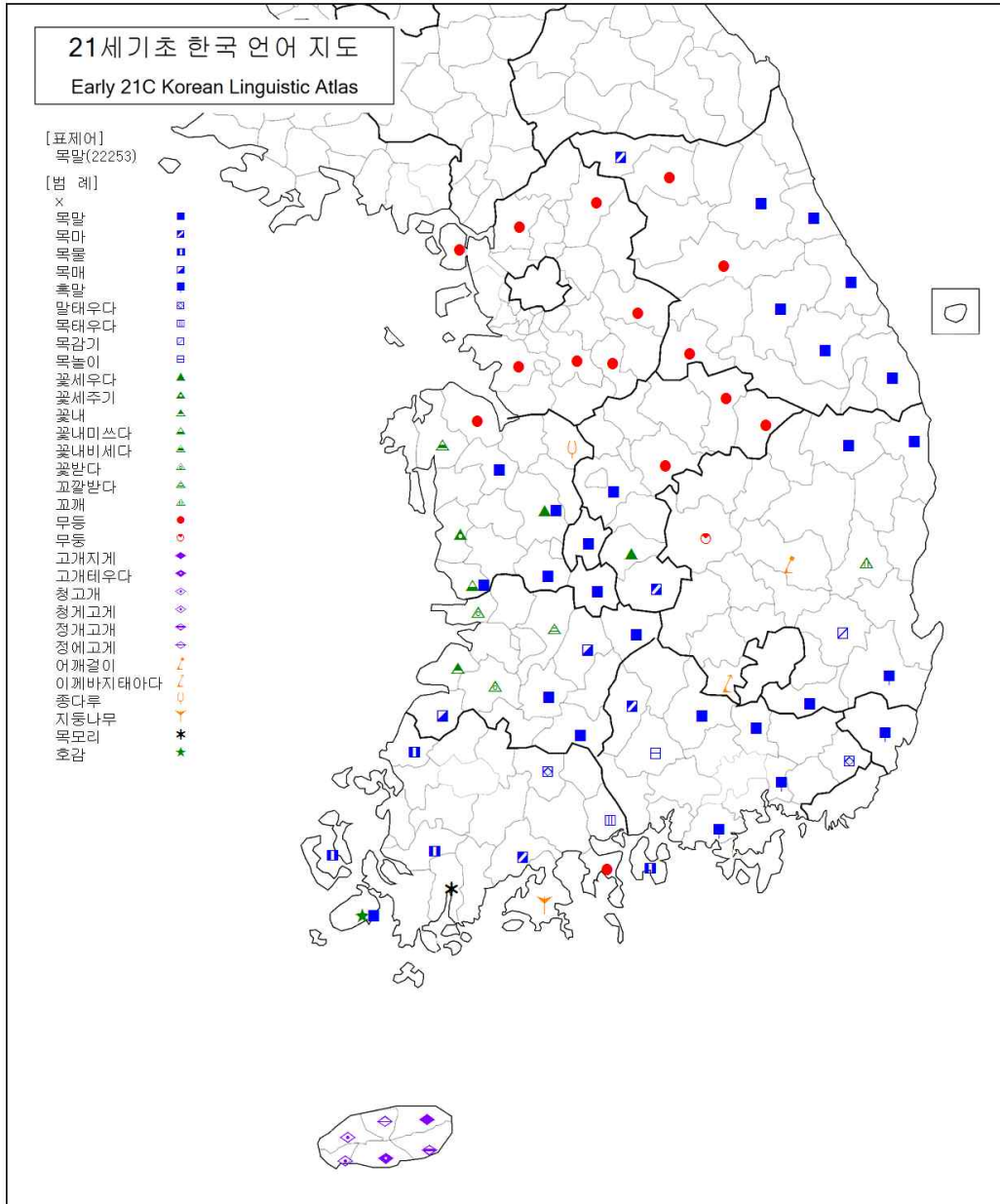
[해설] ‘다르다’(異)는 크게 세 계열로 대별된다. 하나는 ‘다르-’계고, 다른 하나는 ‘틀리-’계, 마지막으로 혼효형 ‘틀부-’계다(‘다르-’계에는 일단 ‘다리-’와 ‘달르-’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적어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는 ‘틀부-’형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틀부-’계(달부-, 닭-)가 확인되지 않았다. 일단, 방언 지도를 보면 몇 가지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르-’는 경상방언형, ‘틀리-’는 서남방언형이라는 것이다. ‘몰르-’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부방언형이었다. 지금도 중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르-’의 방언 지도를 그리려 한 것은 세 가지 관심사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표준어인 ‘다르-’계가 얼마나 확산되었을까? 즉 ‘다르-’계가 ‘틀리-’계 지역을 잠식했을 수도 있고 ‘다르-’계가 ‘다리-’류 지역을 잠식했을 수도 있다. 둘째, 중부방언형 ‘달르-’류가 얼마나 확산되었을까? 셋째, 대중매체에서 너무나도 혼용되고 있는 ‘틀리-’계가 얼마나 확산되었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르-’와 ‘달르-’의 관계는 ‘다르고, 다르니, 달라’와 같은 패러다임에서 ‘달르고, 달르니, 달라’와 같이 기저형이 단일화된 것이다. 반면 ‘다리-’는 ‘다르고, 다르니, 달라’와 같은 패러다임에서 ‘르’가 음성학적인 요인에 의해 ‘리’로 바뀐 것이다. 이에 같은 계열로 묶은 것이다. 지도를 보면 ‘다르-’류가 경상남도의 ‘다리-’류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분포를 상당히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다리-’류는 몇몇 지역에서만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의외로 중부방언형이 ‘달르-’류는 그 분포가 그리 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준어형이 ‘달르-’류인 중부방언형을 압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달부-’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달부-’는 ‘닭-’에서 발달한 것이나 이번 조사에서는 ‘닭-’이 확인되지 않았다(‘닭-’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도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것은 ‘불부-(부럽-)’와 ‘불-’의 관계와 같다. 여기에서 ‘틀리-’와 ‘달부-’의 혼효형 ‘틀부-’가 형성된 것인바, ‘달부-’계 또한 그 분포가 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틀리-’계에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틀리-’계가 그 분포를 위쪽으로 넓혀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4.2.8 '목말'의 언어 지도



[해설] ‘목말’은 크게 세 계열로 대별된다. 하나는 ‘목말’계, 다른 하나는 ‘무등’계, 끝으로 ‘꽃/꽃’계가 그것이다. 특이한 점은 표준어인 ‘목말’계가 오히려 서울`경기 일원보다는 그 이남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울`경기 일원, 즉 표준어 지역에는 오히려 ‘무등’계가 확인된다.

우리가 ‘목말’의 방언 지도를 그리려 한 것은 두 가지 관심사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표준어가 얼마나 전통방언형을 잠식했을까 아니면 서울`경기 일원에 분포된 ‘무등’계가 전통방언형을 얼마나 잠식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둘째,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라면 손주들과 같이 지내는 일이 많았을 터이므로 ‘목말’과 같은 방언형이 꾸준히 회자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현대 사회는 손주들과 떨어져 사는 노년층이 대부분이므로 전통방언형의 소실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또 다른 관심사였다.

먼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서 ‘목말’계는 청주 이남 지역에서 안정적인 분포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경상도 서부 지역에서 다소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 현재는 그 분포를 많이 넓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남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경상남도 동쪽에서 크게 위세를 떨치던 ‘혹말’ 지역에서도 ‘목말’은 크게 위세를 떨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표준어의 위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즉 표준어 지역형의 ‘무등’보다는 표준어 ‘목말’계가 더 확산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무등’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자료와 거의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표준어형에 위축되지 않은 것은 ‘무등’계가 오히려 표준어 지역에 위치한 방언형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무당’, ‘미등’ 등의 방언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꽃/꽃’과 관련되어서는 충청도 지역,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꽃’계 어형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충청도 지역에서는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보다 그 분포가 더 넓은 것이 특징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그 분포가 상대적으로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목말’계에 의해 잠식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강원도 남부 지역과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분포해 있던 ‘동동이’, ‘동당이’, ‘동구리’와 같은 방언형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이들은 대부분 ‘목말’계에 잠식된 것으로 보인다(물론 제보자나 조사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

이로 보아 전통방언형이 표준어형에 대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한반도 동부 지역 쪽으로는 그 기세가 완연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꽃/꽃’과 관련된 한반도 서부 어형은 그래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꽃’계와 ‘목말’계가 서로 다른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는 서남방언 화자도 있으니 그 분화에 대해서도 조사해 봄직하다.

[해설] 고복수(1911-1972)라는 가수가 부른 가요 ‘짜사랑’의 1절 초두에 등장하는 ‘으악새’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단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억새’설과 ‘왜가리’설로 나뉘는데 어느 가설에서나 ‘으악새’를 해당 단어의 방언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억새’든, ‘왜가리’든 이전의 전국 방언 조사·연구에서 실제로 조사된 적이 없어서 ‘으악새’가 해당 단어의 방언형이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지역어조사 및 전사사업>(2004-2013)에 ‘억새’ 항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국 방언형을 살피는 것은 흥미로운 일로 여겨진다.

전국 모든 지역이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억새’의 방언형은 다음과 같이 몇 계열로 나뉜다.

- (1) ‘억새’계 : 억새~옥새(풀), 억쇄(풀), 왁새(풀), 워새, 으악새, 어복새
- (2) ‘억살’계 : 억살, 워살, 옥살, 억달, 억다리, 워달
- (3) ‘어옥’계 : 어옥, 어웁, 어왁
- (4) ‘새’계 : ‘새’형, ‘새X’형, ‘Y새’형
 - ① ‘새’형 : 새(풀), 썩, 썩
 - ② ‘새X’형 : 새때, 새때기, 썩때기, 썩강, (왕)새갱이, 새개이, 개괭이, 새초
 - ③ ‘Y새’형 : 왕새, 미새, 속새, 향새
- (5) ‘갈대’계 : 갈대, 갈풀, 갈때풀
- (6) 기타 : 후등, 우등데, 난나리풀, 사기풀, 쇠풀, 왕삭대기

‘억새’계는 중부 방언에 주로 분포해 있으면서 전북 및 전남 서부 그리고 경상도에 간간히 출현하는 형태다. ‘억새’가 ‘옥새’로 나타난다든지, ‘워새(왁새)’가 충청남도에 분포한다든지 하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단어는 본래 음장이 있는 ‘억:새’임에 틀림없다. 이 계열에서는 강원도 철원의 ‘으악새’나 경북 청송의 ‘어복새’가 독특하다.

‘억살’계는 전라남도과 전북 서부, 그리고 ‘어옥’계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형태다. ‘억살’계는 ‘억달’ 또는 ‘억다리’로도 나타나 ‘살~달’의 변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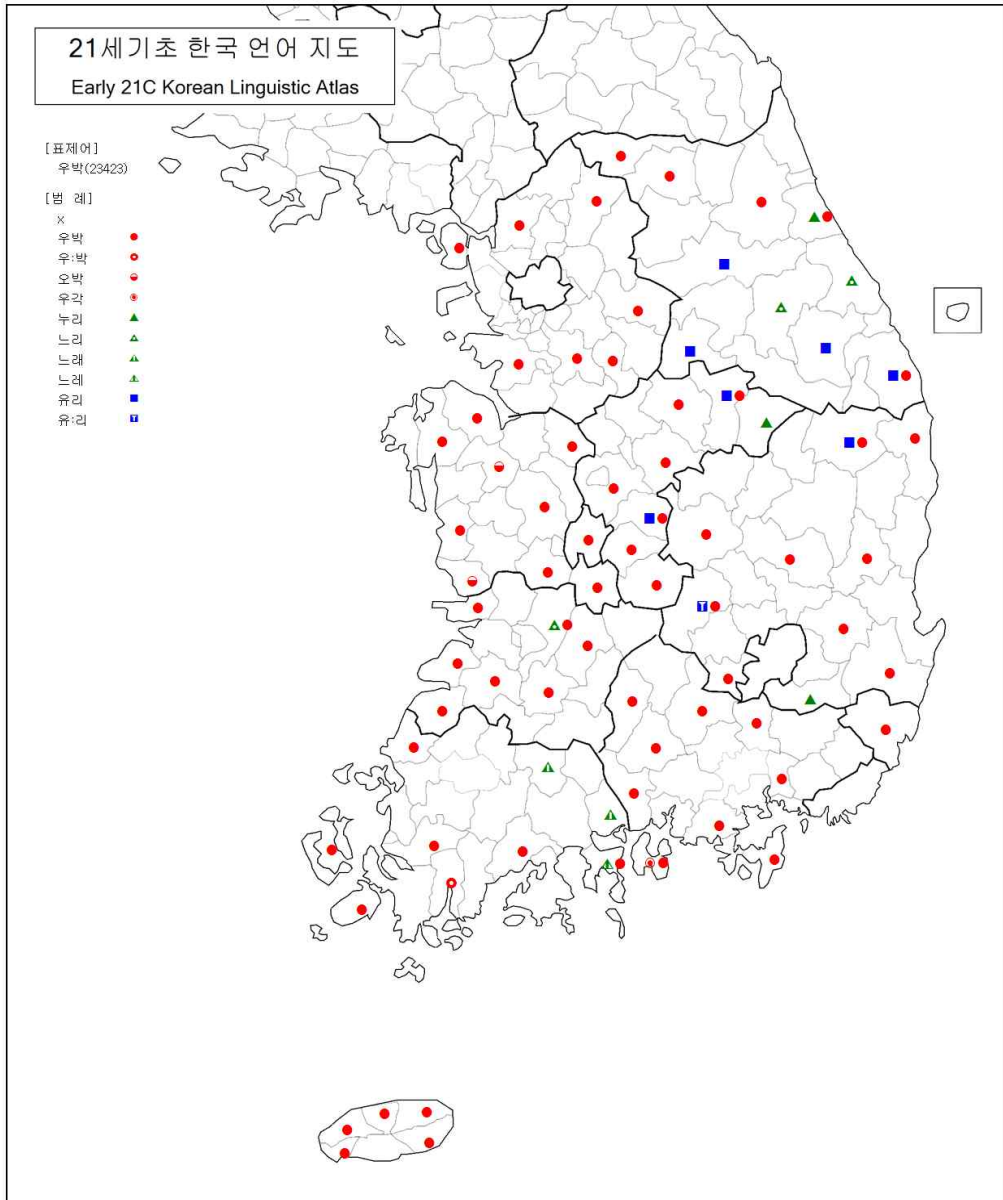
‘억새’계와 ‘억달’계는 첫 음절이 ‘억~워~왁~옥’의 변이를, ‘어옥’계 제2음절

이 ‘옥~웁~왁’의 변이를 보인다. 이로 보아 ‘억’ 또는 ‘어옥’을 선행 요소로 하면서 이들은 각각 ‘-새’와 ‘-달’ 그리고 ∅(영) 요소가 후행한 형태로 판단된다.

‘새’계는 크게 ‘새∅’형과 ‘새X’형으로 나뉜다. 지역에 따라 어두경음화를 겪거나 관형어 ‘왕-, 미-, 속-’ 등이 붙은 형태가 출현한다. 후접 요소도 ‘-때기’형과 ‘-갱이’으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새때기’형은 전북과 경남 지역 그리고 ‘새갱이’형은 충북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경북 지역에는 여러 형태가 공존하지만 기원적으로는 ‘새∅’형 지역이었을 듯하다.

‘갈대’계는 ‘갈대’와 ‘억새’가 구분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 이외에 ‘후등, 우등데, 난나리풀, 사기풀, 쇠풀’ 등 매우 이질적인 형태가 전국 지역에 산발적으로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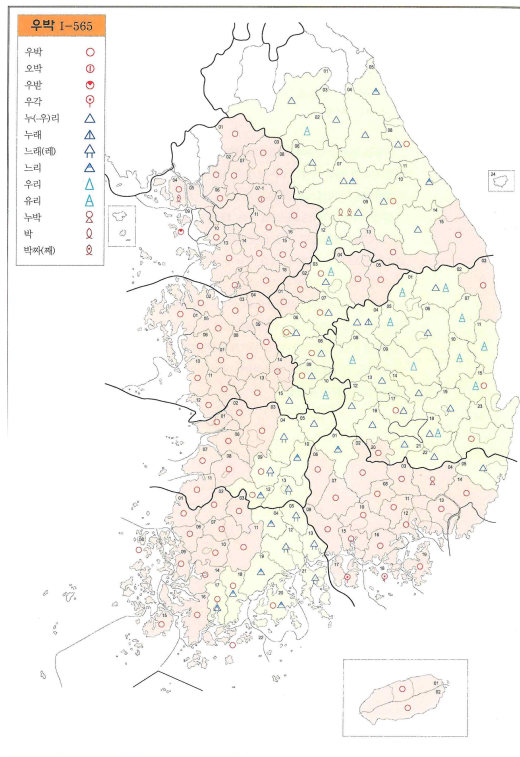
4.2.10 '우박'의 언어 지도



[해설] 전국 모든 지역이 다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우박’의 방언형은 매우 단순하여 다음과 같이 세 계열로 나뉜다.

- (1) ‘우박’계 : 우박, 오박, 우각
- (2) ‘누리’계 : 누리, 느리, 느래
- (3) ‘유리’계 : 유리

이 지도는 ‘우박’계가 전국을 거의 석권한 가운데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전북 서부, 전남 서부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누리’계와 ‘유리’계가 분포함을 알려 준다. 그런데 이 지도를, 다음에 제시하는 《한국언어지도》(2008)의 ‘우박’(286면)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난다.



‘우박’의 언어 지도(《한국언어지도》 286면)

하나는 전국적으로 출현하는 형태가 단순화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표준어 ‘우박’이 전국을 거의 석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언어지도》에 나타난 ‘우박’계(동그라미 계열의 기호로 표시)의 분포와 우리의 지도에 나타나는 ‘우박’계(역시, 동그라미 계열의 기호로 표시)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언어지도》에서 전북 서부와 경북 전역은 ‘누리’계 또는 ‘유리’계가 쓰이던 지역(지도상으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었는데 이번 지도에서는 표준어 ‘우박’이 거의 평정한 지역으로 나타났다(물론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 있기는 하다).

《한국언어지도》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 바탕을 두었고, 우리의 지도가 <지역어조사사업>(2004-2013)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지도의 비교는 15년-20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언어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 20년 정도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표준어가 기존 방언형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다. 표준어의 확산과 방언형의 위축이 20년 사이에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아무런 대책 없이 표준어의 확산을 지켜보고만 있을 때 전통 방언형의 소멸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완료되리라는 점은 굳이 이 예를 통하지 않고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제5장 결론

5.1 연구의 의의

2015년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사업의 목적이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전통 어휘의 분포를 지도위에 구현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음성을 통하여 해당 지역 방언형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방언 지도를 시범 제작하는 것이었다.

전국적인 방언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방언 조사를 통해 각 지역 방언의 DB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남한의 각 군(郡)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방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언어지도’(2008)라는 이름으로 153개 항목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약 20년이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국립국어원에서 전국적인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조사 지역이 64개 지점에 불과해 아직까지 그 결과가 방언 지도로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에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사업에서는 20개 지점의 방언을 추가로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장의 방언 지도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시범 제작된 방언 지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조사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립국어원에서 기존에 조사한 지점은 한 도 당 7개 지점 정도이므로 빈칸이 너무 많아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난 방언 변화의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20개 지점을 추가 조사함으로써 방언 분포와 지역 문화를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노력과 재정이 투입된 조사 및 전사 결과물을 학술적인 목적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 한국어가 한반도에서 사용하는 여러 방언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의 방언은 그 지역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의 삶과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전국적인 방언 조사를 통하여 방언들의 분포를 알아보는 일은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더욱이 과거의 방언과 현재의 방언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각 지역 방언의 지리적인 분포를 언어 지도

로 제작하는 일은 그 지역민의 삶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어를 이루는 각 방언의 생생한 역사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사업은 결과물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위해 ‘한국방언학회’(이하 ‘방언학회’로 씀)와 연계하여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사업의 목표가 국립국어원에서 이미 수행한 지역어 조사 사업(2004~2013)의 조사 지점(64개)에서 빠진 미조사 지역을 대상으로 20개 지점을 보충 조사하여 보완한 다음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는데, 국어원에서 기수행한 사업이 방언학회 회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방언학회가 방언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결과물의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본 사업을 방언학회와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학회에서 축적해 놓은 방언 조사 비법과 방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위한 현지 방언 조사 결과를 방언학회의 지역 회원에게 확인 검토 받음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사업의 과제인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 미조사 지역 가운데 전국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도 제작용 어휘 1,200여 항목을 추가 조사하여 국내 지역어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역어 활용 콘텐츠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콘텐츠를 웹 기반의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와 연계하여 전국 방언 지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하여 해당 지역어의 발음, 형태, 문법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방언 지도(10개 항목)를 시범 작성함으로써 향후 수행될 본격적인 지도 제작 사업의 기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5.2 기대 효과

이 사업의 목표가 국립국어원에서 이미 수행한 지역어 조사 사업(2004~2013) 결과물과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 빠진 미조사 지역을 대상으로 보충 조사한 결과물을 합쳐 한국 전통 어휘의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음성과 결합되어 해

당 지역의 방언형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방언 지도를 시범 제작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64개 지점)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 미조사한 지역 가운데 전국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도 제작용 어휘를 추가로 조사하여 지역어 활용을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웹 기반의 '지역어 종합 정보 체계'와 연계하여 전국 방언 지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하여 해당 지역어의 발음, 형태, 문법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방언 지도(10개 항목)를 시범 작성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지도 제작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기 조사된 지역어 조사 자료와 미 조사된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추가 방언 조사를 통해 구축한 DB로 명실상부한 언어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그 지역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 주민의 삶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울러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비전문적인 다양한 영역에서도 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사업을 통해 조사한 방언 자료는 전통 문화로서의 언어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는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어는 각 지역의 방언들의 총화이므로 전국 각 지역의 방언 조사를 통해 구축한 언어 자료는 한국어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향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본 사업의 결과물은 방언학과 타 학문 분야, 즉 인문지리, 문화인류학, 민속학 분야와 연계한 연구로 연구 분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호(2001),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 월인.
- 김덕호(2009), 《지리언어학의 동향과 활용》, 역락.
- 김병제(1988), 《조선언어지리학시고》,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김성규·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 김영송(1963), 음운, 《경상남도지》 중, 경남도지 편찬위원회.
- 김영태(1975), 《경상남도방언연구》(1), 진명문화사.
- 김충희(1984), 충청북도의 방언 구획 시론, 《방언》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충희(1992), 《충청북도의 언어지리학》, 인하대출판부.
- 김태균(1986), 《함북방언사전》, 경기대 출판부.
- 도수희(1977), 충남방언의 모음변화에 대하여, 《이승녕선생 고희기념논총》, 탑출판사.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 이기갑(2013), 《전라도의 말과 문화》, 지식과 교양.
- 이기문·김완진·최명옥·이승재·김영배(1993), 《한국 언어 지도집(Language Atlas of Korea)》, 성지출판사.
- 이병근·정승철(1989), 경기·충청지역의 방언분화,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 이익섭(1981), 《영동영서의 언어 분화》, 서울대 출판부.
- 이익섭·전광현·이광호·이병근·최명옥(2008), 《한국 언어 지도》, 태학사.
- 임석규(2014), 성조를 토대로 한 방언 구획론을 위하여, 《방언학》 19, 한국방언학회.
- 정승철(2007), 피동사와 피동접미사, 《진단학보》 104.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최명옥(1994),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외골 권재선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우골탑.
- 최학근(1968), 《국어방언연구》, 서울대 출판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영목(1998), 충남방언의 현상과 특징에 대한 연구,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国立国語研究所(1966-1974), 《日本言語地圖》, 東京 : 大蔵省印刷局.
 北京语言大学(2008), 《漢語方言地圖集》, 北京 : 商务印书馆.
 小倉進平(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oyo Bunko 12, Tokyo.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缺’語攷》, 京城 : 東都書籍.
 Chambers, J.K. & P. Trudgill(1980), *Dialect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liéron, Jules & Edmond Edmont(1902-1910), *Atlas Linguistique de la France*, H. Champion, Paris.
- Näser, Wolfgang(2006), German Dialects - a Practical Approach, 토호쿠대 초청 강연, 2006, 토호쿠대.(발표문)
- Orton, Harold et al.(1978), *The Linguistic Atlas of England*, Croom Helm Ltd, London.

[첨부 1]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지역어 조사 질문지 ⇒ 별도의 디스크

[첨부 2]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방언 조사 및 전사 지침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방언 조사 및 전사 지침

2015. 9. 1

작성 :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연구팀

방언 조사의 기본 방향

1. 본 방언 조사의 목적은 방언 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다.
2. 본 방언 조사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소멸 위기에 있는 각 지역의 방언형에 대한 전사와 함께 양질의 음성 자료를 확보하여 방언 지도 제작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본 방언 조사에서는 여러 명의 조사자가 도 단위로 권역별 지점을 분담하며, 직접 질문 조사 방법을 사용한다.
4. 이 지침은 <전국 방언 지도 제작> 사업에서 수행하는 방언 조사의 기준이 된다.

방언의 조사와 전사

1. 조사를 위하여

1) 일반 사항

(1) 조사 원칙

- ① 전체 조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질문지를 활용한 직접 질문 방식의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사는 기본적으로 질문지에 제시된 방식으로 진행하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실시한다.
- ③ 조사자는 조사에 앞서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언형에 대하여 사전 지식

을 충분히 갖춘다.

- ④ 자료 정리 시 음성 자료의 분절(segmentation)을 고려하여, 연속되는 응답 형 사이에 적당한 정도의 휴지를 확보한다. 따라서 조사자는 제보자가 하는 말의 완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 ⑤ 모든 방언형에 대해 기저형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어간 재구조화나 여러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기저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곡용형이나 활용형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저형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분석된 기저형은 [보기]와 같이 { } 속에 적어 둔다.

[보기]

밭이(=밭을, =밭에, =밭으로) {밭, 밭, 밧}

- ⑥ 단어의 형태나 의미(또는 용법)에 대한 설명은, [보기]와 같이 해당 방언형의 오른쪽에 (+)를 하고 관련 내용을 적는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기] 덕석(+네모난 것), 멍방석(+등근 것)

존칭/비칭 : 밥, 메(+존) / 머리, 대가리(+비)

신구형 : 쟁기(+신), 흘찌'~이(+구)

세대차 : 연장(+노), 농기구(+소)

빈도차 : 솔(+다), 정구지(+소), 부추(+소)

차용어 : 연장, 농기구(+표준어), 부추, 정구지(+경상도), 벵또(+일본어)

의심형(가급적 지양되어야 함.) : 고무래, 곰배(+?)

지시 대상이 없거나 그에 해당하는 명칭이 없는 경우 : *

지시 대상은 없으나 명칭이 있는 경우 : 삼층장&

(2) 제보자 선정 기준

- ① 주제보자는 '3대 이상 조사 지역에서 살아온 80세 이상의 토박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가능한 한 무학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등학교(=국민학교) 정도의 학력은 인정한다.
- ③ 오랜 기간 동안 외지 생활 경험이 있거나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④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⑤ 제보자는 기본적으로 군의 한쪽에 치우친 곳에서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가급적 왕래가 적은 곳이나 집성촌 등에서 제보자를 선정한다.

(3) 조사 계획과 조사 지점

- ① 2015년도에는 8월말까지 2지점에 대한 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사 지점 및 조사 일정은 지역별 연구 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략적인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연구원 간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권역	지역	연구 책임자	보조원
강원	강릉, 철원, 화천	김봉국	김유겸, 김수영(강릉)
충북	괴산, 단양	박경래	김경렬
충남	당진, 보령, 금산	박경래	이현주, 김수영(보령)
경북	울진, 김천, 영천	김덕호	김경숙, 김인규
경남	합천, 함양, 거제	김봉국	권창섭, 김인규(합천)
전북	진안, 부안, 정읍	임석규	신우봉, 오청진(정읍)
전남	강진, 고흥, 여수	이기갑	오청진, 정성경

2)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 ① 어휘 조사는 질문지의 질문문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 ②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책』 또는 그림 파일(노트북 또는 아이패드 등)

을 활용한다.

- ③ 어휘 조사에서는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을 구분한다. 이때의 필수 항목은 주어진 질문문 이외에 부가 질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형을 조사해야 하는 항목을 가리키며, 권장 항목은 주어진 질문문만으로 응답형을 조사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필수 항목에는 음영, 밑줄, 기호 *를 함께 넣어, 권장 항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기] 필수 항목

20101 벼*

- ④ 어휘 조사의 대상은 주 표제 항목과 부수 표제 항목이다. 부수 표제 항목은 주 표제 항목의 곡용형 및 활용형과 [보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질문지의 질문 방식을 조사 대상 방언형으로 적절하게 바꾸어서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질문지의 일반적인 질문 형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와 같이 주로 명명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기]와 같이 지역에 따라 자연스러운 구어체 형식으로 바꾸어 물을 수 있다.

[보기]

무엇이라고 합니까? / 무엇인가요? / 뭐이지요? / 뭐지요? / 뭐임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 어떻게 한다고 해요? /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 ⑥ 모든 질문문의 의문사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디입니까?” 등에서와 같이 밑줄을 그었다. 또한 곡용형을 조사할 때에는 “무엇이 (벚짚이), 무엇을(벚짚을), 무엇에(벚짚에)”와 같이 바꾸어 묻고, 활용형을 조사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무엇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등과 같이 바꾸어 질문한다.
- ⑦ 선택식 질문(예: 짚신을 삼는다/만든다/튼다/견는다)의 경우에는 선택된 방언형에 ○표 하고 방언형을 기록한다. 두 가지 이상이 쓰일 때에는 모두 기

- 록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록한다. 제시된 방언형 이외의 방언형으로 응답하면 그것을 적고 그 사실을 (+) 안에 밝혀준다.
- ⑧ 질문지에 조사 지시가 없어도 체언과 용언의 기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
- ⑨ 질문지에는 표제 항목의 질문문 다음에 <주의>라는 정보와 <옛>이라는 정보가 들어 있다. <주의>와 <옛>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자에게 주는 조사의 정보이므로 적절히 활용한다.

3) 세부 사항

(1) 단자음 말음 어간일 경우

- ① 재구조화된 어형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한다. 특히, 조사 항목이 격음으로 끝나는 어간일 때에는, 방언의 기저형을 반드시 확인 조사한다.

예) 벌/버리, 들/드르

예) 무릎/무릅, 밭/밭/밭, 꽃/꽃/꽃, 높다/노프다, 쫓다/쫓치다

- ② 결합하는 조사/어미에 따라 공용형/활용형이 불규칙할 때는 해당 방언형의 오른쪽에 (=)를 표시한 뒤 그 안에 해당 공용형/활용형을 적어 준다.

예) 밭이(=밭을, =밭에, =밭으로) {밭, 밭, 밧}, 춥다(=추워) {춥다}

- ※ 체언의 경우에는 조사 ‘-이’와 ‘-을’(또는 ‘-은’이나 ‘-으로’) 그리고 처격 ‘-에’ 결합형을 반드시 조사한다. 이는 자음군 말음 어간일 경우에도 동일하다.

- ※ 용언의 경우에는 자음 어미 ‘-다’(또는 ‘-고’나 ‘-지’)와 모음 어미 ‘-아/어’ 결합형을 반드시 조사한다. 이는 자음군 말음 어간일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자음군 말음 어간일 경우

- ① 재구조화된 어형인지의 여부를 확인 조사한다.

예) 몯/목/목씨, 닭/닭/달/닥, 지붕/지붕기/지붕크, 넓다/넙다

② 결합하는 조사/어미에 따라 곡용형/활용형이 불규칙할 때는 다른 조사/어미와의 결합형을 반드시 조사한다.

예 자루(=잘게, =잘기, =잘글) {자루, 잘기}

예 달라(=다리고) {달르다, 다리다}

(3) 표기된 방언형의 발음을 예측하기 힘든 경우에는 해당 방언형의 오른쪽에 (=) 표시를 하고 그 안에 해당 방언형의 '발음'을 적어 준다.

예 훌이불(=호디불/흔니불), 깨끗하다(=깨끄다다)

(4) 기타 여러 음운 현상이 관여하여 기저형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다른 조사/어미와의 결합형을 확인 조사하고, 해당 방언형의 오른쪽에 (=) 표시를 한 뒤 그 안에 조사한 곡용형/활용형을 적어 준다.

① 움라우트

예 배비 ⇒ 뱀이(=뱀, =뱀은) {뱀}

예 테기라고 ⇒ 텍이라고(=텍, =텍은) {텍}

예 하내기 ⇒ 하낙이(=하나, =하나만, =하낙은) {하나, 하낙}

② 전설고모음화

예 이씨면 ⇒ 이이면(=있고) {있다}

예 안진 ⇒ 앓인(=앓고) {앓다} / 안진(=안지고) {안지다}

③ 조음위치동화

예 박꼬 ⇒ 박고(=박아) {박다} / 박고(=박아) {박다}

④ 자음군단순화

예 박꼬 ⇒ 박고(=박아) {박다}

(5) 음장이 실현될 경우

음장	전사 예
장음	말:
더 긴 장음	말::
단음	말

(6) 비모음화가 일어날 경우

① 비모음에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중간 물결 표시)를 하여 적어 둔다. 이때 (=)를 활용하여 표준어형을 제시할 수 있다.

예 바~아(=방아), 바~아(=방에)

예 노~이(=논이)

② 성조와 비음화가 동시에 실현되는 경우는 비음을 먼저 표시하고 이어 성조를 표시해 준다.

예 바~'아(=방아)

(7) 성조가 실현될 경우

① 방언 성조는 크게 저조, 고조, 상승조, 하강조, 저장조, 고장조로 나타나는 데 이들 모두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되, 고음(높은 소리)에 해당하는 음절에만 '로 성조를 표시한다.

성조소 \ 표기	성조 표기
저조	말(무표)
고조	말'
상승조	마알'
하강조	마'알
고장조	마'알'
저장조	마알

② 비성조 방언이지만 성조의 차이가 느껴질 만큼 높낮이의 차이가 심한 경우는 (+)안에 그 사실을 밝힌다.

[보기] 배(梨)+가 : 배가(+성조 방언은 아니지만, ‘배’가 높게 실현됨)

4) 녹음

(1) 녹음 환경

- ① 양질의 음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조사 시 소음을 최소화한다.
- ②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이 동시에 발화되어 겹치지 않도록(조사자가 제보자의 말에 동조하는 “예, 예 맞습니다.” 등) 주의하고, 자연적인 소음(매미 소리, 바람 소리)이 녹음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 ③ 녹음기의 전원은 건전지와 현지의 전원을 적절히 활용한다.

(2) 녹음 장비와 입력 조건 설정

- ① 음성 녹음 기자재는 Maranz PMD 660이나 PMD 661로 한다.
- ② 양질의 음성 자료 보존을 위해 음성 입력은 모노(mono)로 한다.
- ③ 표준 주파수는 녹음기 뒷면에서 표준 모드 SP 16Khz로 고정한다.
- ④ 녹음기 뒷면의 MANUAL과 AUTO(AGC), MIC LIMITER 가운데 MANUAL을 선택한다.
- ⑤ db 설정은 녹음기 뒷면에서 0db와 20db 가운데 0db를 선택한다.
- ⑥ 음성 입력 음량 수준은 7~8 정도로 고정한다.
- ⑦ 녹음할 때의 스피커 음량 수준을 반드시 0으로 한다.

2. 전사를 위하여

1) 파일 변환과 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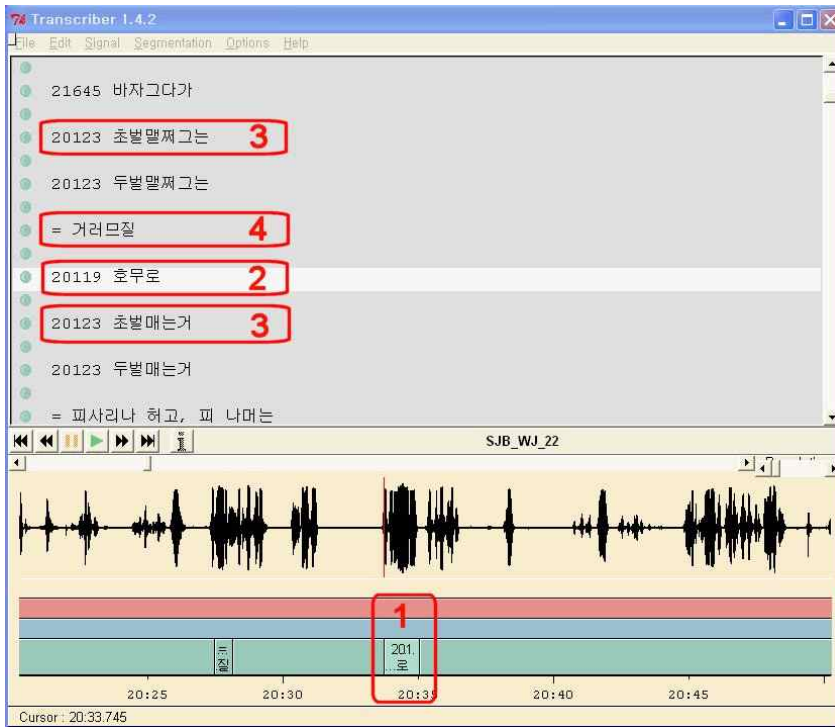
(1) 파일 변환 도구의 사용 방법

- ① 디지털 음성 변환을 위한 프로그램은 GoldWave 또는 Cool Edit Pro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 ② 파일 변환 과정에서 GoldWave의 경우 채널은 1(mono)로 샘플링 비율은 16,000Hz(=16KHz)으로 하고, Preset quality setting은 Manual, Duration은 2시간 10분으로 설정한다.

(2) 전사 도구의 사용 방법

- ① 전사 도구는 Transcriber(Transcriber) 1.4를 사용한다.
- ② Transcriber 1.4의 옵션에서 General options의 Encoding 설정을 반드시 Unicode(UTF_8)로 설정해야 하고 Language는 Korean으로 설정해야 한다.
- ③ 이 설정 결과는 반드시 Options의 Save configuration에서 저장하고 완료 를 확인해야 한다.
- ④ 전사할 때 분절(segmentation)한 구간을 반복하여 청취하려면 Signal의 PlayBack mode에서 Loop on segment or selection after a pause로 설정한다.
- ⑤ 음역과 파동의 조정은 Signal의 Control Panel에서 Vertical zoom으로 설정한다.
- ⑥ 전사할 때 구간 상하 이동을 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키와 ↑키를, 시작과 정지는 Tab 키를, 구간 통합은 Shift+Backspace 키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Transcriber의 실제 이미지(분절과 전사의 실제) : 아래 그림에서 ‘1 부분’은 조사 항목 번호가 ‘20119’임을 보여준다. 그 표제 항목 ‘호미’가 발화된 부분의 음성을 기식군 단위로 분절하고 그 분절 부분을 전사한 것이 “호무로”인데 그것이 ‘2 부분’에 나타나 있다.



(3) Transcriber 파일은 000.trs로 나타나며, 파일 내용에는 ‘항목번호-응답형 표기(형태음소 전사)-기저형’을 적는다. 특히 곡용형/활용형이 여럿일 경우, 가장 마지막 해당 항목에만 기저형을 적는다.

- 예) 21001 입술
 21001 입술기
 21001 입술글
 21001 입술만 {입술기}

※ trs 파일에 있는 위의 내용을 추후에 정렬(sorting)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필요하다면 조사 후 파일 변환과 전사 방법에 대하여 연구원과 조사원의 교육을 할 수 있다.

2) 일반 사항

- (1) 조사할 때는 질문지에 전사하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Transcriber를 이용하여 전사한다.[가급적 키보드상의 기호로만 입력한다.]
- (2) 동일한 응답형이 여럿 있을 경우, 양질의 음성형 하나를 선택하여 전사한다.
- (3) Transcriber 전사에서는 곡용형/활용형과 기저형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곡용형/활용형은 형태음소 전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식군 단위로 분절한다.
 - ② 기저형은 곡용형/활용형 다음에 한 개의 빈칸을 두고, '{ }' 안에 표시한다. 특히 지도 작성에서 실제 필요한 기저형은 체언의 경우에 단독형을, 용언의 경우에 어미 '-다'의 결합형을 적는다.
 - 예 꽃이라고 {꽃}
 - 예 부엌이 {부엌}
 - 예 안저 {안저다}
 - 예 건져 {건지다}
- (4) 조사할 때 적어 둔 곡용형/활용형 및 기저형 정보는 Transcriber에서 다음과 같이 전사한다.[실제 Transcriber 파일에서 '나무(=낭기, =낭글) {나무, 낭기}'은 아래에 화살표 이하처럼 전사한다.]

예 나무(=낭기, =낭글) {나무, 낭기}

⇒ 22922 나무

22922 낭기

22922 낭글 {나무, 낭기}

※ 이를 추후에 정렬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22922 나무 | 낭기 | 낭글 {나무, 낭기}

(5) 곡용/활용이 규칙적인 경우에는 기저형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편의상, 이하에서는 ‘돌(=돌키, =돌클)’을 ‘돌 | 돌키 | 돌클’로 바꿔 적는다. ‘|’는 입력하는 기호가 아니며 Transcriber에서 정렬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호이다.]

예 사램이라고 | 사람은 {사람}

예 주막걸 | 주막걸은 {주막걸}

예 돌 | 돌키 | 돌클 {돌ㄱ}

예 쫓인 | 쫓는다 {쫓다}

예 안저 | 안저고 {안저다}

예 건저 | 건지고 {건지다}

(6) 곡용/활용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기저형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예 자루 | 잘기 | 잘글 {자루, 잘기}

예 나무만 | 낭기 | 낭글 {나무, 낭기}

예 밧이 | 밧을 | 밧에 | 밧으로 {밧, 밧, 밧}

예 달라 | 다리고 {달르다, 다리다}

예 돕다 | 도우니 | 도와 {돕다, 도우다}

(7) 모든 전사는 한글로 하되 형태를 밝혀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언형의 발음을 예측하기 힘들거나 ‘밥하고’, ‘답사, 안고’와 같은 어형에서 격음화나 경음화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그 발음을 (=) 안에 병기한다.

예) 훌이불(=호디불/흔니불)

예) 밥하고(=바바고), 깨끗하다(=깨끄다다), 답사(=답사), 안고(=안고)

(8) 곡용형/활용형은 기식군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여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 식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그 실현이 하나의 기식군(즉 하나의 발화 단위)으로 판단되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절 경계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 틀바를 이용하여 파형을 확대한 다음 적절한 곳에서 분절한 다음 전사한다.]

예) 이런 거는 ⇒ 이런거는, 꽃이라고 해 ⇒ 꽃이라고해
결혼 잔치 ⇒ 결혼잔치

(9) 단어의 형태나 의미(또는 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이 해당 방언형의 오른쪽에 (+)를 하고 관련 내용을 적어 둔다.

예) 덕석(+네모난 것), 멍방석(+둥근 것)

예) 존칭/비칭 : 밥, 메(+존) / 머리, 대가리(+비)

예) 신구형 : 쟁기(+신), 훌찌~'이(+구)

예) 세대차 : 연장(+노), 농기구(+소)

예) 빈도차 : 솔(+다), 정구지(+소), 부추(+소)

예) 차용어 : 연장, 농기구(+표준어), 부추, 정구지(+경상도), 도시락, 벤또(+일본어)

예) 의심형 : 고무래, 곰배(+?)

예) 지시 대상이 없거나 그에 해당하는 명칭이 없는 경우 : *

예) 지시 대상은 없으나 명칭이 있는 경우 : 삼층장&

(10)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한다.

(11) 조사 항목과 일치하지 않거나 조사 항목에 없는 방언형이 조사되었을 경우, 조사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목번호로 @을 부여하고 (전사) 기준에 따라 전사한다.

3) 세부 사항

(1)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24자 외에 ‘으’(아래아)나 용언 어간말 ‘ㄹㅎ’은 각각 해당 음절 뒤에 기호 ‘/’를 두어 ‘오’나, ‘ㄹㅎ’과 구별한다.

① 으(아래아) ⇒ 오/

예 불바 ⇒ 불/아

② 아이다(아니다) ⇒ 아~이다

③ 은치(여치) ⇒ 이은치

④ 으(쌍아래아) ⇒ 요/

예 으둡 ⇒ 요/둡/

⑤ ㄹㅎ ⇒ ㄹㅎ/

예 걸꼬 | 걸어 {걸/다}

(2) 단모음 표기

① ‘에(e)’와 ‘애(ɛ)’, ‘으(i)’와 ‘어(ə)’가 변별되지 않으면 표준어에 준하여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준다.

예 ‘테’(輪): 테(+‘에’)와 ‘애’가 변별 기능이 없음, 또는 모음 비변별)

‘태’(胎): 태(+‘에’)와 ‘애’가 변별 기능이 없음, 또는 모음 비변별)

예 ‘글’(書): 글(+‘으’)와 ‘어’가 변별 기능이 없음, 또는 모음 비변별)

‘걸’(羊): 걸(+‘으’)와 ‘어’가 변별 기능이 없음, 또는 모음 비변별)

② ‘위’의 경우는 단모음 [ü]로 실현되거나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준다. 단, 하향이중모음 [uy]는 ‘우이’로 전사한다.

예 귀(耳) 귀(+단모음) - 단모음일 때

귀(耳) 귀(+이중모음) - 상향이중모음일 때

귀(耳) 구이(+이중모음) - 하향이중모음일 때

- ③ ‘외’의 경우는 [ö]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며,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고 [wɛ]로 실현되면 ‘왜’로 전사한다. ‘we’와 ‘wɛ’가 구별되지 않을 때는 표준어에 준하여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준다. 그리고 하향 이중모음 [oy]는 ‘오이’로 전사한다.

예 외가(外家): 외가(+단모음 ‘외’)

외가(外家): 웨가

외가(外家): 왜가

외가(外家): 외가(+이중모음 we)

외가(外家): 오이가(+하향이중모음)

(3) 이중모음 표기

- ①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i]로 발음될 때는 한글맞춤법에 준해 ‘의’ 또는 ‘이’로 적는다.

예 의: [힌떡] ⇒ 힌떡, [무니](紋) ⇒ 무니, [떠운다](浮) ⇒ 띄운다

예 이: 모디(마디), 보디(바디)

- ②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i]로 발음될 때는 발음대로 적는다.

예 [흔떡](힌떡) ⇒ 흔떡

- ③ 자음에 후행하는 ‘의’가 하향이중모음 [iy]로 발음될 때는 두 음절로 적는다.

예 그이[kiy], 문드이[mundiy]

- ④ 선행자음이 없는 ‘의’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 의사[iysa], 이사[isa], 으사[isa]

- ⑤ 관형격 조사 ‘의’는 소리대로 적되 선행요소와 분절한다.

예 사람의[-iy], 사람에[-e], 사람의[-i], 사람이[-i]

- ⑥ 기타 하향이중모음 : [uy, oy, ay, əy] 등의 하향이중모음은 ‘우이, 오이, 아이, 어이’와 같이 두 음절로 적는다.

예 바우이[pauy], 바꾸이[pak'uy], 고이기[koygi], 사이[say]

- ⑦ [ʧa], [ʧə]: 어간 기본형에 따라 [ʧa]는 ‘오ㅏ’로, [ʧə]는 ‘우ㅑ’로 전사한다.

예 말로ㅓ | 말류고 {말류다}

예 뚜ㅓ | 뛰고 {뛰다}

(4) 표준어에 없는 자음군 표기

① 용언의 경우에 자음군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예 걸꼬 | 걸어 {걸다}, 몽꼬 | 몽겨 {몽기다}, 양꼬 | 양겨 {양기다}, 삼꼬 | 삼마 {삼미다}, 농꼬 | 농아 {농하다}, 음꼬 | 음서/음써 {음시다/음씨다}

② 체언의 경우에 자음군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예 돌만 | 돌키 | 돌클 {돌키}

예 지붕만 | 지붕기 | 지붕글 {지붕기}

(5) 운율적 요소(음장, 성조 등)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 음장 방언의 장음은 ‘:’를 이용한다. 음장의 길이가 더 길 때에는 ‘::’를 활용한다.

② 성조 방언의 성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Transcriber로 전사할 때 기호 ‘는 영문 자판의 작은따옴표를 이용한다.]

표기 성조소	성조 표기
저조	말(무표)
고조	말'
상승조	마알'
하강조	마'알
고장조	마'알'
저장조	마알

③ 비성조 방언이지만 높낮이의 차이가 심한 경우는 (+) 안에 그 사실을 밝힌다.

예 배(梨)+가 : 배가(+성조 방언은 아니지만, ‘배’가 높게 발음됨)

(6) 음소 대립이 상실된 경우① 경상·전라 방언의 ‘에’와 ‘애’, ② 경상 방언의 ‘으’와 ‘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① 대응 표준어가 있는 방언형은 표준어에 준하여 표기한다. 가령, 대응 표준어가 ‘에, 여, 어·오(음라우트의 피동화음)’인 경우에는 ‘에’로, ‘애, 야, 아(음라우트의 피동화음)’인 경우에는 ‘애’로 표기한다.

예) 베(벼), 에미(어미), 계기(고기), 뽀뽀(뽀뽀), 애비(아비)

② 대응 표준어가 없고 어원이 불확실한 경우, ‘에/애’는 ‘에’로, ‘으/어’는 ‘어’로 표기한다.

예) 개고탕이 ⇒ 게고탕이(자치기)

(7) 음절자의 경계와 형태소의 경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빨거다(빨강다), 오알머니(외할머니), 가조다(가져오다)

※ 일치시킬 수 있는 경우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드로다 ⇒ 들오다(들어오다), 일라다 ⇒ 일나다(일어나다),

끄란따 ⇒ 끝안다, 드랏다 ⇒ 들았다

※ 색채/모양형용사류는 형태음소적 표기가 가능하더라도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팔허다 ⇒ 파러다(파랳다), 똥글하다 ⇒ 똥그라다

(8) 복합어 경계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난 경우에는 분철 표기를 하되 음라우트를 반영한다. 체언 어간에 주격·서술격조사 등이 결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리고 조음위치동화도 반영한다.[아래의 ‘/’는 이 지침에서 대등한 단어를 나열할 때 쓰는 기호이며 Transcriber에 입력할 때 쓰는 기호는 아니다.]

예) 짹짹(짹짹), 넉넉(넉넉히), 꿩기다(꿩기다), 녀기다/님기다(님기다), 앵기다/앵기다(앵기다), 직기다(죽기다), 찹기름/챙기름(참기름), 찹빚(참빚)

예) 사램이 | 사람도 {사람}

※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음위치동화까지 반영하여 소리대로 적는다.

예) 논구다 ⇒ 농구다 {농구다}

(9) ‘ㅎ’말음 용언과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에 음절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축약된 음절수에 맞게 적은 후, 장음일 경우에는 음장을 표시한다.

예) 놓으면 ⇒ 노:면(=놓고, 이하 동일), 쌓아 ⇒ 싸: 낳은 ⇒ 난:, 지어 ⇒ 저:, 누어 ⇒ 누:, 묵어야 ⇒ 무:야

※ ‘이+어→이이’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이이’로 적는다.

예) 비이갓고, 피이놓고, 잦이있다

※ 비모음화와 모음동화가 적용된 어형은 원 음절수에 맞게 적는다.[기호 ‘~’는 문자표 속의 기호(223c)가 아니라 자판(esc 밑)에 있는 것이다.]

예) 바~아(=방에)

(10) ‘X하/허+아→X해/X애’의 경우에는 ‘X해’로 통일한다. 아울러 ‘해>히’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는다. 한편 어간이 ‘ㅎ’말음인 경우에는 ‘Xㅎ애’로 적는다.

예) 만애/많애/마내 ⇒ 만해(=만하고), 갠찬애/갠참애/갠차내 ⇒ 갠찬해(=갠찬하고) ; 만혔어, 갠찬혔다

예) 많애(=많고), 갠참애(=갠참고)

(11) ‘머라칸다(경상), 머라간다(전라)’는 경상방언과 전라방언을 구분하여 각각 ‘머라칸다(경상), 머라한다(전라)’로 적는다. ‘가라칸다(가라고 한다)’류도 동일하게 적되 띄어 쓴다.

예) 간다칸다 ⇒ 간다 칸다(경상), 간닥 한다(전라)

가라칸다 ⇒ 가라 칸다(경상), 가락 한다(전라)

(12) 복합어의 사이시옷 관련

① 선행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의 두음이 ‘평음→경음’을 겪으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런데 후행 요소의 두음이 해당 방언에서 경음, 격음으로 실현되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예) 나루까 ⇒ 나룻가(나루터), 깨단 ⇒ 껏단,

자리갯끈 ⇒ 자리개끈, 뱃터 ⇒ 배터

- ②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의 두음이 경음으로 실현될 때에는 해당 방언에 따라 경음 또는 평음 표기를 한다. 즉 후행 요소의 단독형이 경음으로 실현되면 경음 표기, 평음으로 실현되면 평음 표기를 한다.

예) 열씨 ⇒ 열쇠(단독형이 ‘쇠’인 경우) / 열씨(단독형이 ‘씨’인 경우)

눈까남(눈가눔) ⇒ 눈가남(단독형이 ‘가남’) / 눈까남(단독형이 ‘까남’)

(13) 경음 표기(한글맞춤법 제5항, 제13항)

- ①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경음은 경음으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 ②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ㄱ, ㅂ’ 받침 뒤의 경음은 평음으로 적는다.

예) 딱지, 갑자기

- ③ 같은 소리 또는 비슷한 소리가 반복될 때에는 ‘ㄱ, ㅂ’ 뒤라도 경음 표기를 한다.

예) 딱딱, 씹씹, 씹쓸하다, 짹짹하다

(14) ‘ㅅ’불규칙 용언은 자음 어미 앞에서 ‘ㅅ’을 적는다.

예) 구꼬, 군는다(焔) ⇒ 굶고 | 굶는다 {굶다}

예) 바꾸꼬, 바꾼는다(換) ⇒ 바꿨고 | 바꿨는다 {바꿨다}

(15) 형태소 경계에서, 전설모음화(으>이)는 표기에 반영하되 원순모음화(으>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전설모음화 : 안진(坐) ⇒ 앉은(×), 앉인(○) {안지다}

예) 원순모음화 : 자분(捕) ⇒ 잡운(×), 잡은(○) {잡다}

(16) 형태소 경계에서, 조음위치동화와 자음군단순화는 표기에 반영한다.

예 조음위치동화 : 박꼬 ⇒ 박고 | 받아 {받다}, 박고 | 박아 {박다}

예 자음군단순화 : 박꼬 ⇒ 박고 | 밝아 {밝다}

(17) 그 밖의 경우는 한글 맞춤법에 준하여 적는다.

3) 방언별로 주의해야 할 표기

(1) 충청방언의 ‘했시유, 했슈, 했유’는 ‘했유’로 통일한다.

(2) 제주방언

① -암스/엄스- :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스’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고 자음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어미의 두음을 경음으로 적는다. 그리고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암시/엄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 잡암서(잡-암스-어)

예 잡암찌(잡-암스-저), 잡암쭈(-주), 잡암꼬(-고), 잡암쭈다/잡암쭈과(-수-)

예 잡암시내(잡-암스-이나)

② -앗/엇- : 형태음소적 표기를 하되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아시/어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 잡앗어 ; 잡앗저, 잡앗주, 잡앗고, 잡앗수다/잡앗수과 ; 잡아시나

③ 표준어 ‘해(<하여)’에 대응하는 표기는 ‘헤’로 한다.

④ 처격 조사 ‘디’는 ‘딴’으로 적지 않고, ‘디’로 적는다.

(3) 경상방언에서 ‘-이’가 결합된 종결어미는 ‘-은대이, -래이, -재이’ 등과 같이 표기한다.

(4) 표준어 ‘-으니까’의 방언형은 음성적으로 구분이 어려우면 가급적 ‘-응께, -응게, -응께네, -으니까’ 등으로 표기한다.

(5) 표준어의 조사 ‘밖에’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백이, 백에’ 등으로 표기한다.

[붙임] 자료 관리

1) 조사 지역 약호

- ①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 지역마다 고유의 지역 약호를 부여한다. 조사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문자 세 자리를 대문자로 표시한다. 첫째 자리는 국가 구분자로 S를 사용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 도명(道名)이나 광역 지역명의 약어를 사용한다. 도명이나 광역 지역명의 약어는 여권에 사용하는 약어를 기준으로 한다.
- ② 각 도의 시, 군의 약어는 해당 지역 담당 위원이 영문 대문자 두 자리로 부여한다. 행정 단위의 구는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적인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서울특별시와 평양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그 광역시가 속한 도에 포함하여 지역 약호를 부여한다. 단, 지역적인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SU 강남구GN 강동구GD
강북구GB 강서구GS 관악구GA 등
- ④ 해당 지역에서 조사된 파일에는 [보기]와 같이 조사 지역의 약어 다섯 글자와 조사된 순서에 따라 두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보기] 국가 및 도명_군명_테이프 번호

SJB_WJ_01.wav (한국 전라북도 완주군 테이프 번호 1의 음성 파일)

SJB_WJ_01.trc (한국 전라북도 완주군 테이프 번호 1의 전사 파일)

2) 파일 관리

- ① 조사된 지역어는 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하여 음성 파일로 저장하고 각각의 음성 파일에 대응하는 전사 파일을 작성하여 CD/DVD에 저장한다.

② 조사된 지역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조사 지점별로 고유
의 폴더 이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완주군 반월리에서 조사한
녹음 테이프가 25개일 경우, 이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폴더 이름은 약어 부
여 방법에 따라“SJB_WJ”이 된다. 이 폴더 안에는 확장자 이름을 “wav”로
갖는 음성 파일 25개와 이들 각각과 동일한 파일명을 갖고 확장자가 “trs”
인 전사 파일 25개가 포함된다. 따라서 조사 테이프를 음성 파일로 변환한
파일은 “SJB_WJ_01.wav ~ SJB_WJ_25.wav”가 되고 이를 전사한 파일은
“SJB_WJ_01.trs ~ SJB_WJ_25.trs”가 된다.

[보기]

SJB_WJ_01.wav (한국 전라북도 완주군 테이프 번호 01의 음성 파일)

SJB_WJ_01.trs (한국 전라북도 완주군 테이프 번호 01의 전사 파일)

③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은 같은 폴더에 있어야 자료의 수정이나 처리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같은 번호를 갖는 두 파일은 짝을 지어 같은 폴더
에서 관리한다.

④ 음성 전사한 각 파일의 정보가 담긴 정보 파일은 한글 문서로 입력하여
“조사지역 약어.hwp”의 이름을 부여한다. 이 정보 파일에는 각각의 조사 테
이프가 가지는 정보를 테이프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입력한다.

[보기]

SJB_WJ.hwp (한국 전라북도 완주군 테이프 번호 01~25까지의 정보 파일)

3) 녹음 파일 및 CD/DVD(wav, trs 파일) 관리

① 음성 파일은 16,000hz wav로 변환된 원본 파일을 전사용 파일로 사용하
며,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한다.

② 16,000hz wav의 전사용 파일은 전사 도구로 전사한 전사 파일과 함께 짝
을 지어 CD/DVD에 보관한다.

- ③ 지역어의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이 들어 있는 CD/DVD에는 표식지를 붙여 보관한다. 표식지 규격은 3642A로 한다.(참고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내경의 지름이 큰 3642와 내경의 지름이 작은 3642A 두 가지 사이즈가 있음.)



- ④ 폼텍(Formtec) 잉크젯 CD 표식지(II)는 잉크젯 프린터 전용으로서 컬러 구현이 뛰어나고 내수성(물에 강한 성질)과 내광성(빛에 강한 성질)이 높은 장점이 있다.
- ⑤ 문구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http://www.formshop.co.kr>로 접속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정보 파일은 지역어 조사 자료를 활용할 때 찾고자 하는 조사 항목이 어느 파일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쉽게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항목의 번호까지 자세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 ① 지역어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파일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한다.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에는 공통 정보와 테이프별 정보 및 전사 정보가 포함된다.
- ② 지역어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파일은 “조사지역약호.hwp”로 한다.
- ③ 지역어 조사 결과에 대한 공통 정보는 다음의 [보기]와 같은 양식으로 정

거주지	중국 길림성 〇〇시 〇〇진 〇〇촌
선대 거주지	충청남도 연기군/중국 길림성 돈화시 마호현
직업	농업
경력	없음(부녀주임)
학력	무학(농민학교에서 한글 해독)
병역	무
제보자 소개 과정	1980년대 중국측 언어 조사 자료에 언급된 지역을 사전 답사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됨
제보자의 특기 사항	주제보자 임신철의 아내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이 또렷하고 힘이 있음

보조 제보자2

이름	〇 〇 〇
성별	〇
나이	〇〇세(19**년생)
출생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거주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선대 거주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직업	〇〇
경력	〇〇
학력	〇〇
병역	〇〇
제보자 소개 과정	〇〇
제보자의 특기 사항	〇〇
제보자의 음성 특징	〇〇

- ④ 방언 정보 파일에는 녹음된 각각의 테이프와 이를 wav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사한 trs 파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이 파일에는 [보기]와 같은 양식으로 녹음된 테이프 수만큼의 파일 정보를 기록한다. 파일이 25개이면 파일 번호가 01부터 25까지 25개의 내용이 하나의 파일로 관리된다.

[보기] ■정보 파일 내용

파일 번호 CJL_DH_00
 테이프 번호 00

조사자 ○ ○ ○
 보조 조사자 ○ ○ ○
 주제보자 이름 ○ ○ ○
 보조 제보자1 이름 ○ ○ ○
 보조 제보자2 이름 ○ ○ ○
 보조 제보자3 이름 ○ ○ ○

조사 일시 0000년 00월 00일 오전/오후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안방 등
 조사 내용 구술 발화-마을의 유래(정착 과정, 인적 구성),
 주변마을에 관련된 이야기, 혼례 관련 등.
 조사 시간 121분
 녹음기 Marantz PMD 660
 마이크 Marantz PMD 660 내장용

전사자 ○ ○ ○
 전사 일시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소요 시간 00시간 00분
 특기 사항 이따금 중국어 단어가 사용되었고, 이중언어
 사용지역에서 중국어가 녹음되어 있음.
 1차 점검자 ○ ○ ○
 1차 점검 일시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소요 시간 00시간 00분

특기 사항	의미 파악이 어려운 어휘와 표현이 간간이 있음.
2차 점검자	○ ○ ○
2차 점검 일시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소요 시간	00시간 00분
특기 사항	*****

⑤ 조사 일시와 조사 내용, 녹음 시간 및 전사 일시와 전사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보기]

조사 일시 : 2004년 8월 3일 오후
 조사 내용 : 어휘 20101 벼 ~ 20315 껍질
 녹음 시간 : 121분
 전사 일시 : 2004년 11월 12일 오전
 전사 시간 : 2시간 25분

5) 조사 결과 보고

연구 책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한 결과물에 대해 양적, 질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정리가 종료되면 12월까지 아래의 결과물들을 제출하고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 ①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파일 전량
- ② 보존용 16,000hz wav 파일과 전사 작업용 16,000hz wav 파일 및 전사된 trs 파일
- ③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양식 :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참조)
- ④ 조사된 질문지(제보자 조사표 포함)
- ⑤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별도 서식)

[첨부 3] <전국 방언 지도 제작>을 위한 제보자 조사표

(1) 강릉

조사자 이름	김수영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조사 기간	2015.8.14., 2015.8.18.-19		
제보자 이름	이 (여)	나이	79 세 (1936 년생)
출생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거주지	조사지와 같음	선대 거주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무학	병역	해당사항 없음
경력			
가족사항	남편, 자녀(아들 3, 딸 2)		
제보자 선정 과정	토박이 조건에 맞는 제보자로 섭외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 목소리가 작은 편			
조사 내용	어휘 등		
녹음기	SONY ICD-SX100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1. 강릉 IC와 인접한 마을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굴곡진 지형이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며 감자, 옥수수, 고추, 콩 등 밭농사를 주로 함. 2.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촌장을 맡아 일을 처리하는 풍습이 남아 있으며 제보자의 시아버지 또한 촌장을 맡았던 적이 있음. 또한 계모임 등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함.			

(2) 철원

조사자 이름	김유겸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강원도 철원군		
조사 기간	2015년 08월 13일, 08월 19일~20일		
제보자 이름	이 (남성)	나이	73 세 (1943 년생) *실제 나이 1939년 출생
출생지	강원도 철원군 내대리		
거주지	강원도 철원군 상사리	선대 거주지	강원도 철원군 내대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중퇴	병역 면제 (부상)	
경력			
가족사항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제보자 선정 과정	지인의 추천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 말이 상당히 빠름 - 피난 경력 있음.			
보조 제보자 이름	오	나이	72 직업 농업 학력
거주지	제보자와 동일 제보자와의 관계 배우자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Roland R-09HR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1. 강원도 철원군 상사리 2. 상사리와 내대리는 서로 인접하여 있음.			

(3) 화천

조사자 이름	김유겸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강원도 화천군		
조사 기간	2015년 08월 19일, 08월 25일		
제보자 이름	김 (여)	나이	78세 (1938년생)
출생지	강원도 화천군 사창6리		
거주지	강원도 화천군 사창6리	선대 거주지	강원도 화천군 사창6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국민학교 중퇴	병역 (해당사항 없음)	
경력			
피난 경력 있음.(충청도)			
제보자 선정 과정		지인의 추천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1. 전반적으로 발음 무난함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Roland R-09HR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1. 강원도 화천군 사창6리			
2. 주변에 군부대가 많음.			

(4) 단양

조사자 이름	김경열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응실		
조사 기간	2015년 8월 26일 ~ 9월 3일		
제보자 이름	조 (남)	나이	88세(1928년생)
출생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응실(어의곡리)		
거주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응실(어의곡리)	선대 거주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응실(어의곡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졸	병역	육군 4년(동해안)
경력			
가족사항			
제보자 선정 과정	단양군 일대를 사전 답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이장, 표준 발음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음.			
조사 내용	어휘 등		
보조 제보자			
녹음기	Marantz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5) 괴산

조사자 이름	김경열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하미전리		
조사 기간	2015년 8월 19일 ~ 23일		
제보자 이름	이 (남)	나이	85세(1931년생)
출생지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하미전리		
거주지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하미전리	선대 거주지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하미전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졸	병역	3년(경기도)
경력			
가족사항			
제보자 선정 과정	괴산군 일대를 사전 답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발음이 또렷함.			
조사 내용	어휘 등		
보조 제보자			
녹음기	Marantz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6) 보령

조사자 이름	김수영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조사 기간	2015.8.10.-11		
제보자 이름	이 (남)	나이	80 세 (1935 년생)
출생지	조사지와 같음		
거주지	조사지와 같음	선대 거주지	조사지와 같음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졸	병역 (복무지 철원)	(3년)
경력	보령 1리 이장		
가족사항	아내, 자녀(3남)		
제보자 선정 과정	토박이 조건에 맞는 제보자로 섭외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 한자어나 표준어를 비교적 잘 알고 있음.			
조사 내용	어휘 등		
보조 제보자 이름 이 나이 78세 (1937년생) 학력 초등학교 졸 거주지 조사지와 같음 제보자와의 관계 妻			
녹음기	SONY ICD-SX100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1. 주포면사무소 등이 있는 마을로 면의 중심지라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근처에 있음. 2.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평탄한 지형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임.			

(7) 당진

조사자 이름	이현주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조사 기간	2015년 08월 11일 ~ 08월 13일		
제보자 이름	안 (남성)	나이	80 세 (1936 년생)
출생지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거주지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선대 거주지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중학교 중퇴	병역 (복무지 전라남도 광주) (34개월)	
경력	특별한 경력 없음.		
가족사항	처, 아들 2, 딸 2		
제보자 선정 과정	마을 거주자 중 지인의 소개로 선정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상태 및 구강, 청력 상태가 상당히 양호함. - 11대 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타지역에 거주한 경력이 없음. 			
조사 내용	어휘, 문법		
보조 제보자	이름	나이	직업 학력
거주지			
녹음기	Marantz PMD66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는 은골이라 불리며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하였음. 2. 우강면은 대체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경향이 있었음. 			

(8) 금산

조사자 이름	이현주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상가2리		
조사 기간	2015년 08월 5일 ~ 08월 7일		
제보자 이름	강 (여성)	나이	83세 (1934년생)
출생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거주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상가2리	선대 거주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무학	병역	해당사항 없음
경력	일생을 농업에 종사함.		
가족사항	남편, 아들 3, 딸 2		
제보자 선정 과정	마을에서 즉석 면담 후 섭외		
<p>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치아 상태나 청력 등이 양호한 편. - .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졌으나, 보조 제보자와 서로 도와가며 무리 없이 진행함. 			
조사 내용	어휘, 문법		
보조 제보자	이름 곽 (남성)	나이 87세	직업 농업 학력 국졸
거주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상가2리		
녹음기	Marantz PMD66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p>조사 지점의 개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은 금산군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다른 도와의 경계가 없음. 2. 상가2리는 큰 도로와 맞대고 있는 마을이라는 특징이 있음. 			

(9) 진안

조사자 이름	신우봉	조사 장소	제보자 거주지
조사지	전라북도 진안군		
조사 기간	2015년 08월 30일 ~ 09월 01일(2박 3일)		
제보자 이름	홍 (남성)	나이	81 세 (1934 년생)
출생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농촌 마을)		
거주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선대 거주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생 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 력	국민학교 중퇴	병역 (복무지 강원도 철원) (3 년)	
경 력			
가족사항	아들 3, 딸 1		
제보자 선정 과정	3대 이상 해당 마을에 거주한 사람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에서 기식 섞인 소리가 나타남 - 최근에 한자를 배우고 있어서 한자어 어휘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음 <p>(다시 질문해서 지역 방언을 이끌어냄)</p>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Sony D-5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원연장 마을 2. 동남쪽으로 샷갯봉을 경계로 진안읍 단양리와 접하고, 서쪽은 마령면 덕천리와 접해 있음 3. 원연장 마을은 전라북도 사업인 '향토 산업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체험관을 짓고, 뒷산 산책로를 만들어 마을 이름을 꽃잔디 마을이라 명명하고 원연장 꽃잔디 축제를 열고 있음 			

(10) 부안

조사자 이름	신우봉	조사 장소	1. 제보자 거주지 2. 삼간리 경로당	
조사지	전라북도 부안군			
조사 기간	2015년 09월 05일 ~ 09월 07일(2박 3일)			
제보자 이름	김 (여)	나이	80세 (1935 년생)	
출생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신흥부락(농촌 마을)			
거주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신흥부락	선대 거주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국민학교 졸업		병역 (해당사항 없음)	
경력				
가족사항				
제보자 선정 과정		해당 마을의 방언을 잘 구사하며, 3대 이상 해당 마을에 살고 있는 제보자를 선정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1. 자신 없는 대답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려서 발화하기 때문에 음성이 작게 녹음됨				
2. 자신 있는 대답을 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발화하려고 노력함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다시 요청함)				
조사 내용	어휘			
보조 제보자	이름	나이	직업	학력
거주지	제보자와의 관계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Sony D-5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1.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2. 마을을 따라 하천이 흐르며 들이 넓게 펼쳐져 있어 주로 벼농사를 짓는다.				

(11) 정읍

조사자 이름	오청진	조사 장소	제보자 거주지
조사지	전북 정읍시		
조사 기간	2015년 8월 11일 - 2015년 8월 13일		
제보자 이름	김운수(남)	나이	81세(1935년생)
출생지	전북 정읍시 북면 마정리		
거주지	전북 정읍시 북면 마정리	선대 거주지	전북 정읍시 북면 마정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중학교 졸업	병역	해당사항 없음
경력			
가족사항			
제보자 선정 과정	정읍시청에서 지역을 추천하고 이장님을 연결해 주심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음성이 작고 말을 흐림, 보조 제보자의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교정 하심		
조사 내용	어휘		
보조 제보자	이름 유 (남)	나이	70세(1946년생)
	직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졸업
	거주지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평촌	
	제보자와의 관계 제보자의 조카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정읍시는 전형적인 도농혼합 지역으로 조사지인 북면은 시 중심지에서 벗어난 농촌 마을이다. 인근에 바다가 없어서 바다 관련 어휘는 많이 사용하지 않은 편이며, 마을 내 70~80대 나이 드신 남자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고, 일과 중에는 마을 회관과 정자에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았다.		

(12) 고흥

조사자 이름	오청진	조사 장소	제보자 거주지
조사지	전남 고흥군		
조사 기간	2015년 8월 18일 - 2015년 8월 20일		
제보자 이름	김 (남)	나이	83세(1933년생)
출생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거주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선대 거주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졸업	병역	해당사항 없음
경력			
가족사항			
제보자 선정 과정	집성촌이 있는 지역의 이장님이 연결해 주심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음성이 작고 응답에 대해서는 경향이 있음		
음성	작고	응답에 대해	확정적이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조사 내용	어휘		
보조 제보자	이름 김 (남)	나이 71세(1945년생)	직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졸	거주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제보자와의 관계 이웃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Marantz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p>고흥군은 남북으로 긴 지형의 고흥반도에 있으며 조사지역인 포두면 서촌은 바다와 가깝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경주 김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입구에는 400년 가까이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서 마을 내 남녀 어르신들이 거기에 모여서 마을 정보를 공유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신다.</p>		

(13) 여수

조사자 이름	정성경	조사 장소	제보자 거주지
조사지	전라북도 진안군		
조사 기간	2015년 8월 6일~7일(1박 2일), 8월 11일(당일), 8월 13일~14일(1박 2일)		
제보자 이름	오 (남성)	나이	84 세 (1932 년생)
출생지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1동		
거주지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1동	선대 거주지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1동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졸업	병역 (복무지 강원도 화천) (3 년)	
경력			
가족사항	아들 2, 딸 2		
제보자 선정 과정	3대 이상 해당 마을에 거주한 사람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조사의 목적은 잘 이해함. - 술을 좋아하여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으며 성격이 급하여 설명하고 있는 도중이 대답을 하여 경우가 많음. - 지급받은 녹음기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급하게 녹음기를 교체하였음.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래는 1986년 여천시 주삼동이었다가 1998년 여수시 주삼동으로 변경됨 2. 남쪽으로는 여수 시청과 10분 거리에 있으며 동쪽에는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인접해 있음. 3. 마을을 들어가는 도로 옆은 편의점, 음식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도시적인 느낌이 드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을 띄고 있음. 봉계1길 마을 뒤에 자리잡은 전봉산은 진달래축제로 유명한 영취산과 산줄기가 연결되어 있음. 			

(14) 강진

조사자 이름	정성경	조사 장소	제보자 거주지
조사지	전라남도 강진군		
조사 기간	2015년 8월 10일, 8월 20일 ~ 8월 23일(4일간)		
제보자 이름	이 (남)	나이	84세 (1932 년생)
출생지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죽현 마을(농촌 마을)		
거주지	선대 거주지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죽현 마을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죽현 마을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졸업	병역	(복무지 경기도 포천) (3 년)
경력			
가족사항			
제보자 선정 과정	해당 마을의 방언을 잘 구사하며, 3대 이상 해당 마을에 살고 있는 제보자를 선정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제보자가 발음을 여러 번 똑똑히 하였음. 2. 일상적인 어휘도 잘 생각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보조제보자의 도움을 받았음. 3. 대답을 중앙어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방언형을 부탁하여 녹음함. 			
조사 내용	어휘		
보조 제보자 이름	김	나이	83
직업	농업	학력	초등학교 졸업
거주지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죽현 마을 제보자와의 관계 배우자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죽현 마을 2.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분지 형태로 평야가 있어 주로 벼농사를 지음. 3. 뒤쪽으로 영암 월출산이 펼쳐져 있으며 옆에 있는 옴천면은 지리산에서 뺏어온 산줄기가 여수, 순천, 장흥을 지나 연결되어 있어 길이 정비되기 전에는 깊은 산골이었을 것으로 보임. 			

(15) 거제

조사자 이름	권창섭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경상남도 거제시		
조사 기간	2015년 08월 11일 ~ 08월 13일(2박 3일)		
제보자 이름	이 (여)	나이	84세 (1933년생: 실제로는 1932년생)
출생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문동리		
거주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선대 거주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문동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초졸	병역 (해당사항 없음)	
경력			
가족사항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거주. 이남 삼녀가 있음.			
제보자 선정 과정		지인의 추천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반적으로 발음 무난함 2. 다소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음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Edirol R-09HR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2. 거제시 동남쪽에 위치한 해안 마을 3. 거주민들은 주로 농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나, 최근에 관광지(몽돌해수욕장)가 되면서 민박 및 펜션이 급증하였다. 			

(16) 함양

조사자 이름	권창섭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지	전라북도 함양군		
조사 기간	2015년 08월 24일 ~ 08월 25일(1박 2일)		
제보자 이름	김 (남성)	나이	81 세 (1935 년생)
출생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거주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선대 거주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중학교 졸업	병역 (복무지 부산) (30개월)	
경력			
가족사항	3남 4녀 중 장남이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삼남 일녀를 낳음		
제보자 선정 과정	지인의 추천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 발음이 상당히 정확함 - 옛날 말과 요즘 말에 대한 인식이 강함			
보조 제보자 이름	박	나이	82
거주지	제보자와 동일	직업	농업
조사 내용	어휘	학력	초졸
녹음기	Edirol R-09HR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1.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2. 서쪽으로는 법화산(992m)과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임천이라는 하천이 흐름. 동쪽으로는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와 인접 3. 위아래로 긴 함양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위치. 휴천면 소재지와 유림면 소재지가 인접한 생활 거점			

(17) 합천

조사자 이름	김인규	조사 장소	마을 경로당 및 제실
조사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조사 기간	2015년 08월 11일 ~ 08월 14일(3박 4일)		
제보자 이름	이 (남성)	나이	79 세 (1936 년생)
출생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농촌 마을)		
거주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선대 거주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고졸	병역 (복무지 강원도 홍천) (3 년)	
경력	농업에 종사했으며, 과거 양잠업을 한 이력도 있음.		
가족사항	처, 아들 2, 딸 2		
제보자 선정 과정	마을에 있는, 성산 이씨 제실 '운포정'의 유사 이 어른의 추천		
<p>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아 상태나 청력 등이 양호하고, 음성도 비교적 또렷한 편임. - 명석한 편이며, 몇 대에 걸쳐 조사지에 거주함. -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타지역에 거주한 경력이 없음. 			
조사 내용	어휘, 문법		
보조 제보자 이름	문 (여성)	나이	74세(1942년생)
국적	국적 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녹음기	Marantz PMD66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는 고지대에 위치한 농촌임. 2. 성산 이씨 집성촌으로 수 개의 제실이 있음. 			

(18) 울진

조사자 이름	김인규	조사 장소	마을 경로당
조사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조사 기간	2015년 08월 18일 ~ 08월 21일(3박 4일)		
제보자 이름	남 (남성)	나이	78 세 (1938 년생)
출생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농촌 마을)		
거주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선대 거주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국졸	병역 (복무지 강원도 홍천) (34개월)	
경력	농업 이외의 특별한 경력 없음.		
가족사항	처, 아들 3, 딸 1		
제보자 선정 과정	울진문화원의 소개로 섭외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 양호. -. 6대조부터 조사지에 거주함. -.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타지역에 거주한 경력이 없음.			
조사 내용	어휘, 문법		
보조 제보자	이름	나이	직업 학력
거주지			
녹음기	Marantz PMD66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1.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는 평지에 위치한 농촌임. 2. 마을에 거북이를 닮은 산이 있고, 마을의 위치가 거북이의 꼬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명 '구미마을'로 불림.			

(19) 영천

조사자 이름	김경숙	조사 장소	1. 제보자 거주지
조사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언하동 새미2길 83		
조사 기간	2015년 08월 22일 ~ 08월 29일(출장조사)		
제보자 이름	이 (남)	나이	75세 (1942 년생)
출생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자양 용하동(농촌지역)		
거주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언하동	선대 거주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용하동(자양댐 수물지)
생업	농업	선대 생업	농업
학력	무		
경력	병역 (3년, 강원도 27사단근무)		
가족사항	아들2 딸2		
제보자 선정 과정	해당 마을의 방언을 잘 구사하며, 3대째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제보자를 선정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p>1. 발음이 분명하고 청각도 양호하나 다소 성격이 급해 지긋이 오랜 시간 조사하는 것을 싫어함</p> <p>2. 바쁜 농사철에 시간을 내야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한가한 저녁을 이용해 조사함으로써 갈수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음</p> <p>3. 특히 옛날과 오늘날의 어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답해 줌</p> <p>4. 보조제보자를 아내인 할머니로 정함으로써 모르는 어휘나 막힘이 있을 때 옆에서 거들어 줌으로써 조사가 순조로웠음</p>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Sony D-5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p>1.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언하동</p> <p>2. 대구 근교로 과수 농업을 하며 시청 및 관공서와도 가까우며 임고서원 등 문화유적지도 끼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임. 도시고속도로 등 교통이 사통팔달 트인 곳으로 사람왕래가 많음</p>		

(20) 김천

조사자 이름	김경숙	조사 장소	제보자 거주지
조사지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계2리 582		
조사 기간	2015년 08월 13일 ~ 08월 16일(2박 3일)		
제보자 이름	편 (여성)	나이	80 세 (1935 년생)
출생지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계2리 (농촌 마을)		
거주지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계2리	선대 거주지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계2리
생업	농업(벼농사, 과일농사)	선대 생업	농업
학력	무학	병역 (복무지)	() (년)
경력			
가족사항	아들 2, 딸 3		
제보자 선정 과정	4대부터 150년 이상 해당 마을에 거주한 사람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	<p>제보자의 음성 특징 및 특기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이 분명하고 청각도 양호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답해 줌 - 무학자이며 다른 문화적 체험이 많이 없는 관계로(예컨대 강이나 바닷가에 살아본 적 없음), 관련어휘 명칭을 모르는 것이 많아 조사지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적합하나, 관련 어휘 수집에서 다소의 어려움을 겪음 - 사라진 지 오래된 전통적인 문화생활과 관련된 어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음(특히 현재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자료 어휘일 경우,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 		
조사 내용	어휘		
녹음기	Sony D-50	기록 매체	Transcriber 1.4.2.
조사 지점의 개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천 어모면 옥계2리 2. 지금까지는 김천의 오지 지역으로 농촌의 지역적 특색이 잘 나타나 있음 3. 벼농사와 과일농사를 주로 하며 살고 있는 규모가 작은 마을로 드넓은 들판이 없이 큰 내를 끼고 형성된 산간지역임 3. 인근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로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언어변화도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됨. 4. 조사지가 혁신도시와 연계된 도시고속도로로 15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점으로 땅값도 상당히 올라 외지사람의 출입이 많이 예상됨. 		

연구 책임자: 정승철(서울대학교)

공동 연구원

이기갑(목포대학교)

박경래(세명대학교)

김덕호(경북대학교)

임석규(원광대학교)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연구 보조원

권창섭(서울대학교), 김경숙(경북대학교)

김경열(충북대학교), 김수영(서울대학교)

김유겸(서울대학교), 김인규(경북대학교)

신우봉(고려대학교), 오청진(목포대학교)

이현주(서울대학교), 정성경(목포대학교)

담당 연구원: 이 유 원(국립국어원)

전국 방언 지도 제작

발행인 송철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23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5년 12월 15일

발행일 2015년 12월 15일

인쇄 서울문화사